

2012 대한민국 하우포모전

도시의 기술의 기술의 기술의

2012 대한민국 하우포모전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201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는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옥설계 부문에서는 “함께 사는 한옥 : 한옥 공동주택”이라는 주제로 한옥 현대화의 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한옥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옥건축 부문에서는 최근 지어진 한옥 중에서 모범이 될만한 건물을 선별해서 널리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한옥은 박제화된 옛날 건축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건축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을 배려하고 주변의 자연과 소통하며 집주인 스스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고안된 뛰어난 보금자리가 현대의 삶에 맞추어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작품들이 우리 한옥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부문

새로 짓는 한옥의 모습이 궁금하다. 한옥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선망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조선시대와는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의 생활을 한옥에서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잘 지은 한옥이라는 평가는 목구조의 견실함과 아름다운 비례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한옥을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시켜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대적 설비가 충분히 적용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옥에서 느껴왔던 심미적, 정서적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획부문

201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한옥설계 부문의 주제는 “함께 사는 한옥”이다. 한옥은 방과 마루를 조합해서 건물을 만들고, 건물을 이어 채를 형성했으며, 채와 마당이 번갈아 놓여 집이 되었다. 반면, 현대 공동주택은 도시의 밀도에 대응하여 여러 세대가 구조체나 설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을 통해 지어지는 경제적인 주택유형이다.

한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평면적으로 확장되고 자연과 관계를 맺었던 여유롭고 호방한 건축물을 공간적으로 압축하고 새로운 건축유형과과 중첩하는 등의 다양한 조형적인 실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옥의 공동체 의식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사진부문

2012 대한민국 한옥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한옥의 일상”이다. 일상이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는 매일의 삶이다. 현대인의 삶이 다양한 장소와 공간을 가로지르며 전개되는 것에 비해 옛사람들은 정해진 공간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행했다. 한옥은 이러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었다.

현대에도 한옥이 지어지고 있으며 한옥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현대의 일상은 조선 시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남녀가 구별되던 관습이 사라진 대신 가족생활이 강조되고 있으며,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의자와 침대, 전기 조명과 공조 설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신체적 자세도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국토해양부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우리 건축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현한 한옥 건축과 사진 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옥 문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최 | 국토해양부
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주관 | 국정책위원회, LH 공사
공모신청 | 2012. 11. 5 - 2012. 11. 16
시상식 | 2012. 12. 28 (서울역사박물관)
계획부문 18개, 건축부문 3개, 사진부문 44개 작품 시상 (총 65개 작품)
전시회 | 1차 전시회 (서울역사박물관) : 2012. 12. 28 - 2013. 1. 6
2차 전시회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 2013. 1. 18 - 2013. 1. 24
3차 전시회 (대전역) : 2013. 1. 25 - 2013. 1. 31

<p>시상내역 건축부문 2012 올해의 한옥대상(1점) 상장 및 상패,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 2012 올해의 한옥상(2점) 상장 및 상패,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p>
--

시상내역 | 계획부문
대상(국토해양부 장관상, 1점) | 상장 및 상금 700만원
금상(LH공사 사장상, 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1점)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2점)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동상(3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입선(10점) | 상장 및 기념품

시상내역 | 사진부문
대상(국토해양부 장관상, 1점)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금상(2점) | 상장 및 상금 200만원(일반인1점) · 100만원(청소년1점)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2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일반인1점) · 50만원(청소년1점)
은상(4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일반인2점) · 50만원(청소년2점)
동상(6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일반인3점) · 20만원(청소년3점)
입선(29점) | 상장 및 기념품(일반인20점) · (청소년9점)

<p>공모진행과정</p> <p>건축부문 참가대상 출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공모대상 2007년 9월 6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에 준공 완료된 한옥 건축물(리모델링 포함)</p>
--

<p>계획부문 공모주제 한옥 공동주택 참가대상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내 · 외국인 제한 없음) 대상지 자유(단, 실제 대지를 대상)</p>
--

<p>사진부문 공모주제 한옥의 일상 참가대상 한옥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내 · 외국인 제한 없음)</p>
--

<p>공모 공지 2012. 9. 5(수) 09:00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2012. 11. 12(월) 09:00 - 11. 16(금) 18:00 심사 개최 2012. 11. 27(화) 14:00 - 18:00 최종 수상작 발표 2012. 11. 30(금) 09:00</p>
--

201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김봉렬 회장
		경민대학교 디지털영상과	김철현 교수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박상빈 과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양승우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우동선 교수
		조경포레	전은정 대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김근오 팀장
심사위원	건축 / 계획부문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영섭 교수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인석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주)피아건축	오경은 대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
		솔토건축사사무소 소장	조남호 소장
심사위원	사진부문	경민대학교 디지털영상과	김철현 교수
		전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박승환 교수
		경기대학교 교수	이상구 교수

건축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두가헌(杜柯軒) 8
 올해의 한옥상 양유당(陽有堂) 12 올해의 한옥상 관훈재(寬勳齋) 16

계획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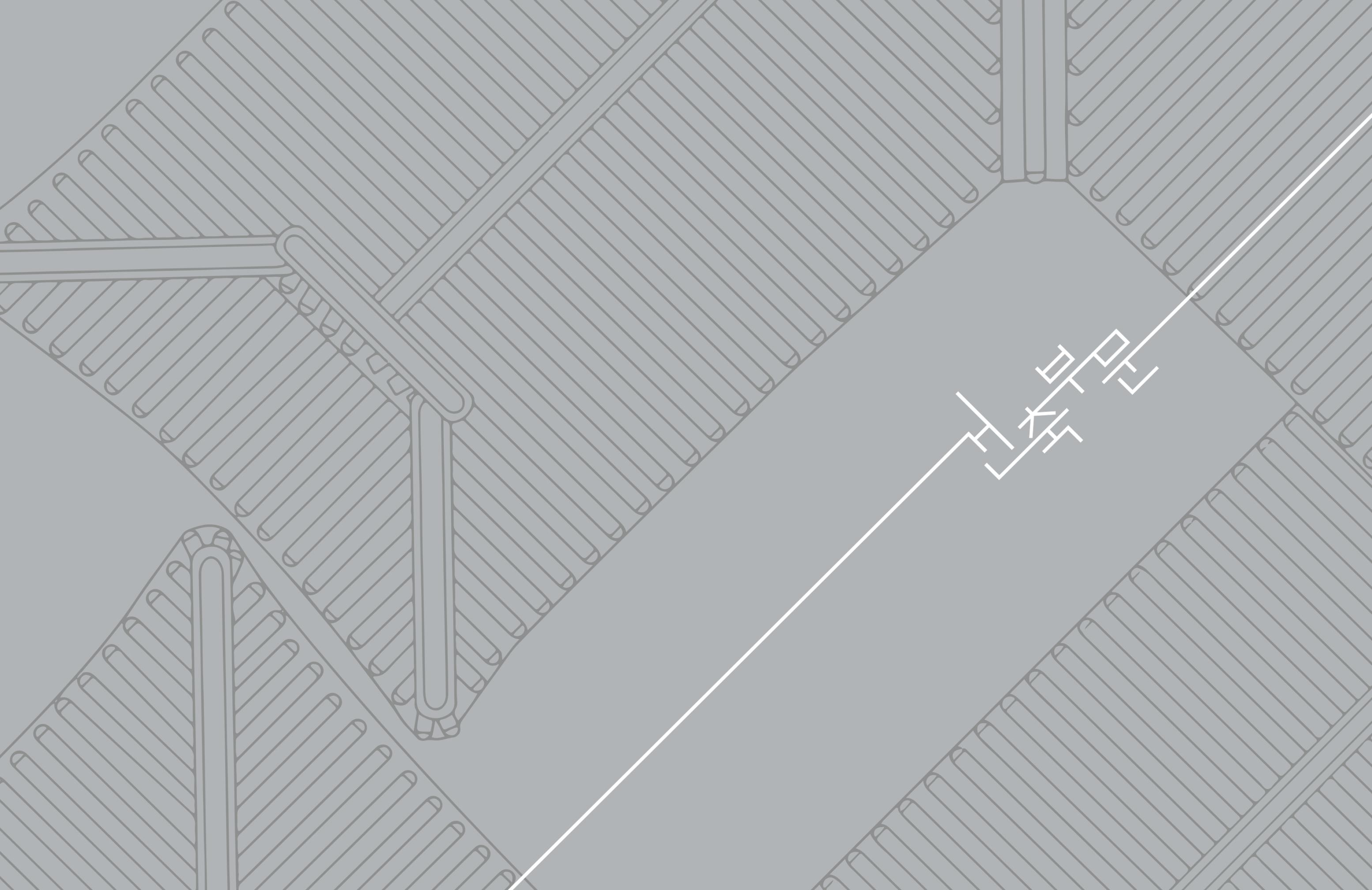
대상 김한옥 22 금상 도시한옥의 연가(緣家) 26 특별상 채를 품은 루:(樓:) 30
 은상 1칸 1가구 34 은상 한옥 3채와 바꾼 '집' 38 동상 한옥, 도시속에 앓다 42
 동상 Diaphor | 병치은유 46 동상 지붕 안(安) 한옥 50 입선 54

사진부문 - 일반인 부문

대상 일상 76 금상 한옥과 함께한 삶 78 특별상 한옥의 아침 79
 은상 고추널기 80 은상 천장지구(天長地久) 81 동상 옥과 양옥의 공존 82
 동상 기와와 다리 83 동상 햇살좋은날 84 입선 85

사진부문 - 청소년 부문

금상 변하지 않은 담소방 96 특별상 온새미로 고즈넉 97 은상 작은 길 98
 은상 홀로 걷는 골목길 99 동상 연경당 100 동상 가을의 추억 101
 동상 마루 102 입선 103



五
十
五
十
五

올해의 한옥대상 두가현(杜柯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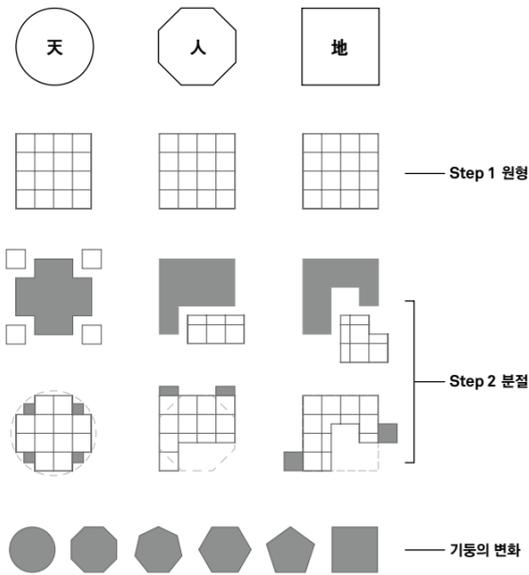
전우석 (유)우석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 곡성 섬진강변에 위치한 한옥펜션 두가현은 주변 자연 화석오가의 어울림을 통해 도심에서 찾을 수 없었던 시골의 여유 이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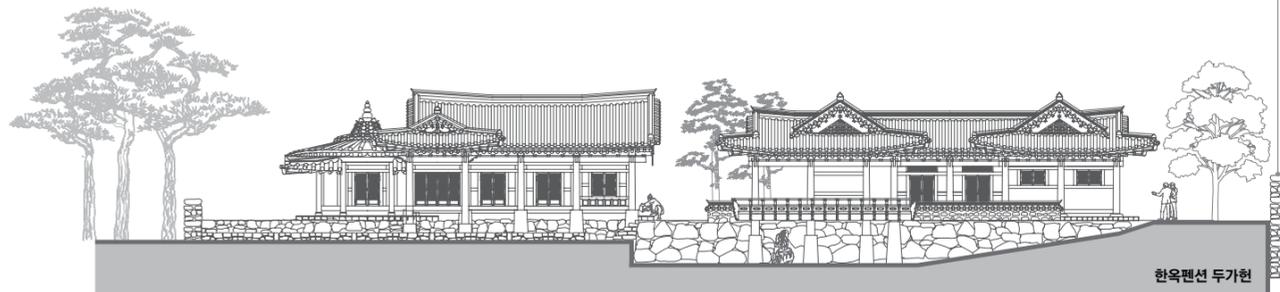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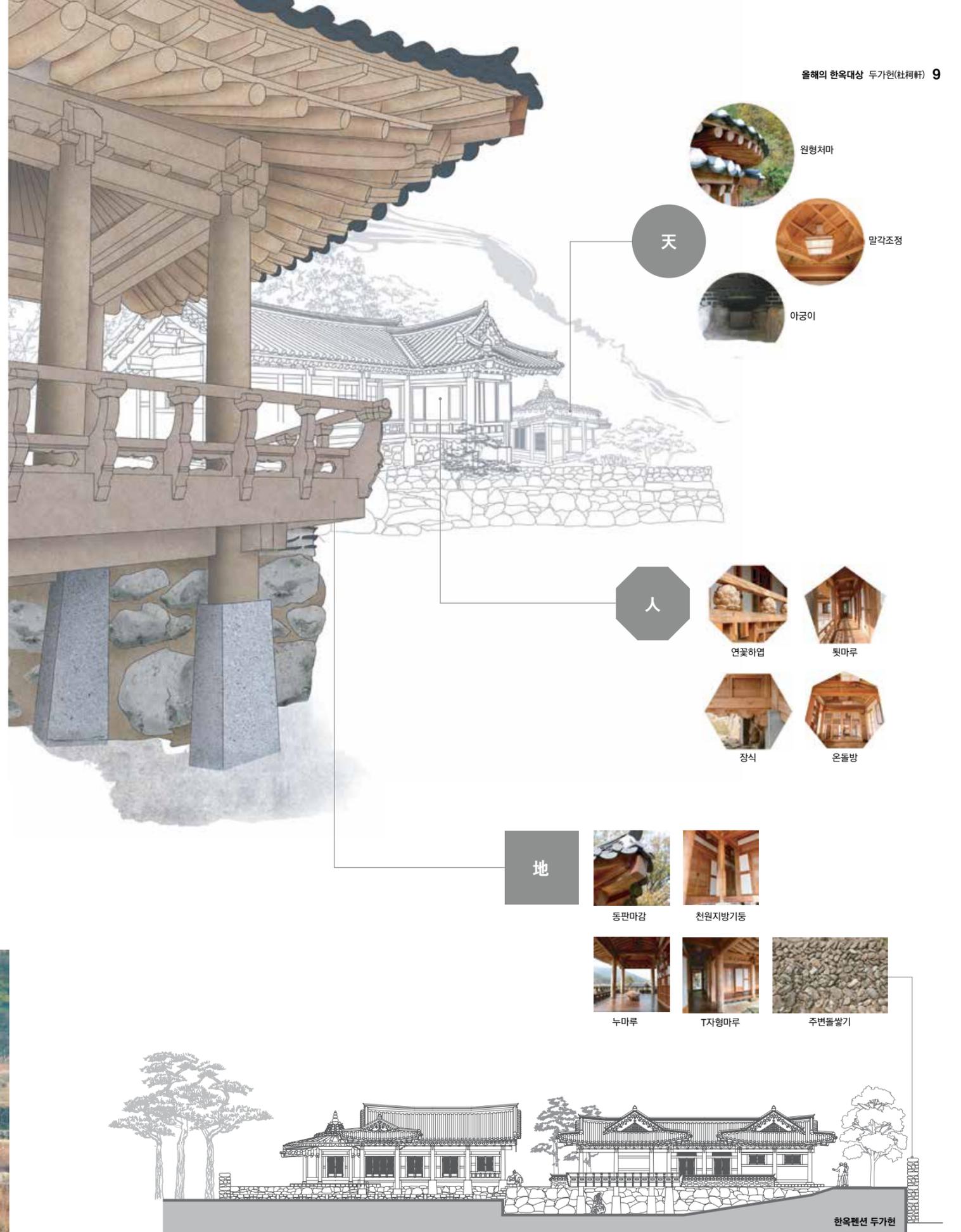
배치 소백산 줄기의 끝자락과 섬진강의 줄기 두가현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경관이 뛰어나며 주변의 계단식 논두렁이 조화되는 자연석축 단차로 주변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시 하였다. 외부공간은 돌담 및 석축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식재로 자연과의 밀접성을 증대하도록 하였다.

평면 두가현은 현주당, 창망재, 능소각, 화장실로 구성되며 현주당은 “ㄷ”자의 변형으로 자연을 품는 형상으로 계획하였고 창망재는 “—”자 형에 누마루 날개를 덧붙임으로 “ㄱ”자 형으로 하였고 능소각은 “+”자형의 평면이 원형으로 발전하는 자기완결적 형태를 취하였다.

입면 전체적입면은 주변과 조화를 우선시하였고 현주당은 팔작 지붕의 조합으로 새가 비상하는 날개모양을 하며, 창망재는 중간건물로 팔작지붕의 연속성을 주기위하여 일변을 맞배 지붕으로 처리하고 능소각은 변형된 원형지붕으로 처리하여 각각 다양하면서도 조화로운 지붕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두가현
 대지위치 |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546, 546-1번지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
 용도 | 주택(펜션)
 대지면적 | 1,610m²
 건축면적 | 210.42m²
 연면적 | 210.42m²
 단독주택(현주당) | 103.14m²
 단독주택(창망재) | 62.37m²
 단독주택(능소각) | 23.04m²
 화장실 | 21.87m² 건폐율 | 13.07%
 용적율 | 13.07% 규모 | 지상1층
 주요구조 | 한식목구조



능소각



창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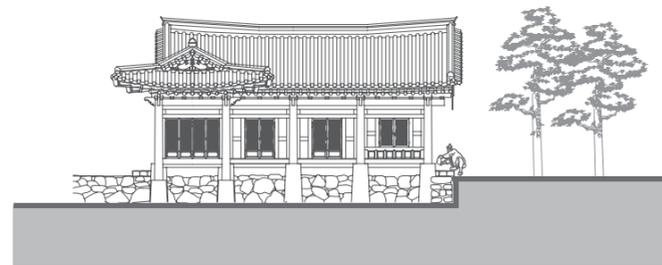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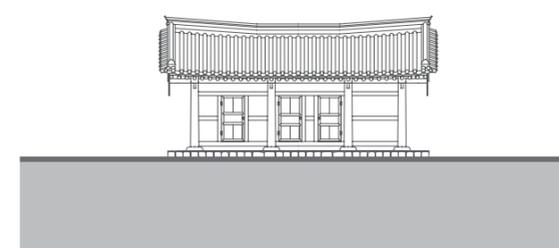
현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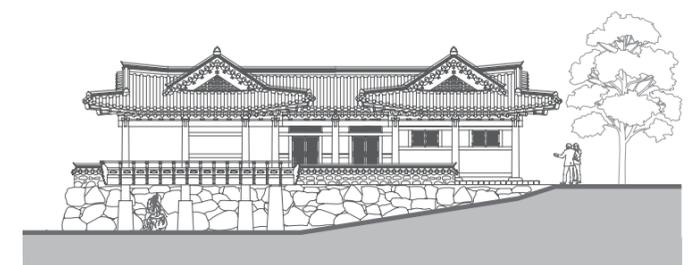
능소각 정면도



창랑재 정면도



화장실 정면도



현주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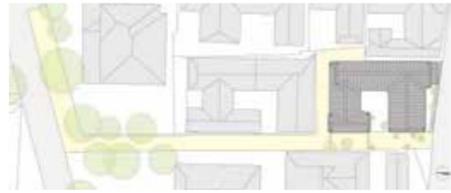
올해의 한옥상 양유당(陽有堂)

조정구 (주)구가도시건축

가회동 11번지 언덕 위에 있는 집이다. 경사진 길을 따라 오르면, 아래로 서울 시내와 남산이 한 눈에 보이고, 여기서 긴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문간 앞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바로 부엌이 보이고, 내부의 이어진 공간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온다. 대청에 올라서면 뒤쪽으로 북악산이 보이며 시원한 풍경이 펼쳐진다.

부모와 한 명의 자녀가 사는 집으로 2011년 가을에 완공했다. 아파트에만 살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한옥에서 '단란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자신의 방 이외에는 자기공간이 없던 자녀에게, 바깥채에 자기방과 작은 대청, 다락, 화장실이 따로 있는 '독립된 영역'을 주었다. 독립된 영역을 가지는 만큼 스스로 당당하게 부모와 만날 것이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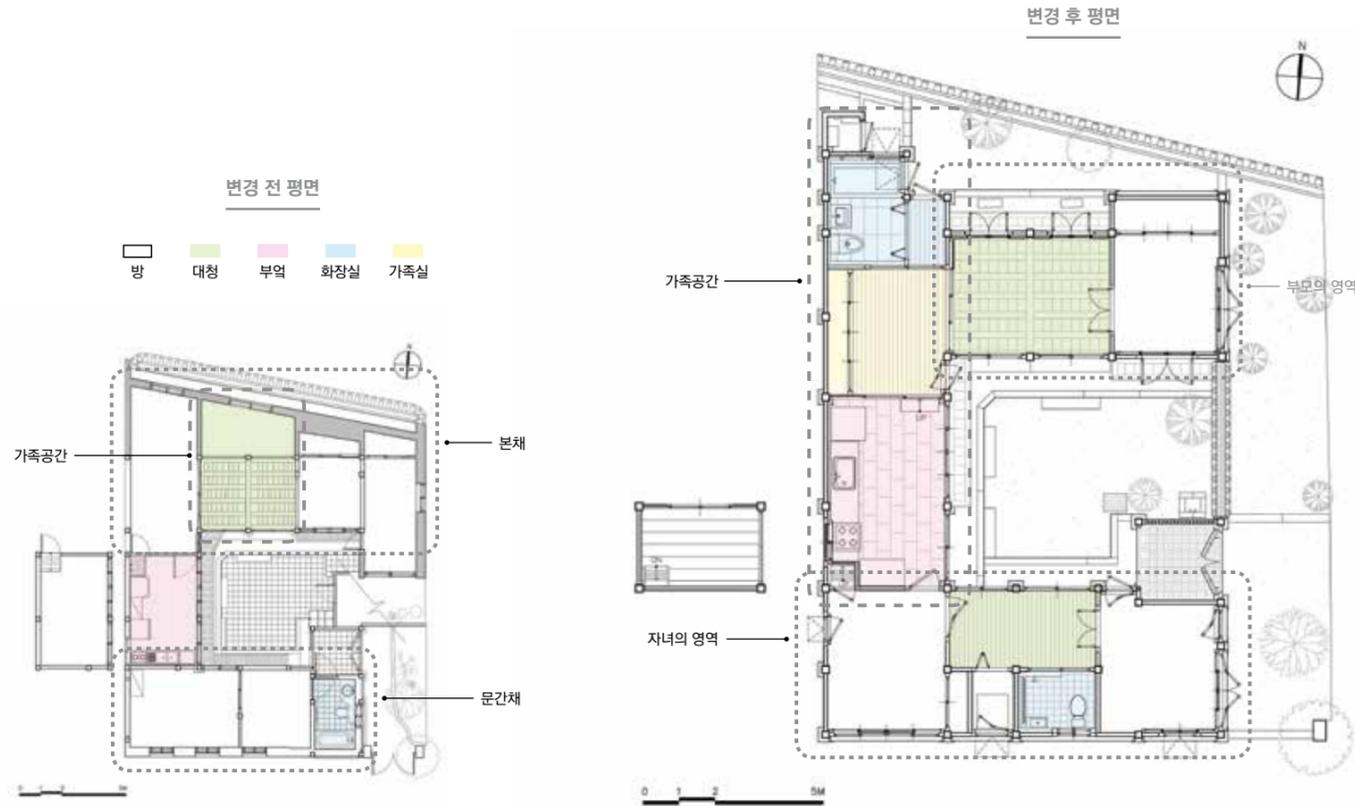
부모와 자녀는 부엌을 중심으로 만나게 하였다. 안방자리에 새롭게 가족실을 두어, 식구들이 모여 컴퓨터 작업이나 독서, 휴식 등을 하는 '열려있는 친밀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 부엌 바닥을 낮추어 마당과 소통을 편하게 하고, 자녀방 다락에서도 부엌에 있는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였다. 욕실에는 작은 전실과 천창을 두어 여유 있게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영역이 다르면서도 전체 동선이 하나로 이어지고, 공간이 흐를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양유당(배치도)
 대지면적 | 129.10m²
 건축면적 | 75.70m²
 연면적 | 75.70m²
 규모 | 지상 1층 용도 | 단독주택
 설계기간 | 2011.01 - 2011.04
 공사기간 | 2011.05 - 2011.11



양유당(골목전경)



오래된 골목풍경을 이어가다

가회동 11번지 오르막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담장과 무성한 나무들이 모여 있는 정감어린 골목을 만나게 된다. 이 길의 끝에 있는 가회동 11k 한옥은 이런 골목 분위기에 낯설지 않게 자리하고, 동네 풍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입면을 계획하였다. 철문으로 되어 있던 원래 집의 대문을 열어 화단을 만들고, 주변 입면과 어울리도록 화강석과 와편을 사용하였으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답답하지 않도록 창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자연스러운 입면을 가지도록 하였다.



아들방



손님방

“엄마랑 아이는 식탁에 앉고 저는 가족실에 걸터앉아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원래 자기 공간에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구요. 부모가 그걸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서는 안된다구요... 그럴 수도 없구요.”

가족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소통하다

기존 한옥은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진 목직한 본채와 방과 화장실로 구성된 기능적인 문간채, 작고 답답한 느낌의 부엌으로 이루어진 위계가 있는 한옥이었다. 건축주는 아파트에서 한옥으로 이사를 오며 현대적인 생활의 편의가 충족되면서 단란한 가족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우선 기존 안방자리에 새로운 가족실과 화장실을 두어 간결하고 시원한 본채를 만들고, 마당과 소통하는 개방적인 부엌을 두었다. 아들에게는 '한개의 방'이 아닌, 방-작은 대청-화장실로 구성된 '독립적인 영역'을 주어 자신의 공간에 책임을 가지고 결혼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가족에서 대청이 담당하던 가족의 생활 영역을 가족실과 부엌까지로 확장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쉽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였고, 가족실은 필요에 따라 닫아 두어 방으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옥, 집의 기본을 지키다
방은 방답게, 대청은 대청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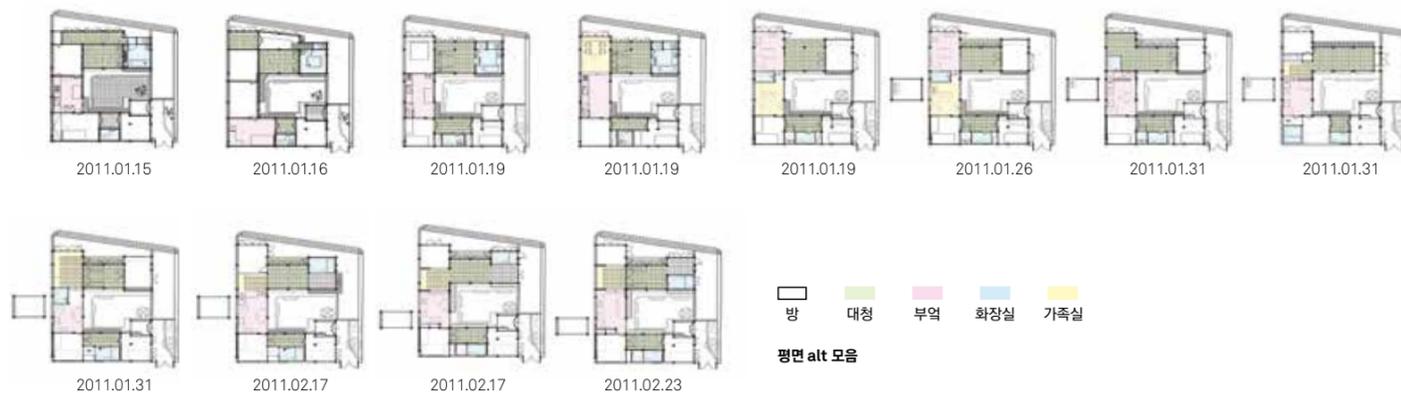
어둡고 답답하였던 기존 가족의 증축부를 정리하여 밝고 아늑한 방을 만들었다. 골목길과 맞닿아 있는 외부는 프라이버시와 채광 두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와 크기의 창을 다양하게 두었다. 북쪽으로는 덧붙여진 공간을 철거하여 뒷마당과 풍경이 살아있는 시원한 대청을 만들고, 가족실은 두 면 모두 미닫이 문으로 계획하여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유동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부엌과 화장실은 밝고 쾌적하게

다락 아래 부엌 공간으로 현관을 두어 아늑하고 정감있는 진입부를 계획하였으며 마당과의 소통이 쉽도록 입면을 투명하게 처리하였다. 부엌과 가족실은 380mm정도의 단차를 두어 부엌의 입식 공간과 가족실의 좌식 공간이 조화롭도록 계획하였다. 바닥은 타일을 깔아 물 사용이 잦은 부엌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연한 녹색으로 벽을 마감하여 차분한 색을 입은 한옥 부엌이 되도록 하였다. 북쪽에 자리한 화장실은 전실을 두어 여유를 주었고, 채광을 위하여 용마루 위로 천창을 두었다. 욕조 주변에는 창을 두어 뒷마당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바닥 뿐만 아니라 벽면도 타일로 마감하여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화장실을 만들었다.

가족의 풍경에 맞는 삶의 형상을 고민하다



투명한 내부공간, 서로를 바라보다

주변 입면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적절한 개구부를 가진 외부 입면과 달리, 내부는 유리를 사용하여 각 공간에서도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입면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따뜻한 부엌 공간과 아들 영역의 아담한 작은 대청이 눈에 들어온다. 본채의 대청에는 T자형의 유리창을 두어 마당에서부터 뒷마당과 인왕산이 보이도록 계획하였고 그 앞 쪽으로 한지 미닫이문과 들 문을 두어 뒷집과의 시선을 적절하게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의 한옥상 관훈재(寬勳齋)

김장권 북촌HRC

수직적 팽창-보존과 발전을 동시에 가지다

토지 이용율이 떨어져 상업공간으로써의 접근성, 공공성이 결여되는 한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직적 팽창은, 전통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한옥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 하여 한옥이 더이상 정체된 과거의 건축물이 아닌 도시와 소통 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관훈재는 한옥이 수직적으로 팽창하기 위해 풀어야할 기본적인 요소인 층간 소음방지, 그리고 각 층마다 연속된 작업으로 2층이상, 3층, 4층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가구구 법에 중점을 두고 설계 계획에 들어갔다. 이어서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한 것은 2층 한옥이 대지와와의 관계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였다. 이는 중정을 들어올려 줌으로써, 마당을 1층과 2층에서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하는것으로 풀어보았다. 그러면서 지하층 천장이 높아졌고, 환기창 설치로 채광하여 지하실의 답답함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관훈재는 자연에 순응하고 공존하기 위해 중정과 처마를 둠으로써, '채우기'보다 '비우기'로 형태를 다듬었다. 이것은 도시속 비좁은 대지 안에서 한옥이 자연의 공간을 인간의 공간으로 연결해주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낼수 있는 것이 바로 '채우기'가 아닌 '비우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또한, 수직적 팽창을 통해 차별화된 공간은 주변 현대 건축 물로 부터 소외 되지 않고 도시 속에서 조화된 모습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관훈재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2-8(관훈동 32)
 대지면적 | 109.0m²
 건축면적 | 63.21m²
 연면적 | 187.91m²
 건물면적 | 지하층 70.19m², 1층 63.21m², 2층 54.51m²
 층수 |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 | 지상층-한식 목구조, 지하층-철근콘크리트조
 착공일 | 2010. 6. 7
 준공일 | 2011. 5. 2

위치
 종로대로에서 안국동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서울 최고의 관광지로 유명한 인사동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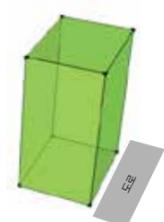


주변현황
 한옥 밀집지역과 현대건축이 만나는 곳으로 단절된 두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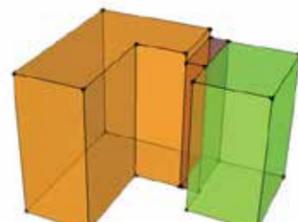
Design Process

Step 1
 도로에 면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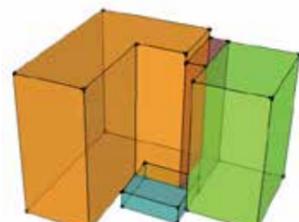
법적 요소(지구단위지침)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높이를 낮추어 위압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줌.

Step 3
 이음을 통한 ㄷ자형의 완성



'ㄷ자형' 과 높낮이를 둔 'ㄱ자형' 배치를 통해 체의 구분을 두어서 격을 갖춤.

Step 4
 통마당(중정) 계획



1층과 2층 사이 중정을 통해 전통 건축의 품위를 지키는 동시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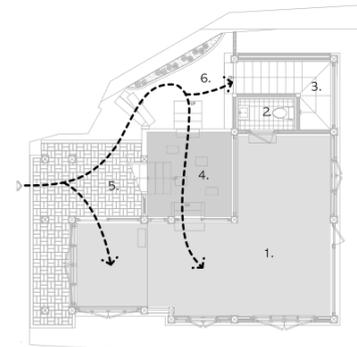
Design Process

Basemen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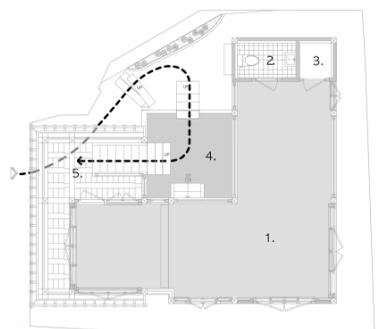
1.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2. 화장실, 3. 수납, 4. 계단실

1F Plan



1.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2. 화장실, 3. 계단실, 4. 중정, 5. 기단, 6. 마당

2F Plan



1. 근린생활시설(판매공간), 2. 화장실, 3. 수납, 4. 중정, 5. 누마루

여유공간을 통한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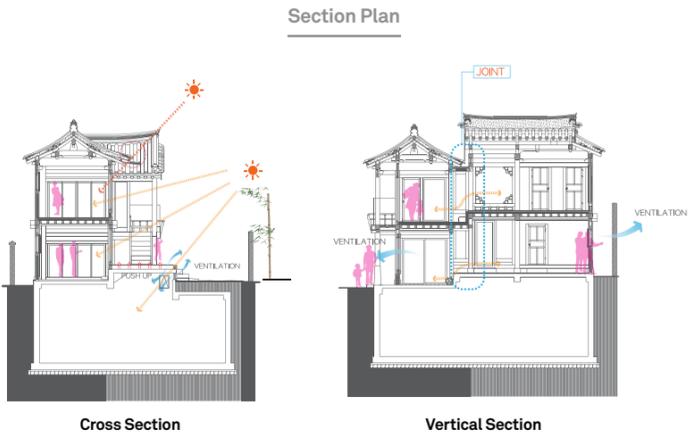
도로에 면하는 퇴의 노출을 통해 도로와 대지, 외부와 내부의 소통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여유를 주었다. 이 공간은 1층 공간의 활용용도에 따라 좌판 등의 공간으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중정의 공유

중정을 들어올려 2층한옥에도 중정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1, 2층 모두 중정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계단을 통해 어느공간으로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

개방감 부여

2층의 좁은 공간에 시야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누마루형태의 실을 계획하였다. 2층 내부 천장은 목재 서까래, 선자연을 그대로 노출시켜 공간감을 주고, 한옥의 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들어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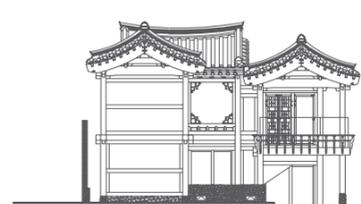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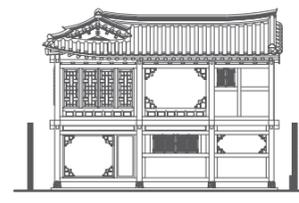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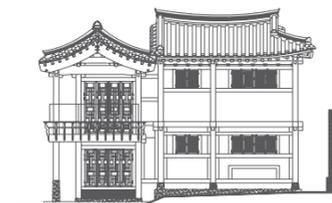
중정을 들어 올림으로써 마당을 통한 1, 2 층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좁은 공간에 여러가지 단차가 더해져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하층의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게 하였다.

빛과 바람이 드나들다

기존 대지의 단차를 그대로 이용해 두건물에 단차를 두어 바람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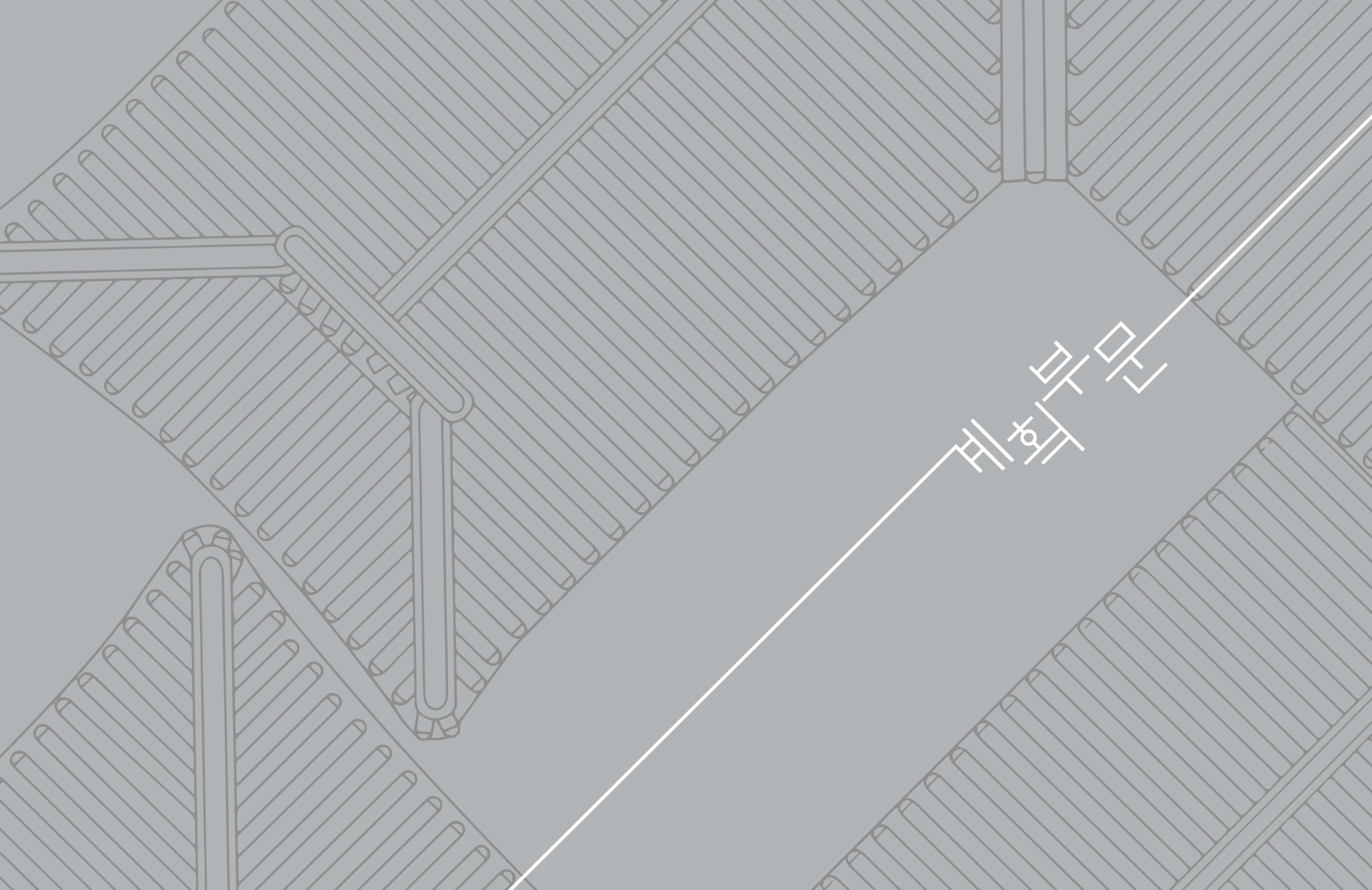


Elevation Plan



- 수직적 평창으로 인해 자칫 불안해 보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는 파사드에 장주초를 사용하여 스케일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 2층에는 계자난간을 두어 한국전통의 선과 품격을 살리고자 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중층 목조주택과도 차별을 두고자 하였다.
- 법적 난간 높이 규제를 충족 시키기 위해 높이1.2m의 강화유리 난간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입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2층 퇴칸으로 비 들이침 또한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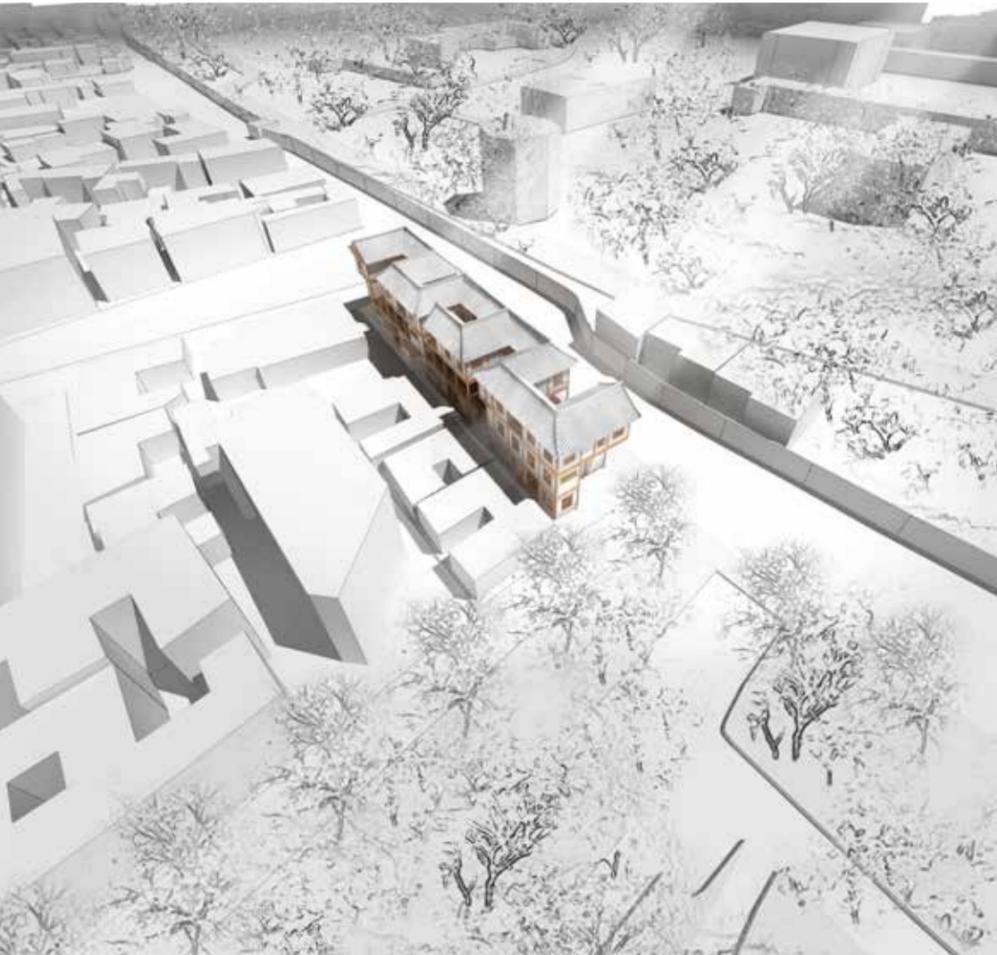
2층 내부공간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눈높이를 고려하여 통유리를 사용하였고, 인접 상업 건물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우측면에는 작은창을 계획하고, 창호지로 마감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서화부

Prologue

한옥은 예로부터 자연과 함께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고밀화 된 현대도시에서 땅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어만 가고 있으며, 현대한옥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고전적인 한옥의 기능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거주하기 편한 공동주택을 선호하듯 이제는 좁은 땅에서도 옛 기능을 담고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형식의 한옥이 들어서야만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식의 한옥이란 어떻게 이야기 될 수 있을까? 도시조직에서 모듈화 된 주거공간은 수직으로 적층되어, 좁은 대지에서 고밀도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사생활의 공간만을 가진다. 이로 인해 과거 전통 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수평적인 구조와 거주민들의 관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공간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빚대어 볼 때, 새로운 형식의 한옥이란 수직과 수평으로 확장된 한옥공동체이다. 우리는 전통 마을의 수평적인 구조를 빌려와 도시의 수직적인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새로운 공간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대지는 북촌한옥마을의 문화공간의 시작점에 위치한 좁고 긴 땅이다. 동쪽으로 창덕궁, 남쪽으로 원서공원 사이에서 주변의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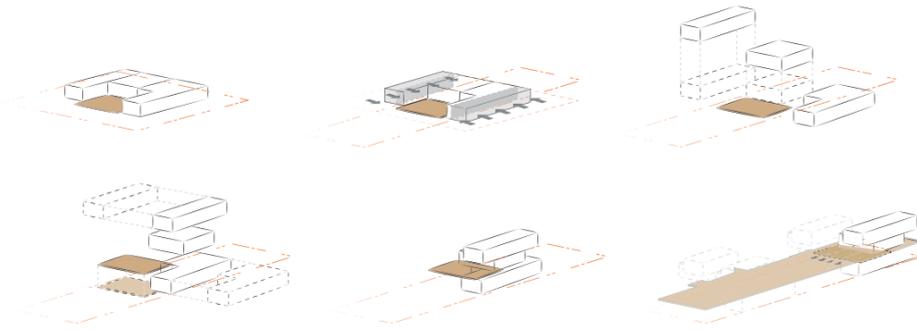


Proposal

유닛은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연결되어 동선이 간결화 되었고, 실과 마루가 상황에 따라 열리고 닫힘으로써 공간의 영역을 확장가능하게 했다. 또한 서로 다른 세대의 유닛들이 마주보고 있어 거주민들이 쉽게 마주치고, 대화하고,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좁은 대지에서 한 개의 유닛을 3층으로 계획하고 기존의 한옥과 달리 밀도를 높여 한옥 특유의 휴먼스케일의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좁은 도시공간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려고 했다.

Design Strategy

기존 한옥은 넓은 땅에 마당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배치되어 관계를 맺는 형식을 가진다. 우리는 좁은 대지에서 한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한옥의 평면 구조를 크게 세 칸으로 나누어 수직으로 쌓아올려 마당이 가운데층에서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하나의 모듈화 된 유닛 여럿이 모여서 2층의 마당공간과 대청마루가 서로 확장되어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을 위한 공용공간이 된다.



마당과 마루



3층의 누마루 형식의 외부공간은 아래층의 개방된 마루와는 달리 주변 풍경을 끌어들이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다.



2층의 대청마당(대청마루+마당)은 여러세대의 마루가 확장되어 하나의 공간이 되고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을 위한 공용공간이 된다.



1층의 바깥마루는 사랑채와 다실(茶室)과 함께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잠시 들렀다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Unit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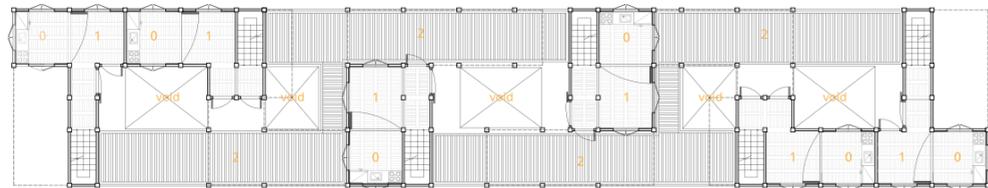
0. 누마루 1. 안방 2. 건너방 3. 화장실



각 유닛은 두 세대가 마주보도록 배치되었다. 가운데 중정을 통해 수직으로 공간이 확장되어 각 세대 간의 교류가 일어나게 했으며, 방과 마루는 상황에 따라 확장될 수 있게 했다. 3층에서는 안방이 누마루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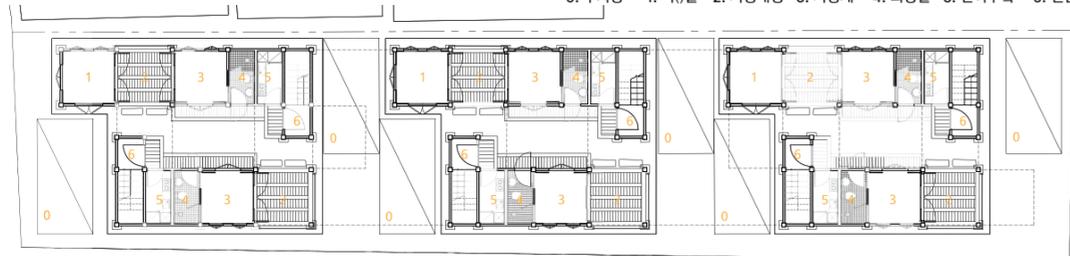
0. 부엌 1. 거실 2. 대청마당



2층의 거실은 대청마루와 마당과 함께 하나의 공간이 되어 수평적으로 확장되게 했다.



0. 주차장 1. 대(廳) 2. 사랑대청 3. 사랑채 4. 화장실 5. 간이부엌 6. 현관



1층에는 사랑채와 다실(茶室)이 바깥마루와 연결되게 했다.



Structure(Glue Laminated Ti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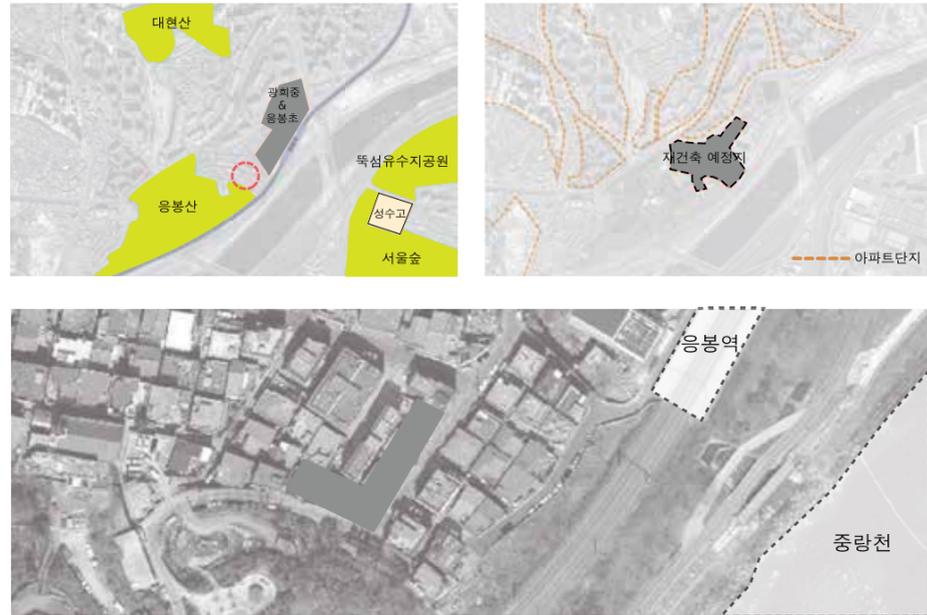
3층은 목구조로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재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업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글루램을 사용했다.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와 일체화 된 구조체가 되게하여 안정적인 구조로 시공 가능하게 했다.



금상 도시한옥의 연가(緣家)

류재훈 / 양정원 / 황지용 / 유지현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예정지 중 하나인 응봉동에 한옥공동 주거를 계획한다. 응봉동은 북촌같은 한옥밀집지역과 달리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후된 주거 지역이다. 이곳에 한옥 소규모 공동 임대주택을 계획함으로써 한옥의 도시주거로서의 가능성을 투영시켜 제시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공급 방식이 아닌 1~2인 가구 위주의 소규모 한옥공동주거는 기존 응봉동이 가지고 있는 마을의 물리적 맥락과 조우하고 기존 공동체와의 커뮤니티 확보를 통해서 이뤄진다.



계획개요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2-15, 18, 19, 20번지
 지역지구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899.17m² 건축면적 | 513.47m²
 용적률 | 98.4% 건폐율 | 57.1%
 구조 | 경량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 한식목구조
 단위세대 | 1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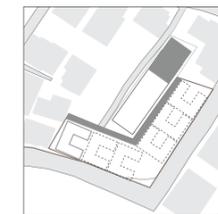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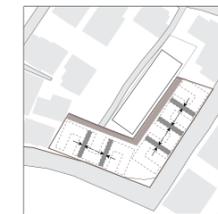
대지는 약 14m의 폭으로 오르막길을 접하고 있는 북사면의 땅이다. 현재 낙후된 4채의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899m²의 대지에 조성하는 계획안이다.



각 주거 모듈이 가지고 있는 외부 공간은 서로에게 등 돌리지 않고, 공공의 공간과 길에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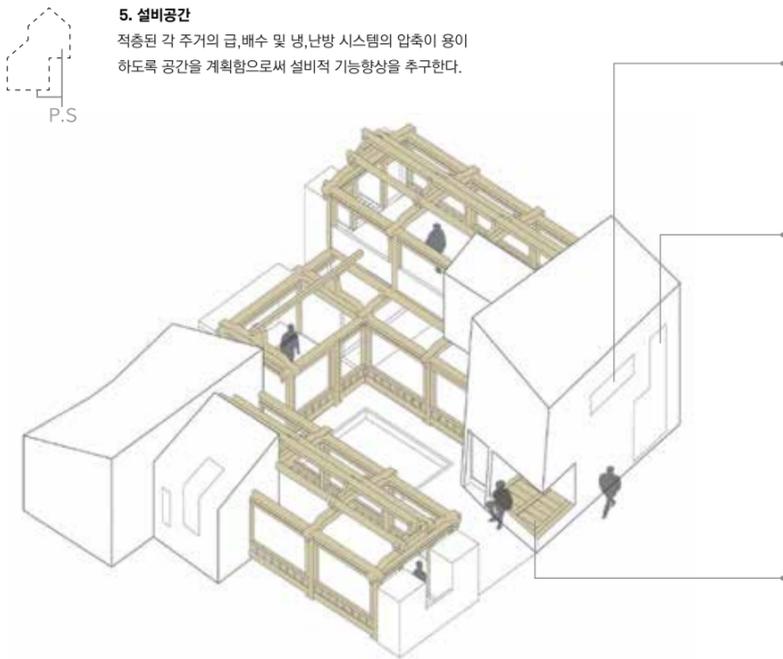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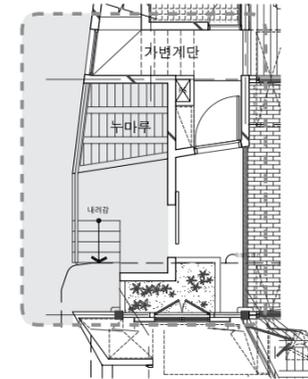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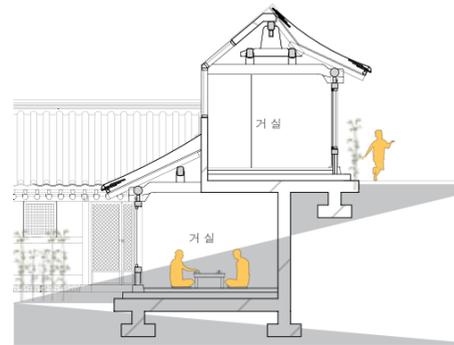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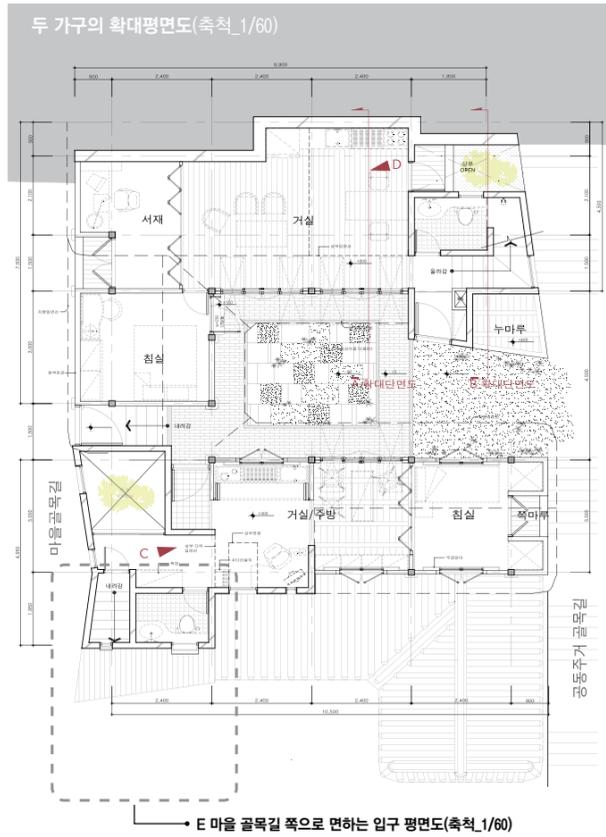


하나의 'c'자형 한옥 모듈에 두개의 세대가 쓸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공동 주거민을 위한 골목길을 만들어준다.



고저차이를 갖는 두 개의 주거는 단면적으로 압축되고 합쳐지면서 임대주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설비공간
적층된 각 주거의 급,배수 및 냉,난방 시스템의 압축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설비적 기능향상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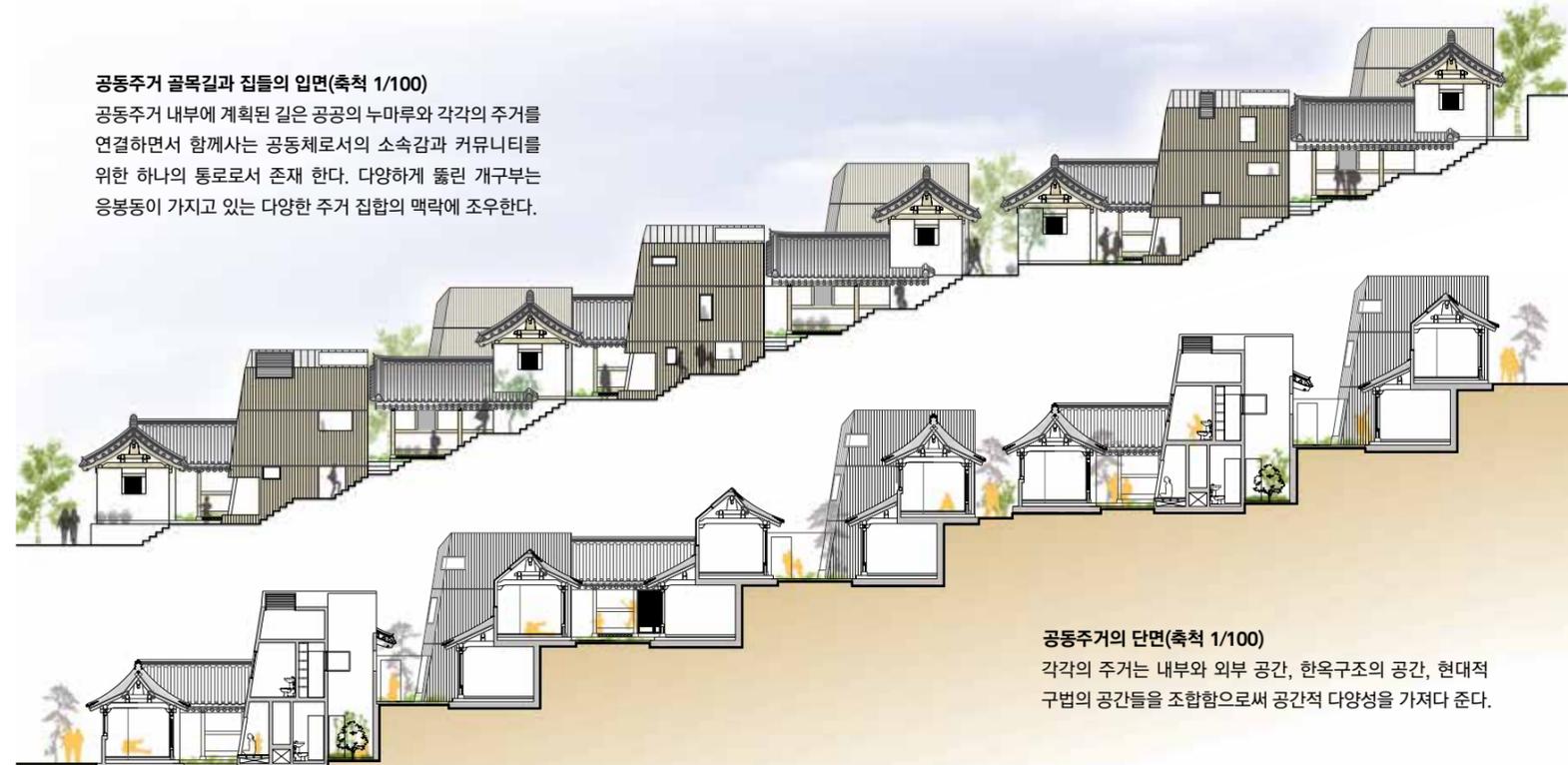
4. 재료의 사용
콘크리트박스의 마감은 한옥의 목구조와 기와의 색감이 공존할 수 있도록 나무재료를 마감한다.

3. 자연채광, 환기 그리고 조경
조경공간은 주거의 중심에 공유하는 마당과는 다르게 개인적이며 감성적인 작은 외부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채광과 환기를 하는 기능적인 공간이다.

2. 가변하는 주거의 크기
적층되어 있는 주거는 임대상황에 따라 한 세대를 다른 크기로 이용할 수 있다. 가변하는 계단은 두 주거를 동시에 임대할 경우 연결 통로로 이용되고, 한 주거씩 임대할 경우에는 아랫층 세대의 수납공간으로 이용된다.

1. 공유하는 누마루
마을의 골목길과 공동주거의 길 양쪽으로 열려 있는 누마루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며 크기는 마을 공동체, 작게는 공동주거 주거민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유도하는 공간이다.

공동주거 골목길과 집들의 입면(축척 1/100)
공동주거 내부에 계획된 길은 공공의 누마루와 각각의 주거를 연결하면서 함께사는 공동체로서의 소속감과 커뮤니티를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존재 한다. 다양하게 뚫린 개구부는 응봉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거 집합의 맥락에 조우한다.



공동주거의 단면(축척 1/100)
각각의 주거는 내부와 외부 공간, 한옥구조의 공간, 현대적 구법의 공간들을 조합함으로써 공간적 다양성을 가져다 준다.

남산 아래 첫 동네 해방촌. 하늘에 닿을 듯이 가파른 108계단에 올라서면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끊어질 듯 이어진다. 좁은 골목 길을 따라 산비탈에 올라붙은 오래된 집들. '용산 2가동'이라는 버젓한 지명을 두고 '해방촌'이라 불리는 동네.

해방촌은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들, 그리고 또 북쪽에서 월남한 동포들, 그 후 6.25전쟁으로 인하여 월남한 동포들이 정착한 마을로써 해방 후에 생긴 마을이다. 해방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 연속되었던 하층민의 아픔과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을로 아직도 매우 오래되고 부유하지 못한 주거환경이 남아있는 곳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편으로 주거비가 저렴하여 다양한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 실향민들의 마을이었던 해방촌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은 외국인들이 해방촌 토박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존 해방촌 주민의 문화와 다양한 외국인들의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단한 타향살이를 시작했던 곳, 해방촌.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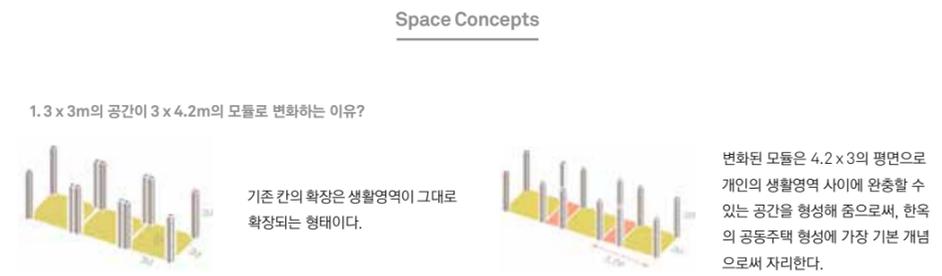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해방촌의 주민들, 새로운 터를 찾아온 외국인, 독거노인, 학생,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을 현대 사회공동체 안에서의 소외된 불완전한 계층으로 보고 이를 한옥을 통해 해결해 주고자 한다.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한옥의 '채' 개념을 가져왔다. 기존의 한옥은 채 를 성별, 계급 등에 따른 위계로서 구분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의 흐름에서는 맞지 않는 개념 이므로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채를 구분하기로 했다.

현대인들은 개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취미활동, 사적인 공간의 확보 등을 중시하게 됐으며 자신만의 공간이 보장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상하구분에 따른 위계가 아닌 자신의 개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을 통한 채의 구분으로 교류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불완전한 요소들이 만나 서로를 완전한 요소로 채워주기 위한 공간을 제시한다.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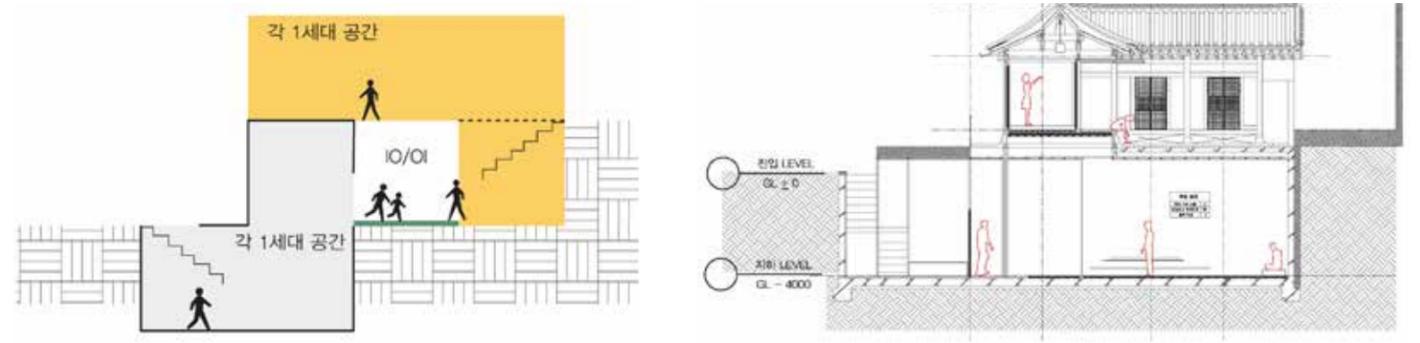
1. 3 x 3m의 공간이 3 x 4.2m의 모듈로 변화하는 이유?
 기존 칸의 확장은 생활영역이 그대로 확장되는 형태이다.
 변화된 모듈은 4.2x3의 평면으로 개인의 생활영역 사이에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줌으로써, 한옥의 공동주택 형성에 가장 기본 개념으로써 자리한다.



2. 주거 공간방식의 변화
 채의 공간 구조로 인해 칸과 칸이 만날 때에, 조합되는 형식이 직사각형의 공간 구성으로, 생활채 내에서의 안정감을 구현 할 수 있다.
 직사각형의 공간구성방식 구성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에사람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 속에서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

3. 공용 공간의 설정
 공용공간은 중앙집중식의 공간구성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3 x 3m의 정사각형 unit으로 채를 구성하였다.
 정사각형의 공간구성방식 구성이 정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중심점을 찾으려고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 모이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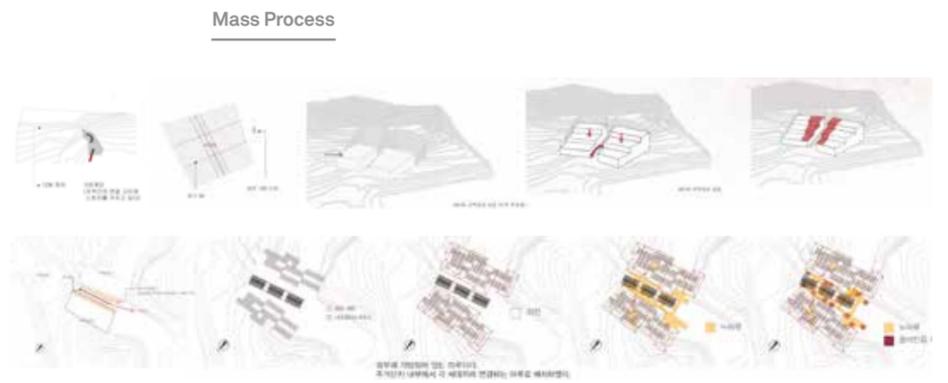
Based Housing Unit
 각 세대의 공간들이 합쳐질 때에 가운데에 void 공간을 줌으로써, 세대 외의 외부공간에도 그 주거의 질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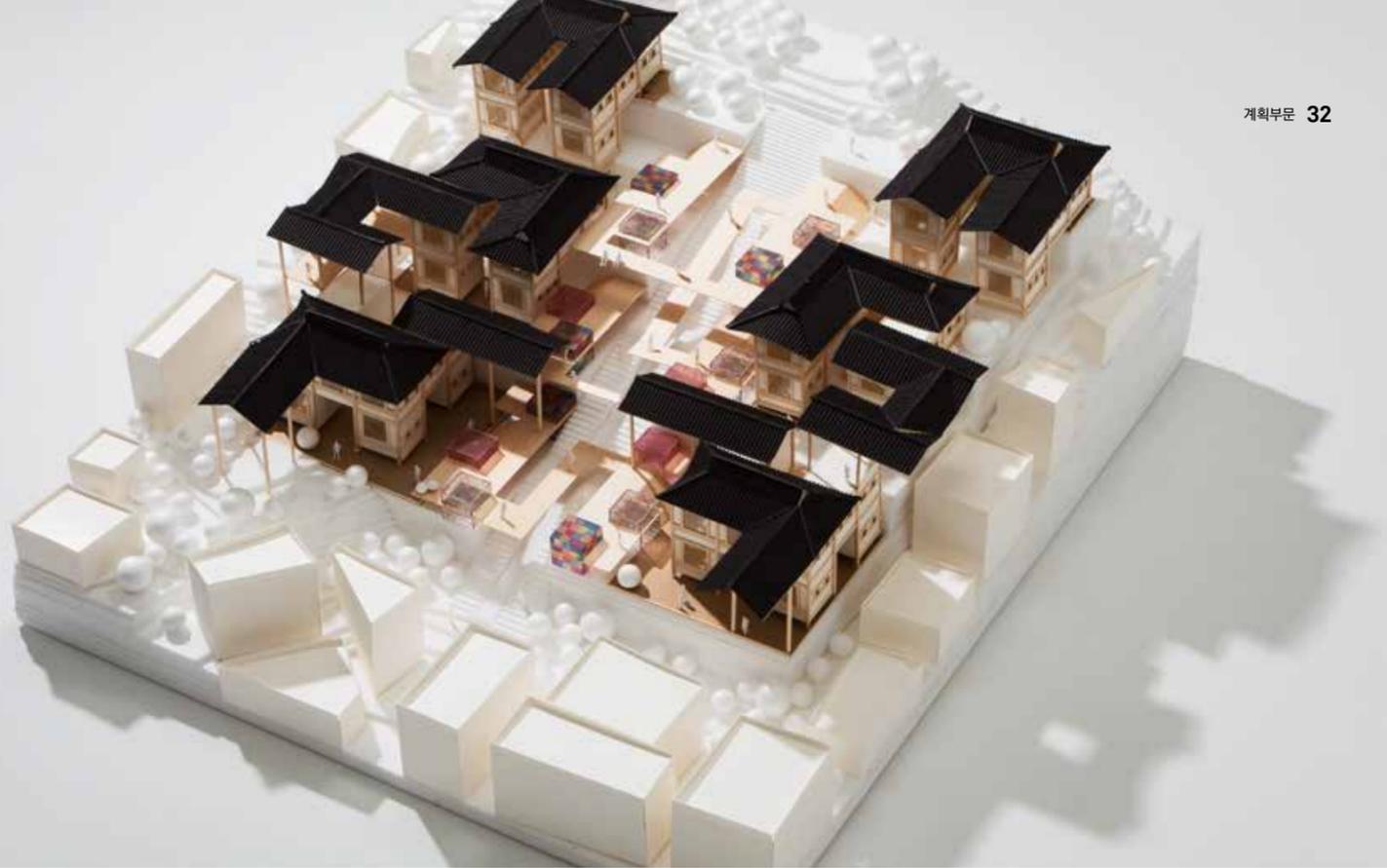
해방촌에 위치한 SITE는 급경사 지역으로 기존의 등고와 가파른 계단을 그대로 이용한다. 배치를 위해 '칸'을 하나의 유닛으로 설정했는데 우리는 한 칸의 크기를 4.2x4.2로 규정 하면서 한옥에서의 가변적 공간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 장치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한옥이 수평적 확장만 으로 위계를 형성 했다면 해방촌 SITE 내에서는 경사에 따라 공간의 위계를 형성함으로써 각 세대가 자신들의 공간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된 다양한 공간의 구성방식을 유도하였다. 이는 한옥의 가변성 이라는 측면과도 상통하는 부분으로 이를 구현해 내기위해 새로운 공간 형성에 있어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도입했다. IN-IN, IN-OUT, OUT-OUT (이하 I.I, I.O, O.O) 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인데 I.I는 가장 내부의 공간으로 실의 안쪽(방)을 의미 하고 I.O 혹은 O.I는 처마 밑, 길게 늘어선 회랑 밑 또는 누마루 하부 같이 내가 서있는 공간이 외부인지 내부인지를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O.O는 가장 바깥의 공간으로 누마루 위, 마당의 한복판 같은 외부 공간을 말한다. 이것을 한세대의 주거 유닛에 적용함으로써 내부 에서 외부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확장과 이에서 더 나아가 커뮤니티 공간까지의 확장으로 인해 지역과의 관계설정에 이용 하였다.

현재 대지상황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통로인 가파른 계단 옆에 주거공간이 가까이 붙어있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고 서로간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상에서도 위계를 부여 하였다. 계단을 중심으로 가장 외곽부분에는 주

거공간을 배치하고 (I.I - Private) 계단 양 옆으로는 누마루와 끌어안음채 (I.O , O.I - Semi Public)를 배치하여 가운데 108계단(O.O - Public)과 주거공간사이에 주민들의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사회적 불완전한 계층인 해방촌의 주민들은 이러한 공동체생활의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여유를 찾고 주민간 교류가 확대되며 조금씩 부족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줌으로써 옛날의 우리 한옥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을 현대마을에 재현시켜 점점 개인화 되가는 사회현상들을 극복 하고자 하는 출발점이자 확장의 장이 될 것 이다.



Mass Process



Unit Plan & Section(scale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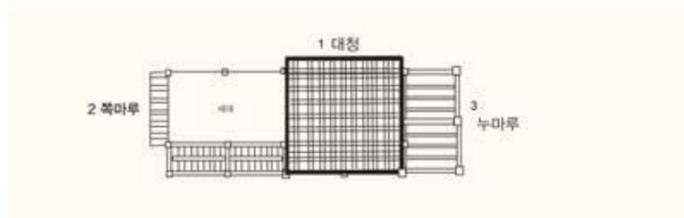


TYPE 1. 학생 + 학생 + 외국인

TYPE 2. 독거노인 + 독거노인

TYPE 3.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TYPE 4. 꽃, 밭, 발가꾸기를 좋아하는 주민들



The Present, The Future



Space Concept Setting



이정미 / 김한별 / 문재형 / 김지영 / 이하영

프롤로그

현재, 우리는 마을 없는 마을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은 많은 세대가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지만 그 속에 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해 전통 마을과 한옥은 공동체를 이루기에 적합한 주거형태이다. 하지만 점점 밀집화되고 있는 현대 주거문화에서 한옥을 현대주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밀도해결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세대를 한 '칸'에 집약하여 여러 세대가 한 '채'의 공동주택을 형성하고 공동의 '마당'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현대적 한옥마을을 제안한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구성은 작게는 단위세대에서부터 마을 전체로 반복, 확장되어 다양한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서 거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더불어 풍부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함께사는 한옥 공동주택 프로젝트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대지면적 | 4,668.3m² 층수 | 3층 이내
 건폐율 | 58.7%(법정기준 60%) 용적률 | 153.2%(법정기준 200%)
 용도별 면적비율 | 주거 53%, 예술 19%, 교육 14%, 주민편의 11%, 기타상업 4%



대지선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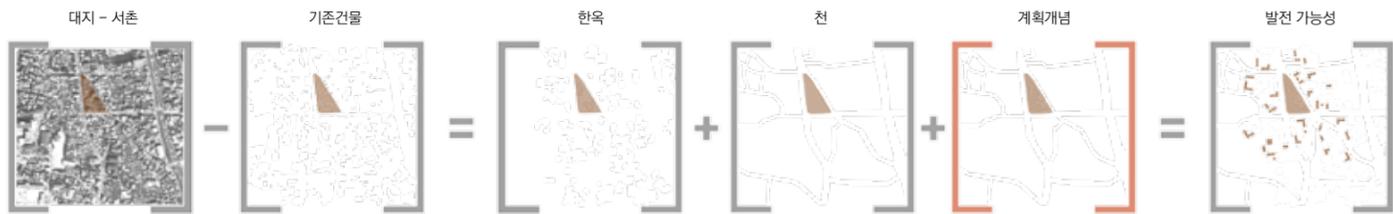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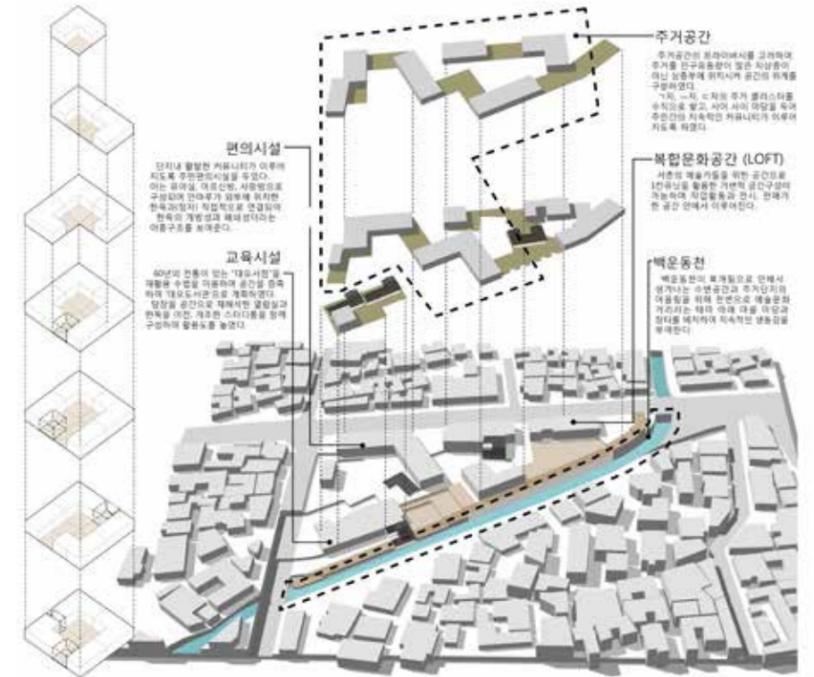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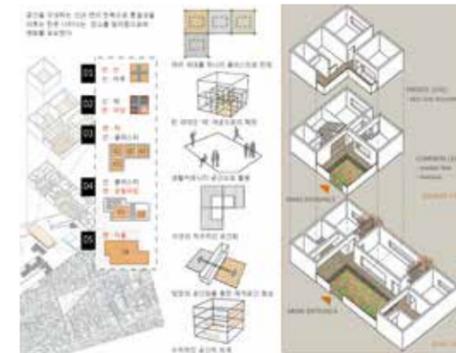
서촌은 대부분이 생활형한옥으로 보존가치가 높지 않으며, 낡은 주거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한옥마을의 보존과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에 대한 요구가 충돌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 기존 서촌의 무질서한 건물을 삭제하여 순수한대지 (한옥, 물길)만 남긴 후, 1칸 1가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더하여, 한옥공동주택의 도시적인 확장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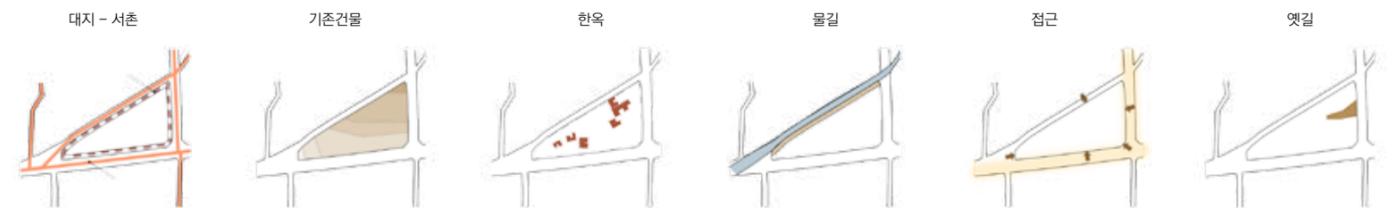
Material + Planning

한옥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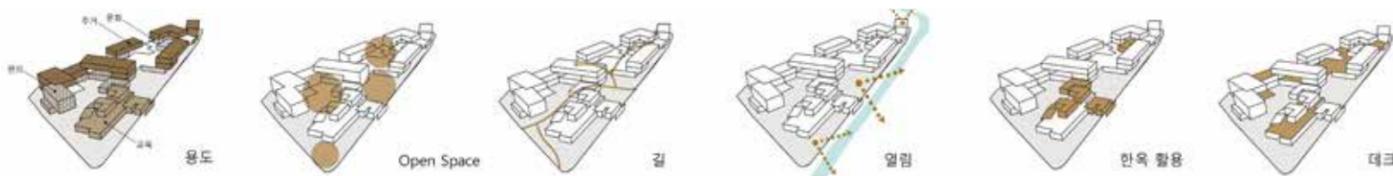
한옥은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 분리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는다. 이는 집합적 건물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서 단일 건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간적 특성이다. 우리는 여기서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교차 반복이라는 규칙성을 기초로 선과 면의 반복으로 주거의 통일성을 이루는 한편 나타나는 장소를 달리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때, 지붕, 칸, 마당, 담, 공간의 위계, 차경 등 한옥 요소의 재해석을 통해 칸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하나의 방, 지붕은 여러 칸을 하나의 채로 한정하며, 채로서 형성된 마당은 생활 작업의 공간, 담은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지음, 공간은 수평적인 위계를, 자연은 배경으로써 한옥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Context Analysis



Site Analysis



Design Process



개념

한옥이 갖는 요소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선과 면의 반복을 통해 통일성을 꾀하는 한편, 이들이 나타나는 공간을 달리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한다.

선과 면의 반복: 먼저 가장 작은 공간 단위의 한 칸은 면적인 요소이며, 각각의 칸들은 선적인 요소인 마루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각각의 채들은 수평, 수직으로 연결됨으로써 선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면적인 요소인 마당을 중심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공용마당을 갖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선과 면의 재해석: 기존에 한 채로서 경계를 한정되었던 지붕은 여러 세대를 하나의 채로 한정하게 되며, 한 채에 포함된 하나의 공간이었던 한 칸은 한 세대인 '채'의 개념으로 확장되게 된다. 마당은 생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며, 자연은 기존의 단순한 배경으로써의 조화로움이 아닌 적극적으로 마을 내에 공간화를 시켰다. 또한 기존의 수평적인 공간적 위계는 수직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저층에는 공적인 성격의 문화, 주민편의시설, 상업시설, 로프트 공간이 위치하게 되며, 중간층에는 주거와 작업공간, 교육공간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상층에 위치하게 될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와 공적인 공간 사이에서 전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Unit Plan

평면

새로운 모듈: 전체적인 공간의 스케일로서 한옥의 모듈을 가져가고자 하였으며, 기존 한옥의 한 칸(3.3 x 3.3)을 바탕으로 현대 주거 공간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모듈을 제안하고자 한다. 칸(3.3m)과 기존 한옥의 칸과 칸을 연결해주는 틈마루의 공간(1.5m)을 해체 후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주거에 적합한 칸의 크기인 8.1m x 8.1m 모듈을 제안한다. (3.3m x 2 + 1.5m = 8.1m)

평면 조합: 평면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크게 3개의 Flat Type과 2개의 Duplex Type으로 나누어진다. Flat Type의 경우 마당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확장되며, Duplex Type의 경우 마당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러한 가변적인 평면은 거주자들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사항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응가능하다.

프로그램 및 배치

주거시설: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주거를 인구유동량이 많은 지상층이 아닌 상층부에 위치시켜 공간의 위계를 구분하였다. ㄱ자, -자, ㄷ자의 주거 클러스터를 수직으로 쌓고, 사이 사이 마당을 두어 주민간의 지속적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민편의시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다양한 세대가 어울어져 활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하였다. 이는 유아실, 어르신방, 사랑방으로 구성되며, 안마루가 외부에 위치한 한옥(정자)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한옥의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이중구조를 보여준다.

교육시설: 60년 전통이 있는 '대오 서점'을 기존한옥의 재활용 수법을 이용하여 '대오 도서관'으로 증축 하였다. 담장을 공간으로 재해석한 열람실과 한옥을 이전, 개조한 스테디룸을 함께 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문화시설: 복합문화공간(Loft)공간은 서촌의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1칸 유닛을 활용한 가변적 공간구성이 가능하며, 작업 활동과 전시, 판매가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연녹지: 백운동천이 복개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변공간과 주거단지의 어울림을 위해 천변으로 '예술 문화 거리'라는 테마 아래 마을 마당과 장터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기존 한옥 활용

재해석 및 보존형: 기존 한옥을 2층으로 이전하고 지상층에는 한옥의 구조를 보강·재현하여 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재활용형: 재활용형의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대오 서점은 공간구성적수법+의장적수법을 바탕으로 서촌의 맥락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사드를 보존하고 과거의 기능을 유지·확장한다. 그 외의 한옥은 구조적수법+의장적수법을 바탕으로 신축 건물인 갤러리 내부 관람 동선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변형과 동시에 재료의 시간성을 느끼도록 한다.



재해석 + 보존형

재활용

재활용

기존 한옥 활용



최인규 / 주모아 / 한가을 / 한지현 / 이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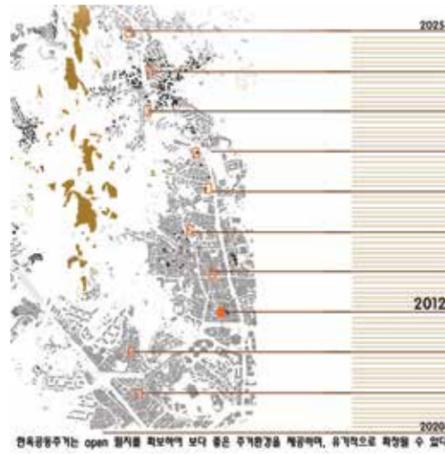
이제는 도시한옥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다. 과거 역사적 상황들로부터 그 흐름이 끊기었던 한옥은 다시금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전통의 산물로만 여겨져 온 한옥이 현대사회에서도 꽤나 친숙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 한옥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한, 변화할 한옥을 대표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도시한옥은 남아있던 전통 한옥의 대대적인 이전과 개량으로 보다 밀도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장소인 북촌한옥마을에서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한옥타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촌에서와 같은 주택의 군집으로서의 도시한옥은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개개 주거 공간 관점에서 도시한옥은 밀도문제로부터 폐쇄적 공간을 지닐 수밖에 없어 외부공간이라는 한옥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여 한옥으로서의 매력도 전통한옥에 비해 떨어진다. 또한 도시적 관점에서도 도시맥락과 단절되어 도시 요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주거형태의 도시한옥은 그러한 주택형 도시한옥이 지나어온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공동주거로 대변되는 빌라, 고층 저밀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한옥 형태의 공동주거란 경제적 차원에서 그 효율이 떨어짐이 분명하나 한옥을 택하지 않는 편이 보다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공동주거라는 형태로 도시한옥의 새로운 타입을 구현함으로써 이뤄지는 한옥의 발전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

도시한옥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옥이 도시요소로서 도시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과거에 한옥마을에서 가져온 공간구조를 일부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건축물과 달리 한옥의 특성상 보다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일부 단지만의 개발이 아닌 infill로서 작은 주거 계획이 주변공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야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영역 속 한옥의 인지 기회를 상승시킴으로 물적 역사가 부재한 현재 도시 상황에서 잊혀져온 문화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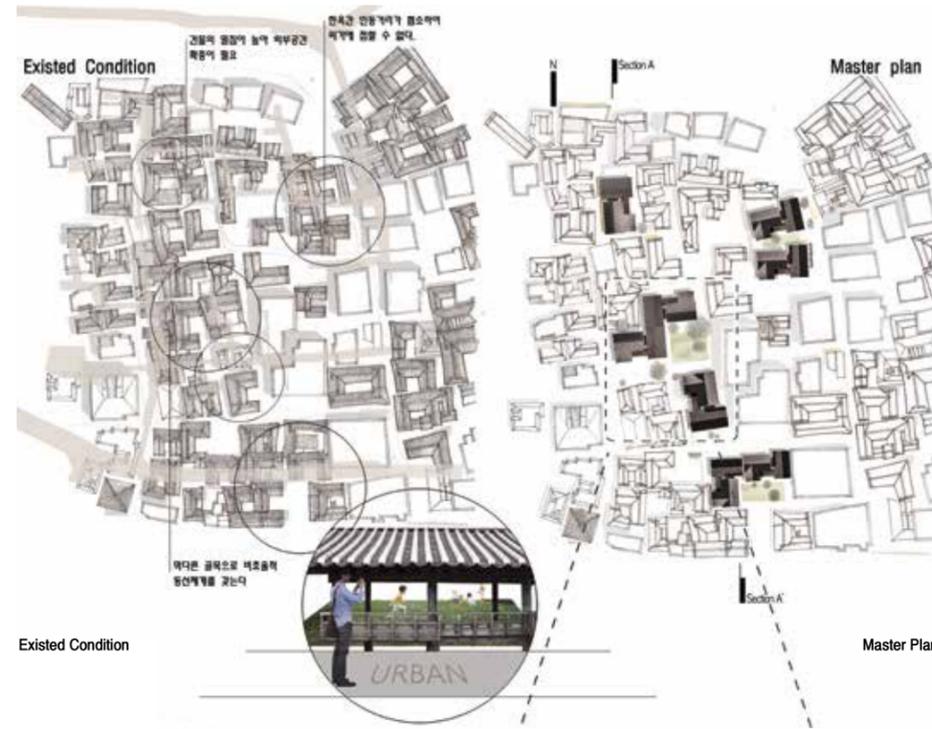
Bird Eye View



전통공동주거는 open 필지를 확보하기 보다 높은 주거밀도를 제공하며, 유격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서촌과 서계동은 밀집된 전통한옥 집거지였다. 용역도시가 밀려와 전통공동주거가 도시구조적 위기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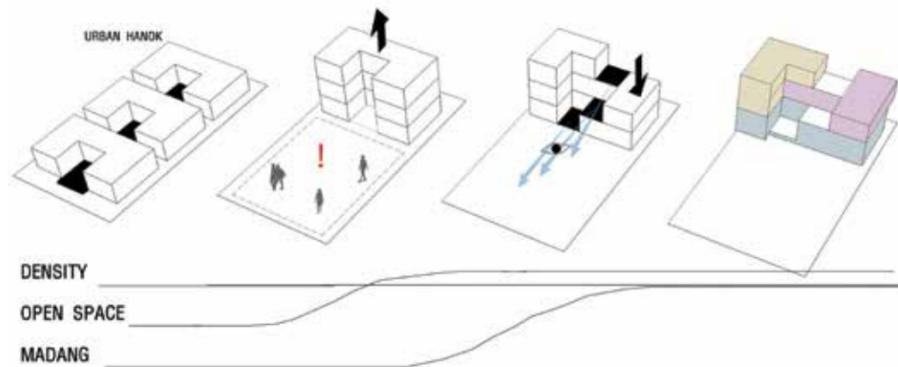


Existed Condition

Master Plan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이트로서 서촌을 선택하였고 기존의 전통한옥마을과 현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요소로서의 한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촌은 과거의 공간구조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이곳에 한옥이 존재하지만, 북촌과 같이 정돈되지는 않아 미완성의 매력이 있는 장소이다. 또한 한옥의 발전적 측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촌을 택하였다. 서촌은 한옥 자체와 마찬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적합한 장소이다.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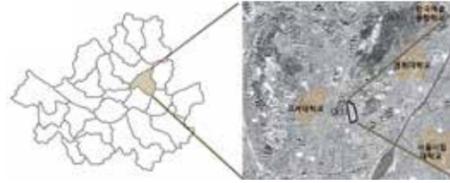
동상 한옥, 도시속에 있다

홍성범 / 이다은 / 이옥정

청량리동 부흥주택군의 한옥 공동화 계획안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부흥주택 단지는 좁은 필지에 많은 주호가 존재하고 각 주호는 평균 23.04m²의 가로 및 세로 4.8m의 정방형 대지를 사용하는 연벽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인근 블록간의 간격이 협소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다. 왜 이런 장소를 한옥 공동주택의 대상지로 선정할 것일까?

부흥주택은 50년대 주택부족 해결이라는 시대상을 담은 공공주택단지로서 전통 한옥에서 근대 도시한옥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대표적인 공공주택 단지라는 공동주택의 초기형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건축개요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1518.68m² 건축면적 | 1066.22m²
 연면적 | 1472.40m² 건폐율 | 55%
 용적율 | 9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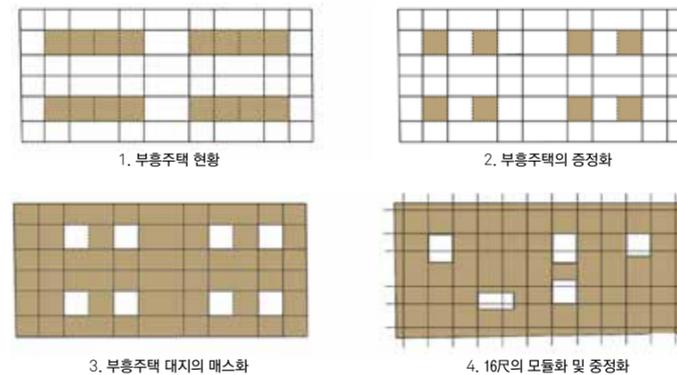


동상 한옥, 도시속에 있다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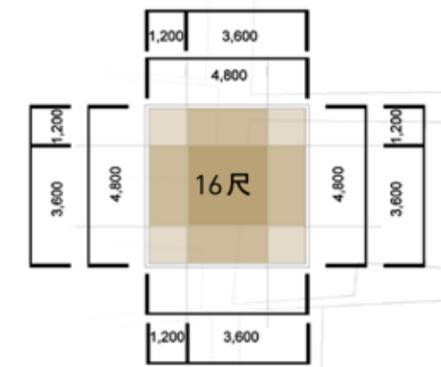
왜 4.8m를 모듈로 잡았는가?

최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들이 대규모 공동개발의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삶과 의미가 담긴 생활공간의 흔적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거주자는 새로운 집과 터전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 속의 생활공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서 동네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4.8m의 공간은 부흥주택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 되고, 기억 속의 생활공간의 흔적으로 작용되어 집에 관한 특별한 의미나 귀속되고 싶어하는 지속적인 본능을 일깨워주게 되고,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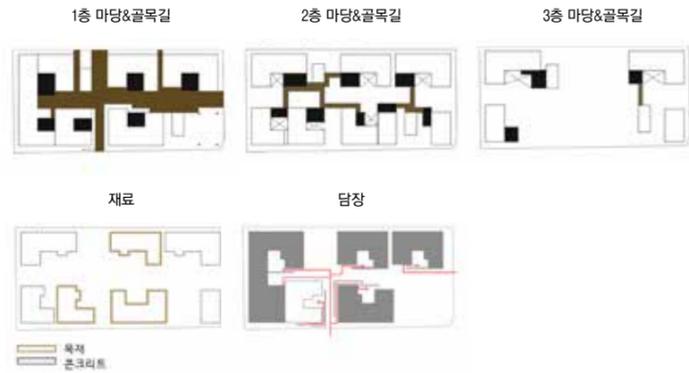


한옥의 모듈화



어떤식으로 계획하였는가?

기존의 부흥주택의 현황에서 각 주호들을 중정화하고 대지 전체를 매스화한다. 그 후 4.8m 모듈의 중정을 이용하여 대지 현황에 맞게 마당공간과 보이드 공간을 배치하면서 큰 틀에서의 계획을 하였다. (동쪽으로 4m도로가 있어 건축선이 2m 안쪽으로 셋백된다) 그 후, 채광 및 세대수를 고려해 건물의 높이관계를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였다. 현대적 재료인 콘크리트와 전통재료인 목재를 조화시켜 도심 내에서도 어울릴 수 있게 계획하였으며, 더불어 목조의 재료적 한계에 RC조를 더하여 입면의 자유로움을 꾀하였다.



평면도(1/200)



공간구성으로 각 주호마다 낮은 담벽을 주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각 주호의 마당을 주어 다양한 활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옥의 전통배치인 'ㄱ'자, 'ㅡ'자 형태를 이용하였으며, 북쪽의 주호의 경우 브릿지를 통하여 진입을 유도하였으며, 남쪽의 세대는 2층에서 다락방 혹은 복층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기동 모듈을 돌출시켜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3층으로 이뤄진 건물들 중심에 2층 한옥이 들어감으로써, 한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통과 현대의 역사적 시간흐름을 나타내주고자 하였다.

평면 및 입면구성을 보면 거실을 중심으로 방, 부엌, 화장실이 배치하였고, 이러한 이유로는 전통한옥의 대청을 중심으로 한 실배치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4.8m 모듈을 기준으로 실 (3.6m)+릿간(1.2m)을 기본모듈로 잡고 각 주호마다 릿간을 계획해주었으며, 건물 배치 및 동선 계획을 통해 Void공간에 위요감을 부여하였다.

단면도(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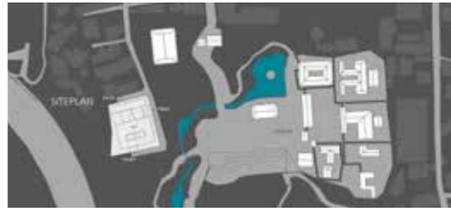
입면도(1/150)



김대천

Diaphor | 병치은유

근대 이후 추상적인 형태에 집중하게 된 심플한 도시는 '의장으로 의미생성하기'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집적된 시간과 집단지역에 의한 전통건축은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 격리된 상태로 존재하거나 집단적으로 조성되기에 그친 것이다.



Context | 확산 · 마을형성하기 · 정취

한옥의 정취 + 자연의 정취 = 건물의 정취 + 도시의 정취

남산한옥마을과 가장 인접한 장소중 가장 깊숙한 예정동 1-15번지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제안하는 'Diaphor | 병치은유' 는 도로를 따라 확장·연장되어 한옥의 채와 마당이 연속하는 것처럼 매스와 볼륨의 수직선, 마루와 지붕 수평면의 리듬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한옥의 기와가 자아내는 풍경과 같이 새로운 맥락을 생성할수 있다.

Context | 중구 필동-예정동 VS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문화공원과 인접한 주거지 | 괴리
청학동 - 일본 공사관 - 수도방위사령부 - 남산골 한옥마을 VS 주변 주거지

남산골 한옥마을은 민속자료로서, 과거 한민족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보존물이다. 인근 필동 주거지가 가지는 양육, 현대식 건물의 외관과의 맥락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의 역사만큼의 괴리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과거 한양 5경으로 불리던 청학동, 이전 복원된 남산골 한옥마을을 Diaphor (병치은유)하여 문화유산과 남산 골짜기사이에서 방치된 예정동 1-15번지 일대를 한옥으로 다시 채워나가보려고 한다.



계획개요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예정동 1-15번지 일원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5F, 20M)
대지면적 | 1518.77 m²
용도 | 공동주택_연립주택, HOUSE SHARE
도로현황 | 4M 도로 접함_3면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 868.57 m² 건폐율 | 57.19 %
연면적 | 1852.72 지상층연면적 | 1,531.67
용적율 | 100.85 % 주차대수 | 11대

Program | Community_House Share

한옥의 정취 + 자연의 정취 = 건물의 정취 + 도시의 정취

1인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혈연관계의 계약관계의 타인이 건물에 사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다. 공동주택에 모여사는 사람들은 함께 살기위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을 나눠 쓰기 위해 한지붕아래 산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강조한다 방을 걸어잠근다. 한옥의 방은 걸어잠가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한옥의 커뮤니티는 절대적으로 나눔의 방식을 고수한다. 한옥에게는 나눔이 필요하다 이에 바닥면적을 나눠갖는게 아니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 'House Share'의 방식으로 한옥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한다.

Diaphor는 특별히 방을 매개로 함께 살기로 하기보단 한지붕아래 공존하기 위해 함께 살기위한 사람들이 산다. 이러한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보다 하숙, 홈스테이 등과 비슷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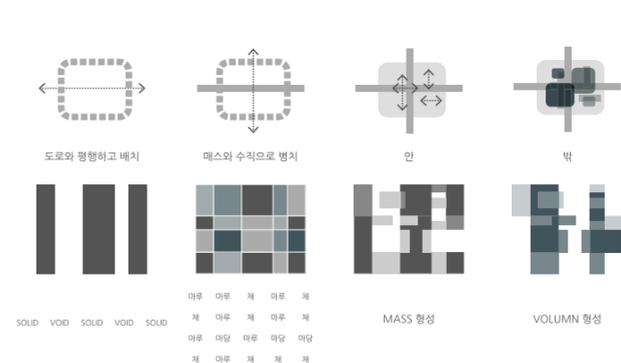
공동주택 = 모여살기
혈연관계 | Blood Relationship 계약관계 | Contractual Relationship



Process | Juxta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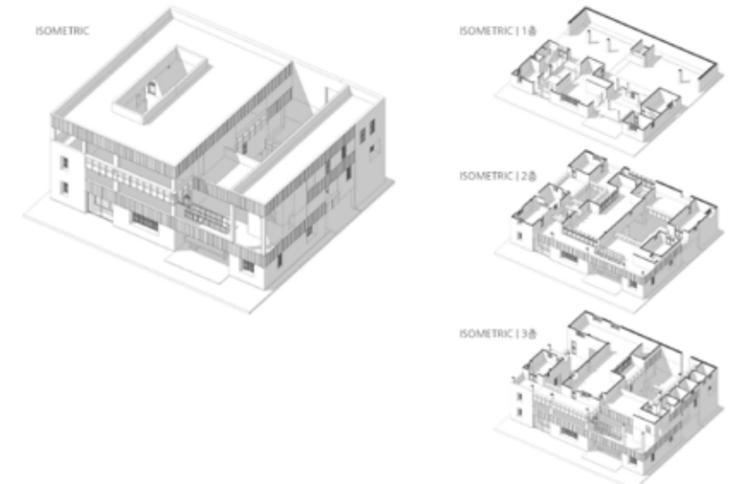
평면적 배치 · 채우기 - 비우기

병치 = 반복 + 연쇄 + 중첩
솔리드와 보이드는 반복 연속 중첩을 거쳐 병치된다



복은 다수의 Solid와 Void를 생성한다.
연쇄는 반복을 다중적으로 생성한다.
연쇄는 다양한 Solid와 Void를 생성한다.

중첩은 반복 연쇄된 Solid와 Void를 서로 관계하게 하면서
내밀한 외부공간 개방된 내부공간을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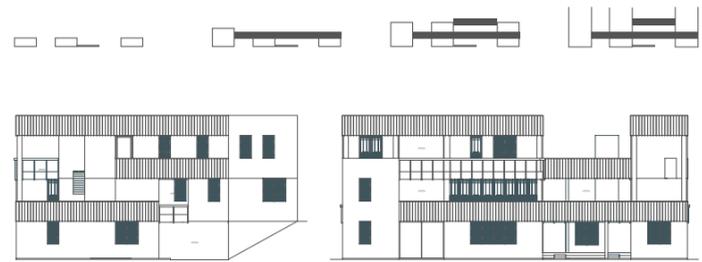


Process | Juxtaposition

수직적 배치 · 입체화 (적층 - 정취)

1인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혈연관계의 계약관계의 타인이 건물에 사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다. 공동주택에 모여사는 사람들은 함께 살기위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을 나눠쓰기 위해 한지붕아래 산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강조한다 방을 걸어잡는다. 한옥의 방은 걸어잡가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한옥의 커뮤니티는 절대적으로 나눔의 방식을 고수한다. 한옥에게는 나눔이 필요하다 이에 바닥면적을 나눠갖는게 아니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 'House Share'의 방식으로 한옥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한다.

Diaphor는 특별히 방을 매개로 함께 살기로 하기보단 한지붕 아래 공존하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한 사람들이 산다. 이러한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보다 하숙, 홈스테이 등과 비슷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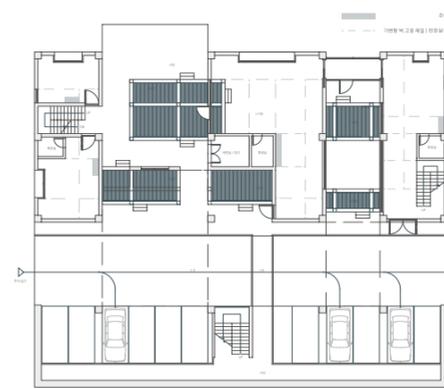


Plan | 우측면도(1/200)

Plan | 정면도(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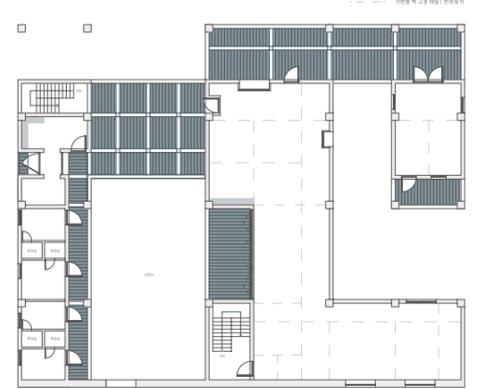
Plan | 정면도(1/200)



Plan | 1층 평면도(1/200)



Plan | 2층 평면도(1/200)



Plan | 3층 평면도(1/200)



Method | Metaphor

01. System - Arrangement
동양건축에서의 한옥이 갖는 특수성은 내밀한 외부공간이다.
계리는 외벽에 닫힌 영역을 확장시킨다. 마당은 단장으로 둘러싸이고 대우를 통해 방과의 계로를 갖는다. 위 아래 라우로 둘러싸인 외부공간을 배치하여 한옥을 문명화한다.

02. Element
- 재배치

03. Behavior
- Opening
한옥의 활동적인 요소인 개구부를 활용한다.

- Wall
실구성에 방음과 같은 가변형 벽을 적용한다.

Color & Material
zinc white Cop's Wood 강보



지붕 안(安) 한옥: Wake_d up! Hanok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거주민들이 모여 들었다, 주거의 수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주거가 고층화 되었고, 고층화 되면 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살기’식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살기의 논리는 각 주거간의 유대감을 저하시켰다. 반면, 한옥은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모든 칸들이 긴밀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필수 조건인 주거의 고층화 속에 한옥의 마당을 활용한 장점으로 유대감 깊고 보다 확장적인 공동주거를 제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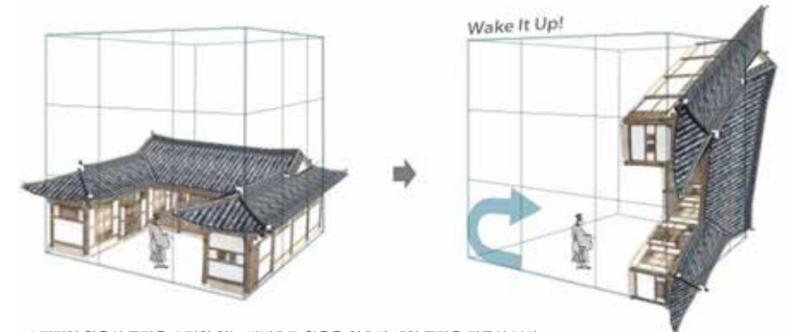
Site + Plan

사이트는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정독도서관 뒤편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종로의 고층화된 빌딩이 있고, 북쪽으로는 한옥 밀집 지역이 존재하여 도시와 전통의 경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북촌 지역이 모두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던 1960년대와 달리,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들어선 다세대가구 주택 때문에 많은 수의 한옥이 사라졌지만, 일부지역은 양호한 한옥들이 군집을 이룬 채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한옥의 비경제적이라는 단점으로 인해 이 지역에도 한옥이 철거되고, 다세대가구 주택이 만들어 지기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다가구 주택은 북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옥 하면 떠오르는 지붕의 형태와 기와를 통해 만들어진 ‘지붕 안(安)한옥’을 제시하여, 사이트가 가지는 특징을 살려 주변의 한옥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사이트에 존재하는 경사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필로티공간을 계획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구조적 기반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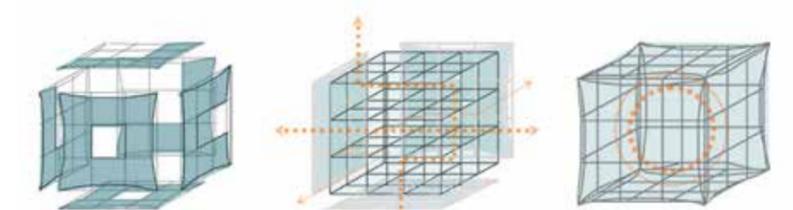


Concept

한옥은 칸이 모여 채를 이룬다. 채의 배치 모습은 주로 지붕의 배치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도심형 한옥의 타입을 분류할 때 주로 지붕의 배치 모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도심형 한옥의 배치는 주로 중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와 입구의 방향에 많이 좌우된다. 즉, 지붕이 한옥의 공간적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옥의 가장 큰 약점은 주로 단층의, 수평화 된 공간 계획이다. 현대의 요구에 맞는 공동주거는 수직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다. 한옥의 공간구성의 방식을 지붕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공간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얽혀 있던 지붕을 세우고 지붕이 담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수평적 지붕과 담(수직적 지붕)에 의해 하나의 공간이 생긴다. 수직적으로 지붕이 세워짐에 따라 수평적으로 놓아져 있던 채들이 수직적으로 놓이고, 마당 또한 수평적, 수직적으로 다양하게 배치된다. 내부의 구조를 목구조로 두고, 벽으로 구성된 방의 개념이 아니라 칸의 개념을 강조하여 공동주거이지만 하나의 공간과 같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각 칸들은 모두 마당과 면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내부 공간, 그 자체 또한 기존의 칸(공동주거에서의 방)보다 넓어진다. 기존 칸(방)은 수평적으로 시각의 틀로 형성되어 있거나 한옥에서는 지붕의 높이에 의해 수직적으로 공간의 확장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붕을 세우고 지붕의 구조적, 형태적 모습을 차용하면서 더 깊은 공간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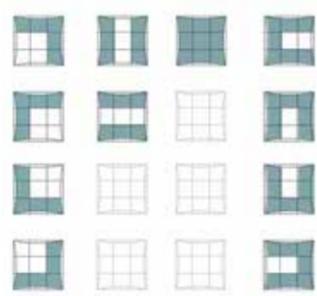
수평적인 한옥의 공간을 수직화 하는 방법으로 한옥을 일으켜 세워 공간을 만들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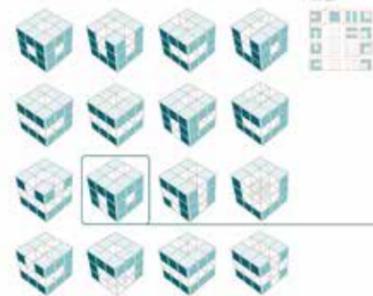
입체적 한옥 엮기

중정(마당)의 입체적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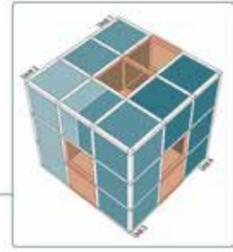
내부 공간의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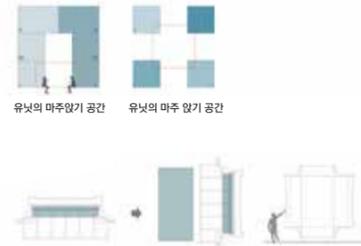
Step 1. Design Principle
대표적 지붕 타입 [ㄱ, ㅡ, ㅁ,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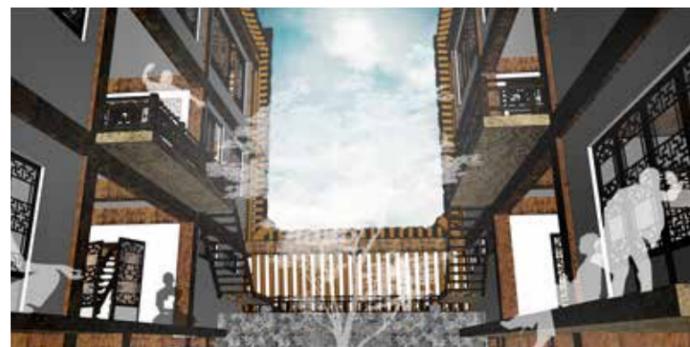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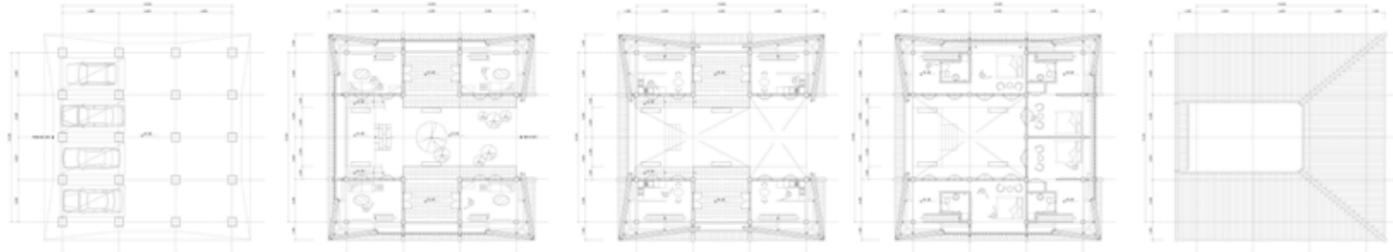
Step 2. Composition
지붕타입의 조합을 통한 열린 마당의 입체적 구성



Step 3. Unit Plan + Section
지붕의 입면화 방식을 통한 내부 공간 구성



한옥 내부의 좁은 칸은 지붕의 높은 층고를 통해 공간을 넓혀 주었다.
한옥을 일으키면서 지붕 공간 또한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붕은 기존 한옥이 가지던 담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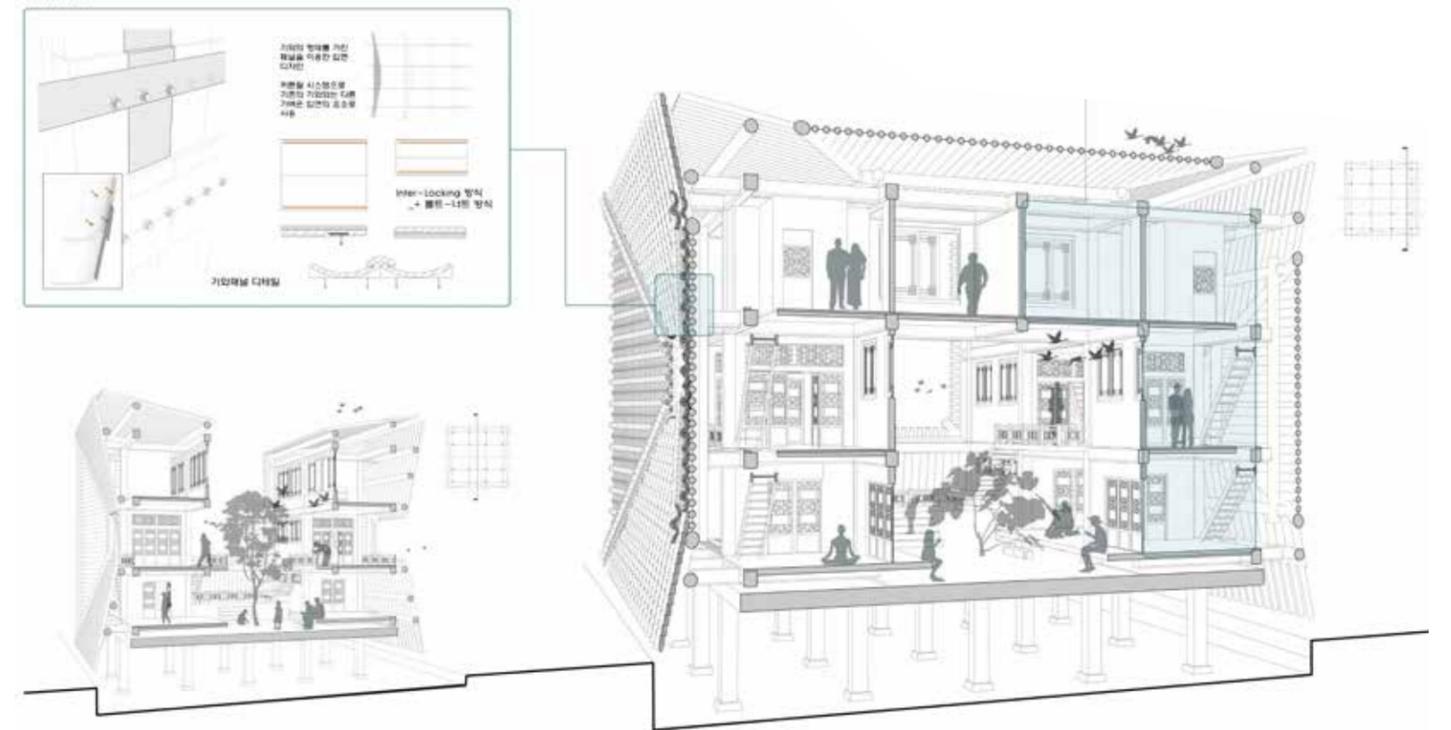
Unit Plan

4개의 Unit이 모여 하나의 공동주거를 형성 한다. 현대의 공동주거의 모습도 점차 옆집, 뒷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서로의 삶에 바빠 살아간다. 이와는 달리 한옥의 공간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긴밀히 유지시켜준다. 그 핵심 공간이 마당이며 마루인 것이다. 각 4개의 유닛이 수직화 된 동선으로 1층의 거실, 2층의 부엌, 3층의 침실로 구분이 되어 각 층별로 노출정도에 따라 배치를 시키고 동선은 내부 사유계단을 통해 수직적으로 연결된다. 배치된 두개의 대청을 공유해 첫 번째 공간을 공유하고 4개의 유닛 가운데 위치시킨 마당을 통해 하나의 공동주거를 이룬다. 각 유닛은 각 칸의 모든 면이 마당으로 향해 개방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입면의 지붕구조로 인해 실내 내에서도 시각의 칸보다 더 넓은 공간을 느낄 수 있다. 좁은 평면을

수직화 하여 마당에 접하는 접촉면적을 최대화 하였고, 무너질 수 있는 Privacy 또한 수직화 된 공간으로 지켜주었다. 1층은 직접적인 중심마당과 대청에 접하여 거실공간과 손님맞이 공간을 두고, 2층은 부엌공간으로 두어 침실과 거실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하도록 두었다. 3층은 Unit의 입구와 동선을 멀리 뒀으로써 Privacy를 지키는 한편 중정 마당으로의 창을 통해 공동체 공간 또한 느낄 수 있다. Unit내 프로그램이 층별로 구분되어 공간이 분리 되어 보일 수 있으나 입면의 지붕구조를 그대로 끌어 들이고 칸과 지붕입면사이의 구조적으로 생긴 확장공간을 통해 하나의 유닛이 하나의 공간임을 각인 시켜준다. 한옥의 지붕을 기준으로 공동주거를 위한 수직화 공간을 디자인하고, 한옥 내 중정마당을 중심으로 주거민을 위한 한옥의 유대감 깊은 공간을 반영한다.



Skin Detail



고규성

계획조건

1. 도심 속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한옥 공동주택 다가구
2. 기존 주거지역이 향후 재개발이 필요한 노화된 지역
3. 한옥 보급이 원활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춘 지역
4. 한옥단지 형성에 자연적 여건을 갖춘 주변 현황
5. 연차적 개발이 가능한 주변 대지 조건



대지현황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5길 (방이동) 18-11 외 6필지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건축물 현황 | 연립주택(4층) 일립지역
 도로조건 | 3면 8m 통과도로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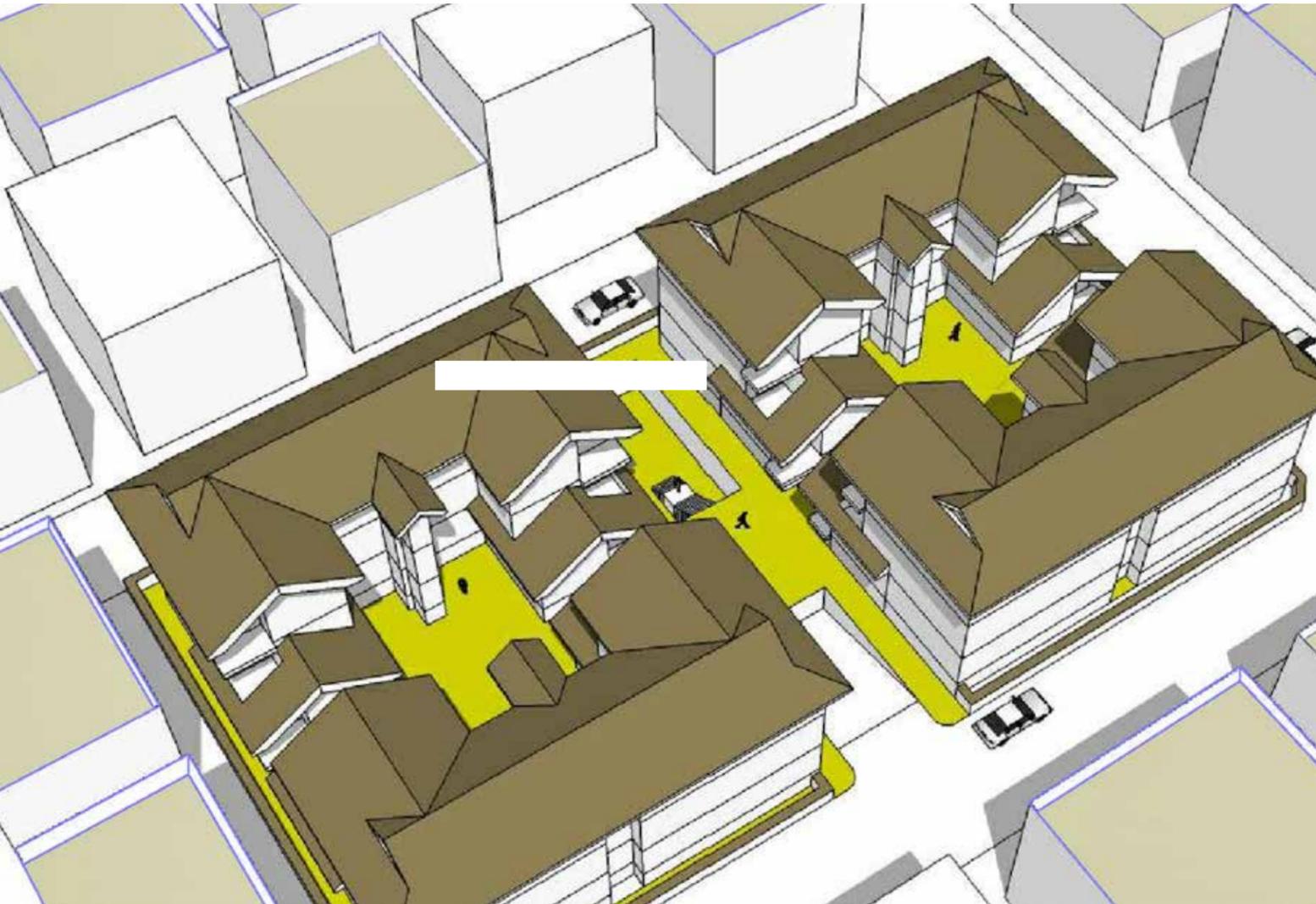
계획요지

1. 긴박한 사회적 여건과 일제 침략기를 이유로 발전을 뒤로 하였던 우리 전통한옥(주택)의 모습... 이런 그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 같다.
2. 이번 계획에서 전통한옥의 진정한 모습과 잊고 살았던 우리 한옥의 정신을 이야기 하고 향후 주택의 모습을 제안 하고자 한다.
3. 전통한옥의 전통 목구조와 서양식 목구조(Timber frame)를 접목 단열 및 차음 과 안전성을 해결하고, 또한 아파트의 장점인 설비공간의 공유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유지를 수용하여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 하고자 한다.
4.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주차장/공용 및 복리시설)하여 마당 공간의 개념 유지 및 활용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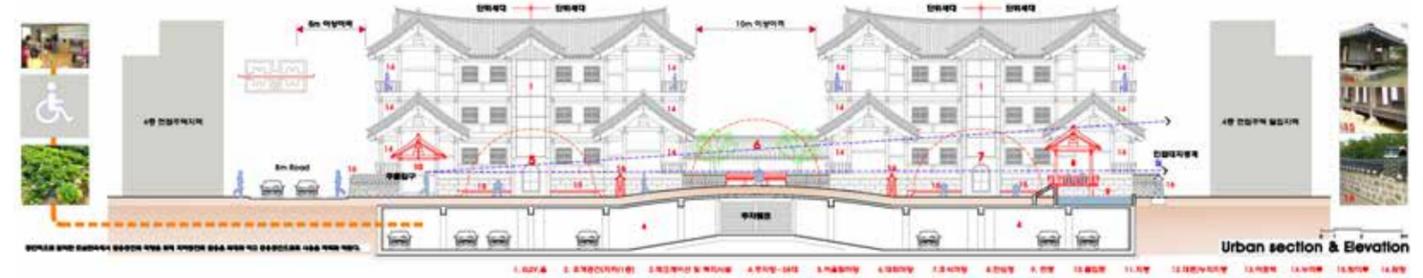
계획개요

대지면적 | 2,275.0m² 건축면적 | 880.0m²
 건폐율 | 38.68% 용적율 산정 연면적 | 2,640.0m²
 용적율 | 116.04% 연면적 | 4,460.0m²
 건축물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높이 | 14~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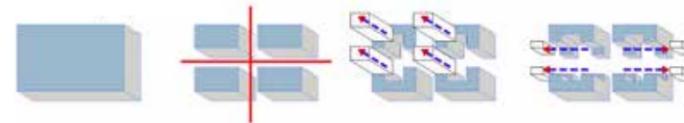
계획개념

현재의 우리의 주택은 사회적 여건과 거주자의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아파트의 혁명을 일으켰고 아파트는 모두의 주택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아파트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여러 형태의 주택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전통 한옥이 다시금 자리 할 수 있는 때 이며 그 대상은 서민들의 주거인 다가구주택을 시작점으로 하고자한다. 그 이유는 모든 조건에서 한옥주택이 자리 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조건을 갖춘 도심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개발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전통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일이며 공동체역이 바로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 생각하며 공동체역의 시작에 서민의 집단지역에서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그 공동체역의 시작을 전통한옥의 "마당"에서 부터 풀어 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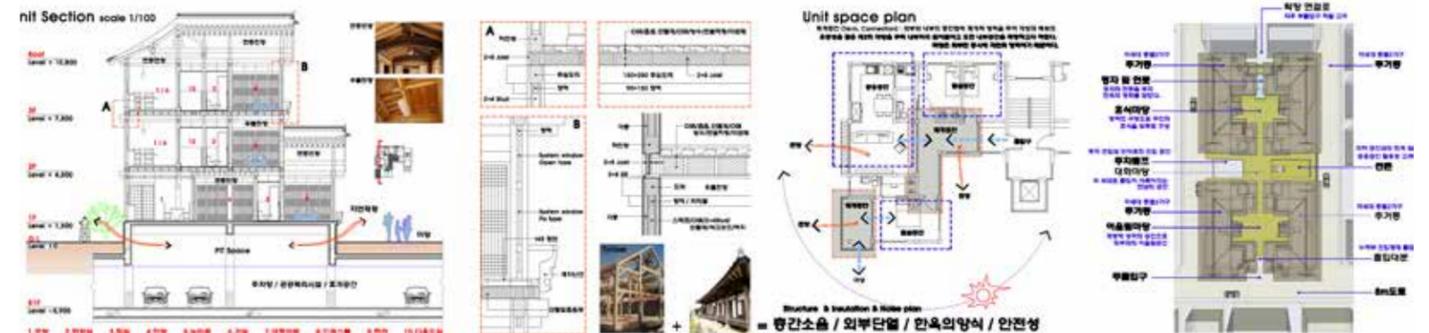
도심 한옥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 제시

1. 전통양식을 갖춘 것 - 입면 및 천장 조건
2. 현재의 평면 형태를 유지하며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공간을 추가할 것.
-대청마루 / 누마루
3. 전통한옥의 꽃인 누마루를 설치하여 시각 주체가 거주자임을 느낄 수 있게 할 것.
4. 담장이 폐쇄의 수단인 아니고 영역의 할애임을 인지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것.
5.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마당의 개념을 활용 할 것.
6. 건축 기준인 차음과 단열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
7. 진입에서 부터 전통한옥으로의 인식을 갖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누 하부 진입).



결론

마을은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마을 사람 모두의 생활 이야기이며 마을안에 자리하고 있는 골목길은 서로를 연결해 주는 핏줄과 같고 이 골목길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는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공동체역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네 마을 이야기를 작은 단지 안에 부여하여 하나의 단지가 마을임을 인식하고 마을 안에서 전통한옥이 간직한 정신적 필요함을 통해 공동체적 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3곳의 마당은 마을 속 골목길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공용공간의 이야기를 공급하고 그 풍요로움이 이웃 마을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형적 측면에서 우리의 한옥은 조금은 폐쇄적인 인상을 받게 되지만 내부에 진입 외부로 향하는 사용자적 입장에서의 공간 인식은 개방과 폐쇄의 병용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사적 공간과 공동체적 공간 즉 자연과의 개방과 폐쇄의 병용(대청마루, 누마루, 마당)은 한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가 깃든 부분이며 이러한 공간의 활용이 거주자 하하극 한옥임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도심에서의 자연적 요소는 바로 이웃이며 이웃 하는 건물 채 들음을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 우리 한옥은 마음의 여유와 공간의 필요함이 함께 공존할 때 그 의미를 다할 수 있으며 그 요소를 도심 속 가장 서민적인 공간 속 에 부여 할 수 있는 계기가 한옥 다가구주택으로 부터였음 기대해 본다.



채다인 / 김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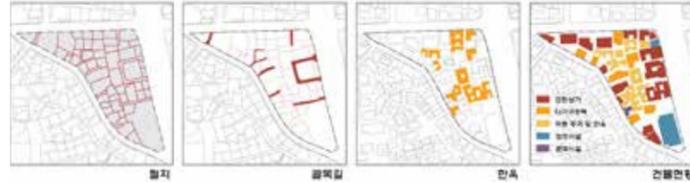
경복궁 옆 '서촌'은 다양한 시간이 쌓여있는 동네이다. 물리적으로도 시대가 다른 건물들이 한 곳에서 만나 이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곳에는 아직까지 근대형 한옥들이 점처럼 곳곳에 존재한다. 이런 한옥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한옥(주거유형)은 시간을 지우고 새로 쓰기보다는 다양한 시간들과 함께 어울리는 주거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Site us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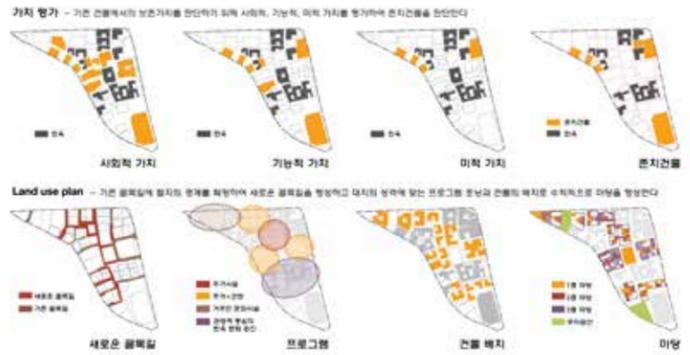
사이트를 선정하 뒤 현존 건물의 기능, 미적, 사회적 보존가치를 판단하여 존치건물을 선정하 뒤 기존 골목길에 필지의 경계를 확장하여 새로운 골목길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도로와 접하고 성격이 다른 대지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조닝을 하여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건물배치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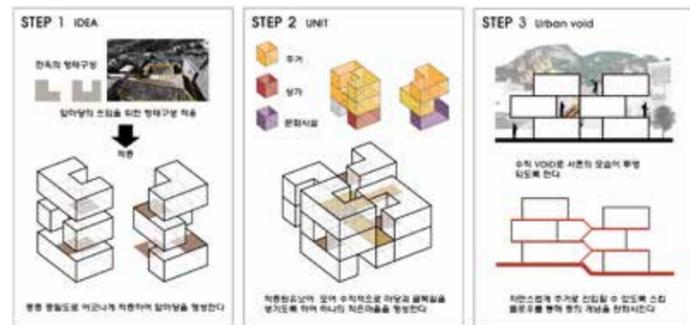
Site Analysis



Site Use Plan



Strategy



Idea

1. 서촌의 필지들은 건물이 지어진 뒤 필지선이 구획되었기 때문에 필지의 형태가 제각각이며 작은 필지들이 많다. 또한 법적으로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데드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서촌의 경관을 해칠 뿐만 좁은 건물을 더 좁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구획된 필지로 인한 데드스페이스를 확장하여 골목길과 마당으로 만들고 맞벽건축을 하여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 시킨다.
2. 한옥들과 낮은 밀도의 건물들은 현대의 수요에 맞게 중층 중밀도로 밀도를 높인다.
3. 한옥의 인지성을 위하여 가려진 한옥을 건물의 수직적 보이드를 줌으로써 인지성을 높여준다.

Strategy

기본적인 유닛의 형태는 한옥의 형태에서 착안하였다. 이유는 한옥의 형태의 중요성보다도 그 형태에서 주는 마당의 쓰임을 활용하기 위하여 L, C 자 형태를 중층중밀도인 2, 3층으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수직적으로 마당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렇게 적용된 유닛들은 공동주택으로서 4동이 모여 각각의 프라이버시를 가진 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용된 유닛을 어긋나게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직적으로 골목길과 마당이 형성되어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 장소가 형성되어 하나의 작은 마을이 된다. 수직적보이드는 골목길과 마당 뿐 아니라 한옥과 인왕산의 모습 등이 투영되면서 막혀진 시야를 뚫어주어 서촌의 모습이 투영되도록 한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대신 자연스럽게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스킵플로우를 통해 층의 개념을 완화 시킨다. 이는 레벨도 낮추어 지고 골목길과 마당에서 한옥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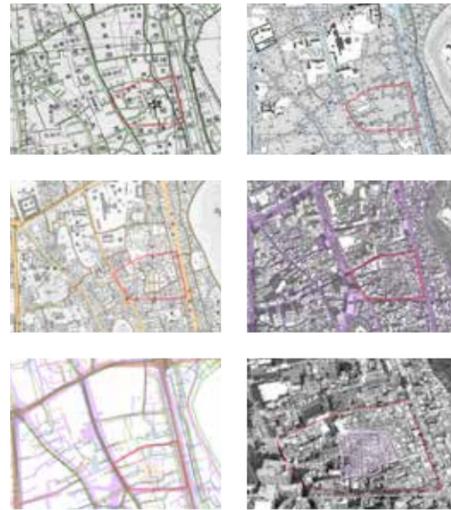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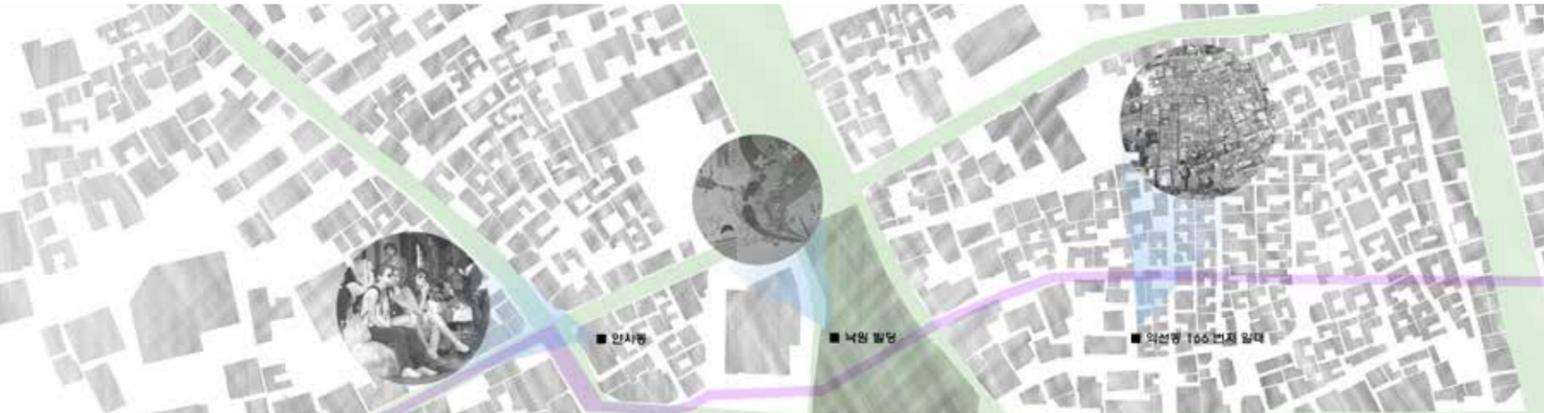
익선동 166번지 일대. 일명 도시형 한옥 밀집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주변의 근대화 또는 현대화의 흐름에 동요 없이 지역의 골격과 공간의 사용목적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곳을 관찰하면 지역의 고립화와 한옥의 노후화, 기능을 상실한 마당과 공간들이 소소하게 변질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남북으로만 연결된 골목길은 주변지역과의 소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인사동부터 시작하여 익선동(계획 대상지), 돈화문로 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축을 생성하여 기존의 폐쇄된 대지의 특성을 보완하고, 주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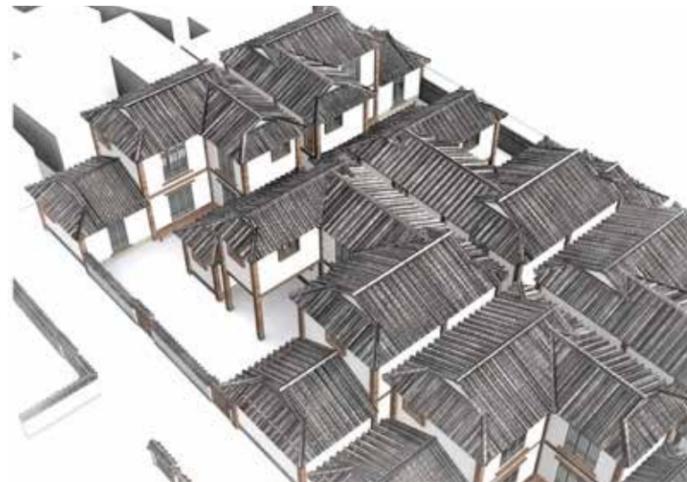
가로와 구획의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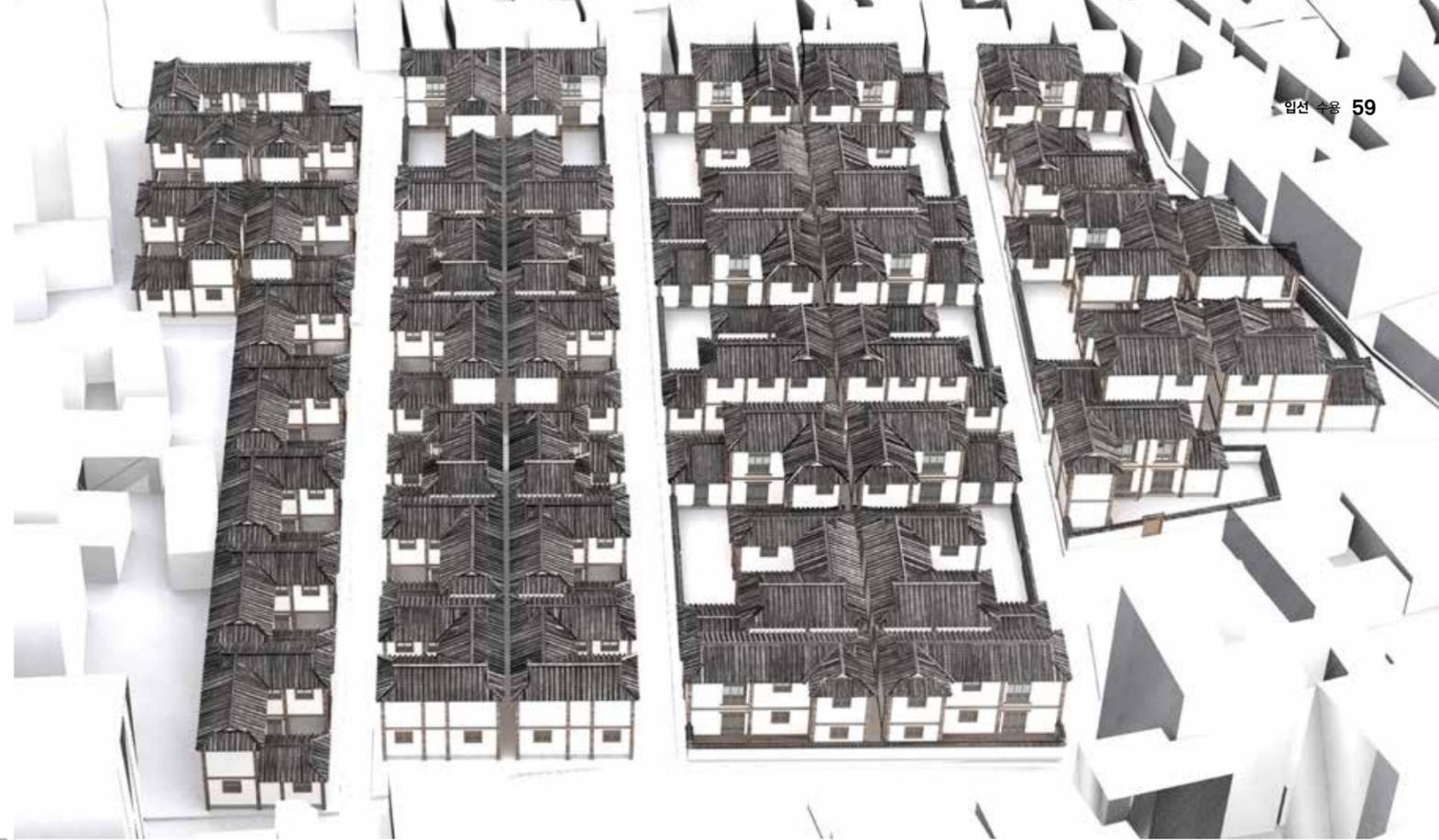
필지의 분화과정



확대 조감도(공동마당부분)



확대 조감도(개별마당부분)



마당의 물리적 공유와 시각적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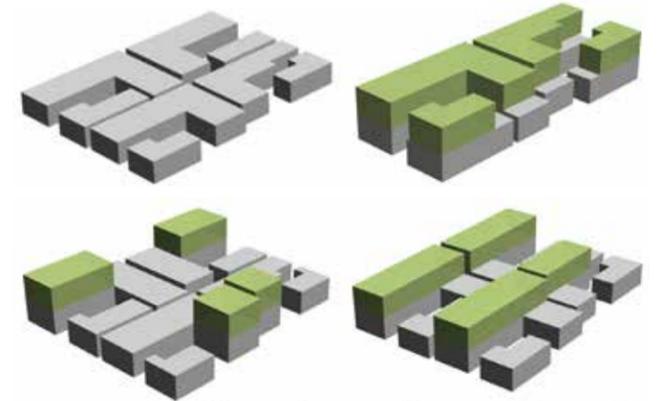
지역의 특성상 각필지가 가지고 있는 마당의 규모가 협소하며 한옥의 각 채별 사잇일의 존중과 채와 채 사이의 마찰이 대립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요소들 또한 일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마찰과 공유 모두를 수용하여 배치 계획에 반영 하였다.

현재의 익선동 일대는 거주주들에 의해 불규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몇 가지 예로 공간의 변형과, 마당의 기능상실, 한옥의 노후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옥의 친환경적인 요소와 마루와 마당을 중심으로 한 유희적인 공간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존의 배치 형태와 골목길에서의 진입 방식을 유지하며, 부족한 공간은 1층에서 2층으로 밀도를 조절하며, 획일적인 형태의 생산이 아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옥의 유형 또한 여러 가지 형태와 실들로 구성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의해 한옥의 형태와 공간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특성과 마당과 마루, 마루와 각 실과의 유희적인 관계성은 장소적인 특성과 함께 변함 없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밀도 조절에 의한 공간의 변화들



배치도(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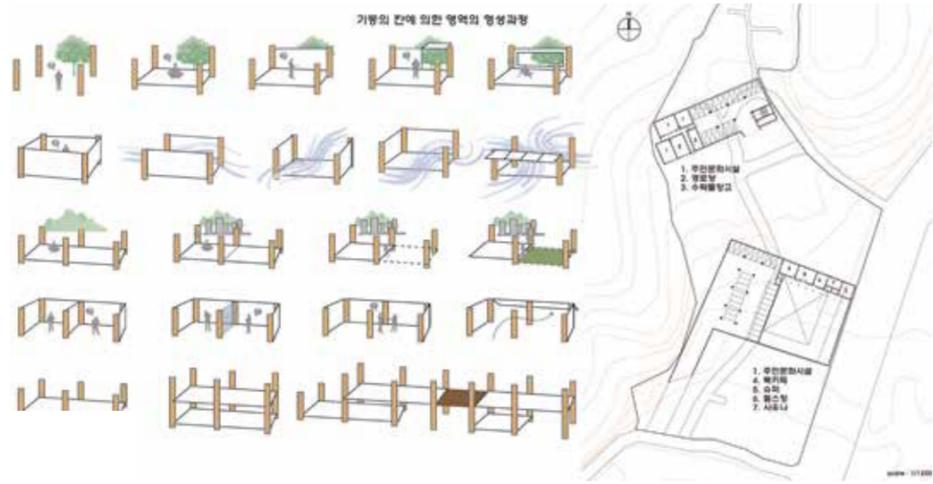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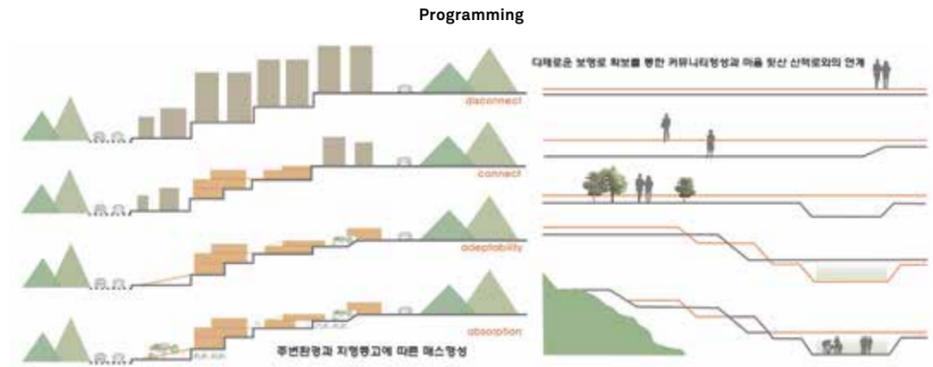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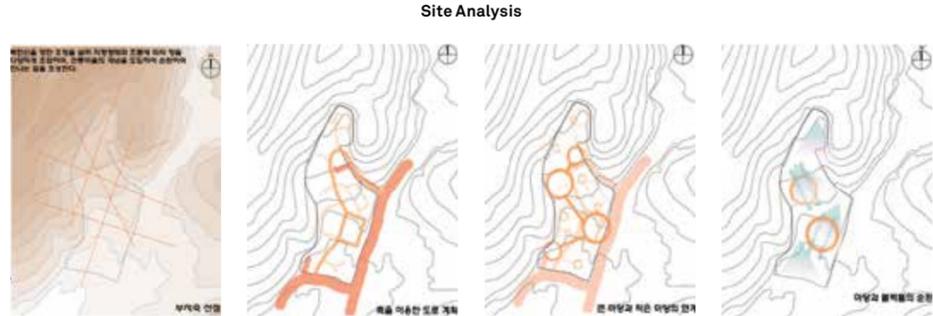


Concept

도시인들은 귀농을 꿈꾼다. 그들이 꿈꾸는 귀농은 단순히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을 하며 산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농촌의 여유로움과 편안함, 시야적인 개방감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귀촌'이 아닐까한다. 우리가 계획한 한옥 공동주택은 이들의 욕구를 한옥의 성질을 담아 충족시켜줄 공동주택단지이다.

선정부지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 공동주택부지 (한옥단독주택부지 근처) 도시인들이 도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귀촌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부지는 서울 도심 외곽이나 근교 신도시가 적당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북한산에 둘러싸여 도심으로 스며드는 은평구 뉴타운 부지는 이를 담아내기에 충분하다.



진입계획

긴 대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차량과 거주자의 진입로는 두 개로 나누어진다. 단지 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단지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어진다. 단지 안에서 차량의 이동은 없고, 거주자인 사람동선만 가능하게끔 계획된다. 거주자들은 각 블록 내의 마당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차량으로 들어온 거주자들도 지하주차장이 단지 내의 큰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당을 통해 집에 들어간다.'라는 한국 전통 마을의 특성을 단지 내에 살린다.



단지계획

남향을 깊게 받는 긴 대지로 지형형태와 흐름에 따라 향을 다양하게 조합한다. 또한 전통마을 개념을 도입하여 작고 큰 마당을 통해 순환하며 만나는 길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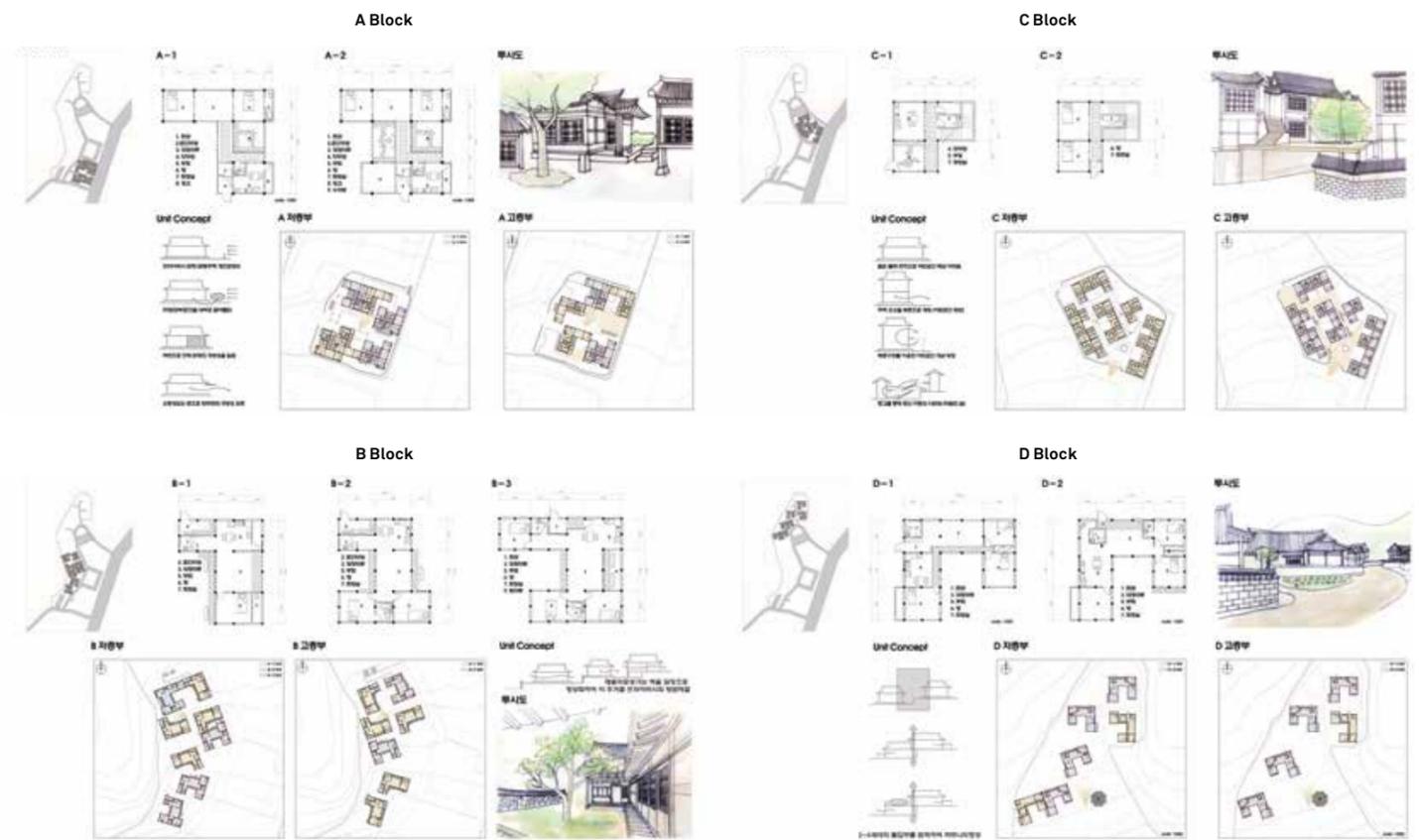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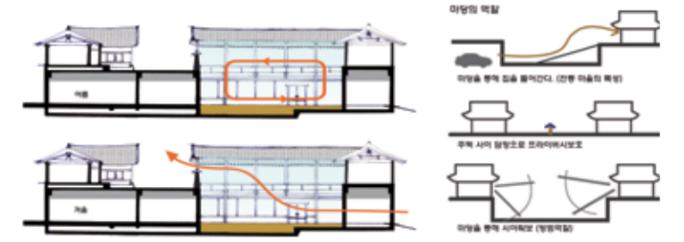
1) A Block: 외부와의 접촉면이 가장 많은 블록이다. 마당과 같은 야외성이 강한 공간을 외부로 두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마당을 주택 내부로 끌어들이 한옥의 공간 특성을 살리고, 외부의 시선도 차단한다. 폐쇄적일 수 있는 내부의 마당은 유동성 있는 문을 두어 내부외부의 구분이 없게 한다. 주택 건물 1층과 2층이 겹치는 부분을 2층 데크로 설정하여 수평적인 야외 공용소마당의 범위를 수직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다채로운 시야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B Block: 대지의 서쪽에 위치한 b블록은 산에서 내려오는 등고를 따라 동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사를 가지고 있다. 집의 향은 동남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면서 마당을 서쪽으로 안아 주어 개인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C Block: 블록의 면적이 좁아 단위세대를 단층으로 설계하게 되면 마당과 같은 야외공간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진다. 단위세대를 복층으로 설계하여 공용야외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블록의 등고 위아래로 단지의 큰 마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 단지의 전체적인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는 블록이다. 복층 단위세대 2층에도 출입구를 두고 등고에 따라 블록 전체에 데크를 두어 위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마당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복층 주거 1, 2층에 두어진 출입구는 무료로 느껴질 수 있는 복층구조에 순환할 수 있는 동선체계를 만들어준다.

4) D Block: 큰 블록 안에서도 2~3개의 주거를 묶어주어 서로 골목길의 출입을 함께하며 우리 계획 부지중에 가장 위쪽에 위치하여 닫혀있는 공간의 블록이므로 집에서 마당이 어우러져 나와 자연스럽게 외부 산들과 향하도록 설계된다.

5) 마당 & 부대시설: 부지 내의 마당은 큰 두 개의 마당과 블록 내부에 있는 작은 마당들이 있다. 작은 마당들은 블록 내에서 블록 내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형성에 주된 장소이다. 큰 두 개의 마당은 각 블록들 사이의 접합지점에 위치하여 단지 내의 가장 큰 커뮤니티 형성 공간이다. 아래에 위치한 큰 마당은 큰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부대시설은 마당 위의 등고 대지 아래에 위치하여 마당을 풀어 자리하게 한다. 위에 위치한 큰 마당은 아트리움으로 계획하여 거주자들의 텃밭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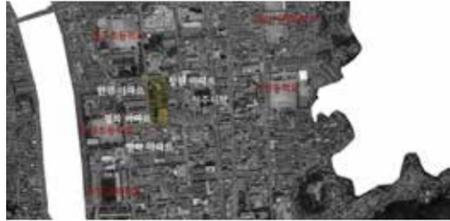


입단면 계획



프롤로그

대부분의 도시는 1920년대 도시계획에 의해 그리드가 형성되고 거기에 맞추어 대규모 건축물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건축물 대부분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아파트 단지들로 조성되었고, 그로 인해 동네 내외부에 있었던 마당들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소가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 주거의 소통단절이라는 문제점에 대하여 소통의 장소가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전통을 계승하며 집합주택의 가능성과 수직구조의 경제성을 수용 및 탐구하여 현대인의 생활 형태에 맞춘 거주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4-79번지일대는 과거에 청주역이 위치하여 청주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도 시청과 학교 등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청주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한옥이 대부분의 사라지고 연립주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지현황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4-79번지 일대
 용도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계획면적 | 10097.2m²
 건폐율 | 53.67% 용적률 | 80.31%
 건물수 | 27채 (근린생활시설 2채 포함)
 가구수 | 142가구 / 층수 | 1층, 2층, 2층 + 다락방

History



아이디어 도출과정

먼저, 대지의 역사적 장소적 의미를 파악하고, 대지 및 대지 주변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변 연립주택과 현재 대지 내에 남아있는 한옥과 옛길, 식재의 분포 등을 파악하고 최대한 이를 유지시키면서 한옥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한옥 단지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한옥의 커뮤니티 공간인 마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적 공간인 개인마당과 건물 2채가 모여 공동마당을 만들어내고 4-5채가 모여서 큰 마당을 형성 시켜주어서 한옥단지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시켜주는 개념이다. 랜드스케이프적인 요소를 적용시켜 그림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도심 속에 최적화된 한옥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평면도

배치도

배치과정



건물을 배치할 때는 외부에서의 형태와 배치상의 유리를 고려해서 도시형 그리드를 순응하여 기본 한옥 모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대지의 필지선에 맞추어 한옥들을 위치를 조정하고, 기존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식재와 옛길, 기존 길의 위치에 따라 건물의 형태를 변화를 준다. 식재 속에 맞추어 건물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입구와 코어를 배치하여 공동 마당에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였다.

재료 적용과정

기존 한옥이 물에 취약하여 부엌과 세면장이 외부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적조를 사용하여 물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중층화를 통하여 한 주호당 최대 2세대가 거주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세대에 개인마당을 설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또한 계단을 서로의 완충공간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였다.

평면구성

평면 모듈은 전통 한옥에 나타난 칸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구체적 평면 모듈은 4칸×9칸, 8칸×8칸, 9칸×9칸 규모로 나뉘고, 'ㄱ'자, 'ㄷ'자 로 구성하였다. 구조적으로는 목조와 조적을 결합한 형태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물에 취약한 한옥구조상 조적을 적용하여 물에 대해 보완하기 위함이다. 4칸×9칸, 8칸×8칸, 9칸×9칸 기본모듈을 사용하면서 조적조 또한 한옥의 모듈에 적용하여 구조적 적합성을 도모하였다.

단면도



오현영 / 박민우 / 변형석 / 박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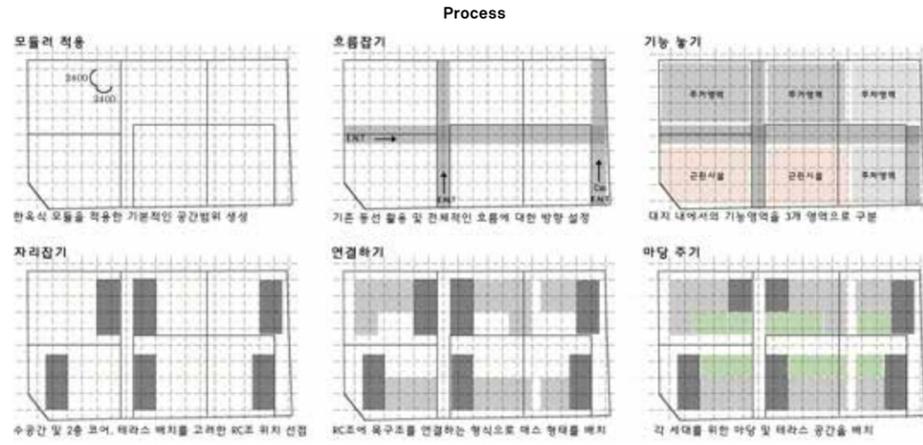
‘韓·屋·集·住’란 한옥을 집합시켜 주거를 형성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제안하는 한옥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이란 도시의 밀도에 대응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경제적인 주택유형이다. 이러한 현대에 우리나라 전통주택인 한옥의 장점을 더한다면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을 다시 이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왜 이 사이트를 선정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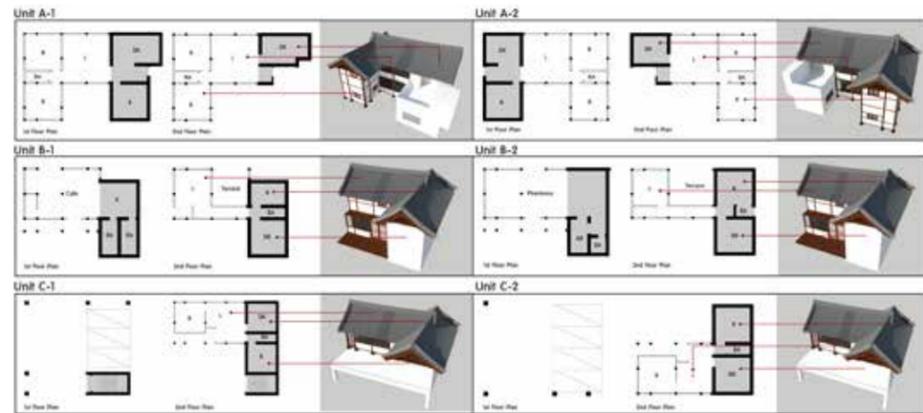
사이트는 청주시 우암동에 위치한 341-4 의 5개의 필지이다. 본 사이트를 선정 한 이유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단독 주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근대기 한옥이 아직까지 여러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관리가 소홀하여 다 쓰러져가는 집처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집이 많이 있고 보수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에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한 현대에도 충분히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옥 공동주택을 제안한다.

어떻게 계획하였는가?

선택한 사이트에 기존 블록식 구성에 기반하여 한옥 모듈을 적용한 6개의 기본적인 주거영역을 설정하고 기존 동선을 활용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면서 3개의 건축 영역으로 구분한다. 다음에 생활 유틸리티 공간(부엌 화장실), 코어, 테라스 배치를 고려한 RC조 구조계획을 하고 다음에 목구조를 연결하는 형식으로 매스형태를 구성하고 세대별로 개인 공간(마당, 테라스)의 영역을 부여하였다.



Space Program



Facade Design



Sit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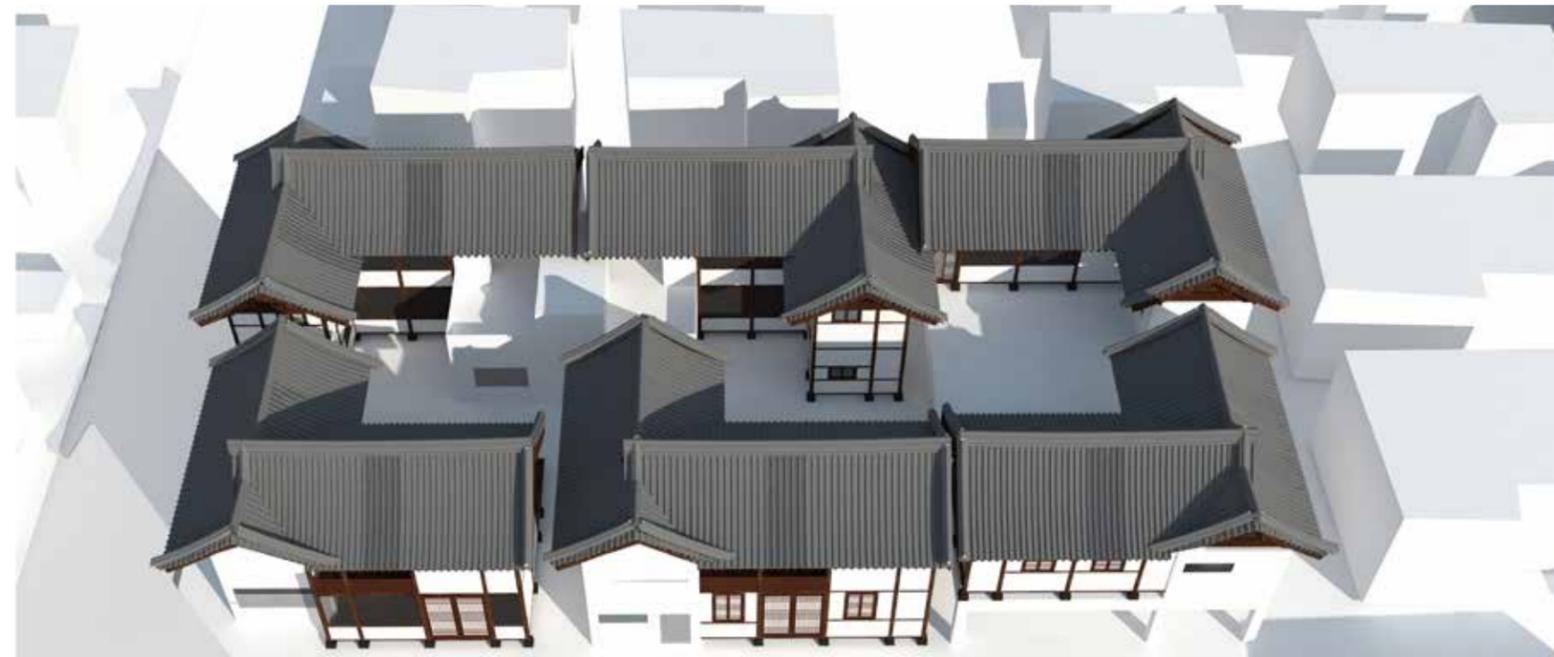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공동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 6개의 필지 안에 배치된 세대들을 '코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건물을 연결하여 북측, 남측, 동측으로 크게 3가지의 유형별 타입으로 구별하였다. 각 타입의 공통점으로는 부엌과 화장실 등 물을 쓰는 생활 유틸리티 공간은 RC조로 하고 나머지 실들은 목구조로 계획하였다. 북측에는 코어를 중심으로 부엌과 현관이 있고 채광을 잘 받을 수 있는 중앙에 거실을 두고 나머지 공간에는 방을 두었다. 1층에는 마당을 두었고, 2층에는 마당 대신 테라스 공간을 설치하여 마당공간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남측으로는 1층에는 공동주택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들까지 편의를 고려한 근린생활시설을 두었으며, 2층에 각각 한 세대씩 거주할 수 있게 계획하였고 주 채광 방향이 남측인 것을 감안하여 테라스 공간을 두고, 거실을 인접시켰다. 동측의 2세대 하부를 필로티 공간으로 계획하여 주차장을 두었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다.

입면 디자인

일직선상으로 놓인 도로와 한옥의 수평선을 강조하기 위해 목구조 입면에 인방을 노출시켰고, 콘크리트 입면에도 가로방향의 라인을 주어 목구조와 콘크리트 구조가 맞닿는 부분이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계획하였다. 남측 가로변의 긴 정측에서 보이는 입면은 수평성 강조를 위하여 콘크리트 부분에 수평창과 수평띠를 설치하였다. 목구조 부분에 전통적 창호를 달아주되 현대에 맞춰서 출입문의 높이와 넓이를 조절하였다. 남측에는 최대한 수평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문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인방을 노출시켰고, 수평창과 수평띠를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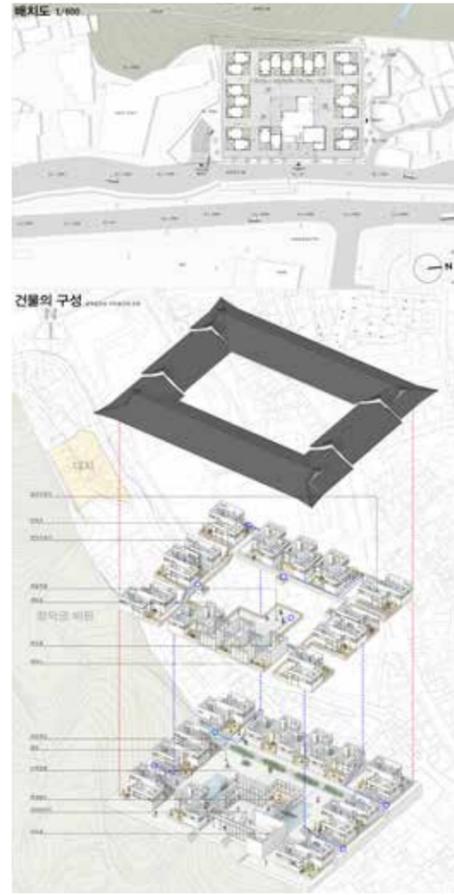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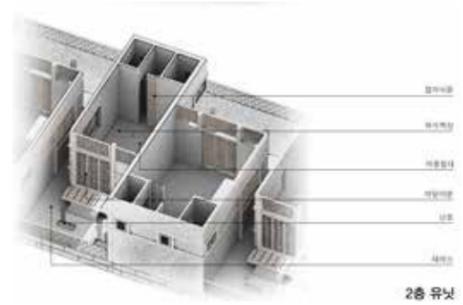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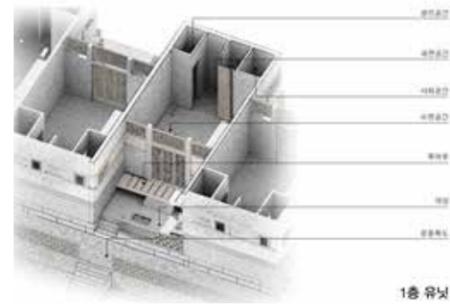


들어가며

서구의 건물은 채움에서 시작하지만 한옥은 비움을 먼저 생각 한다. 담장과 중정, 이를 에워싼 주거공간, 그리고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오밀조밀 모여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옥은 도시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시간의 컷을 간직하고 있다. 대지는 창덕궁 비원과 비천당을 동서로 잇는 성균관로 5길에 위치 하고 있다. 주변에는 밀집된 저층주택 및 외국인 학생 기숙사가 맞닿아 있어, 한옥의 인간적인 스케일을 표현하기에 적합 하다. 역사적 특성을 지닌 창덕궁의 맥락을 대지에까지 연결 시키고 그 흐름을 건물 내부까지 확장시키고자 했다. 한옥 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화된 수많은 공간들의 집합체이며 '칸'이라는 개념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분화된 공간 속에서 창과 마당의 연속을 통해 소통이 극대화된 한옥기숙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설계개념

기숙사의 기본 모형을 산정하고, 청결, 생활, 소통의 공간을 배치했다. 소통의 공간인 마당을 엇갈리게 하여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공용복도와 광장을 둘러싼 비워진 공간(마당)과 채워진 공간(창)이 거주자간의 활발한 소통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대지가 가지는 경사에 순응하여 세 개의 컷을 가지는 기단을 만들었다. 중심 부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공용시설을 배치하고, 기숙사가 이를 둘러싸도록 했다. 또한 매스의 일부를 비워 환기와 채광에 유리하도록 했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된 매스들을 브릿지와 지붕을 이용하여 하나로 뒀히도록 계획했다.



공용공간

소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공공성이라는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충족시키는 기제가 된다. 중심부의 공용공간은 이러한 거주자 소통의 중심지이며, 비움과 채움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다양한 레벨의 대지와 접한 유리박스는 그 주변으로 거주자들의 활발한 흐름을 받아들인다. 또한 떠있는 브릿지와 계단들은 그 흐름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시키며, 기숙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한다. 지상층에서는 광장과 프락정원을 통해, 그리고 상부층에서는 브릿지와 하늘마당을 통해 거주자들의 관계가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상부층의 돌출된 슬라브와 다양한 레벨로 형성된 마당을 통해 소통의 풍부한 표정을 만들어 낸다.

마치면서

지붕의 보이드를 뚫고 들어와 광장에 투영된 햇살의 잔디 위에서 같이 등교할 동기를 기다 리는 학생, 빛이 쏟아지는 유리박스 안의 쉼터에서 전통공연을 관람하는 학생, 마루에 걸터 앉아 창덕궁 비원을 바라보며 내일 배울 수업을 예상하는 학생, 난초에 물을 주며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는 학생, 하늘정원에 모여 동아리 춤 연습을 하는 학생들... 단순히 주거 기능 만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한옥기숙사, '비움과 채움'이다.



1층 평면도(1/200)



1층 평면도(1/200)



단면도 1/150

단면도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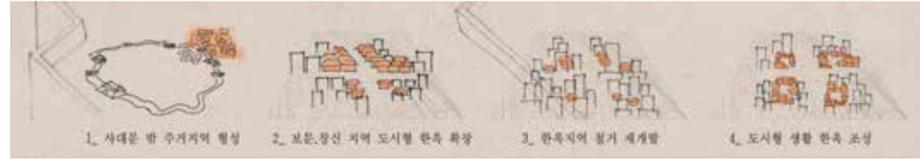
좌측면도 1/150

정면도 1/150

입선 보문동 82번지 도시형 생활 한옥

최은진 / 김은비 / 이상윤

한옥은 한국의 전통주거로서, 공간의 구성은 전통적 가족 구성원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대의 도시한옥은 과거 넓은 마당과 독채 구성에서 변형되어 도시의 밀도에 맞게 압축적으로 변형 되었으나, 가족중심의 공간 구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가족 구성의 형태와 인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3-4인의 핵가족이 일반적이었던 시기도 지나고, 현재는 자녀가 없거나 함께 살지 않는 2인 가구나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이 많아졌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옥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변형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사대문 밖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보문, 창신, 돈암 지역에 당시의 소위 집장사들은 ㄱ, ㄷ, ㅁ자형의 소형 도시한옥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지역 전체가 도시한옥 마을을 이루었다. 그 이후 70-80년대에 이르러서는 붉은 벽돌의 2층 다가구 주택으로의 신축 재개발이 주를 이루었고, 근래에는 원룸빌딩으로 재개발이 주를 이루고, 간혹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기도 한다. 현재도 도시한옥을 철거하고 원룸형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일이 다수 진행되고 재개발 지구로 선정 된 지역도 존재한다, 한옥과 다가구 주택, 양옥, 원룸빌딩 등이 뒤섞여 점점 더 지역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경제적 관점이 도시 흔적의 가치와 지역성에 대한 고민등에 관한 다른 모든 가치를 덮어두게 하는 현대의 돈에 대한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 아이러니 한 점은, 개발논리로 한옥을 철거하고 개발하는 보문, 돈암 지역과 대조적으로 뉴타운 지역 또는 연관성 없는 특정 지역에는 신축한옥 타운을 만드는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프로젝트는 보문 지역 개발에 가족 구성원 수의 변화라는 사회적 측면을 반영한 1-2인을 위한 집합 한옥 주거를 제안한다. 이로써 도시한옥으로 구성된 보문동의 지역성을 강화하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마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 도시한옥의 공간구성을 변형하여 더 압축적 공간으로 구성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옥의 주요한 특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옥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칸(間)'이라는 기둥 사이의 단위공간을 기본으로 한다. 초가삼간에서의 3간은 최소의 한옥구성 단위를 나타낸다. 이 '칸'의 구성은 한옥에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는 주요 요소이다. 1-2인의 주거공간 구성과 면적은 한옥의 3간에 압축된다. 현대적 생활방식에 맞도록 내부 구조를 이룬다. 크게 부엌과 방이 결합된 공간과 화장실로 분리되는 스튜디오 형식(원룸형)이지만 출입은 마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으며, 마루, 마당으로 이어지는 실의 창은 들어 열기가 가능해 여름에는 외부로 공간이 확장 될 수 있다. 원룸의 창을 제외하고 막힌 공간과 달리 한옥의 열린 구성은 풍성한 공간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이 공동주거 한옥에서 각 유닛은 공동의 마당과 개인의 작은 마당과 툇마루를 가진다. 사이트 내에 유닛 사이의 마당은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주요 공간이 될 것이다. 도시한옥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개인의 마당과 툇마루를 변형하여 수용된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툇마루와 마당의 공간은-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도시에서 사람들이 한옥에서 살고 싶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였다.) 신축한옥이 주변과 어우러져 지역성과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케일 또한 중요하다. 사실, 칸의 결합은 가로 확장을 무한으로 키울 수 있으며, 수직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당을 가지는 칸의 결합은 한옥의 기본 스케일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층수와 유닛 결합 스케일만을 제한하여 주변 컨텍스트와 한옥이 가지는 휴먼 스케일을 유지한다.



시대착오적 한옥의 상황에서 새로운 한옥유형의 도입이 아닌 개축과 증축으로 한옥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한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을 마주하고 삶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한옥은 버려지고 또 흩어지며 결국 한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다. 옥인동 송석원 터를 마주하며 신한옥의 등장보다 기존의 한옥의 회복의 단계가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새 삶을 주어주고 싶다.

송석원 터의 윤덕영 가옥은 세월에 따라 공간이 분할되고 스스로가 공동주택화 되었다. 이에 착안하여 송석원이라는 장소성에 윤덕영 가옥이 형성으로 한옥보다 장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가옥의 증축으로 다시 송석원 터의 역할을 하게 될 하나의 공용공간(주막)을 생성하여 다시한번 장소의 정체성을 되새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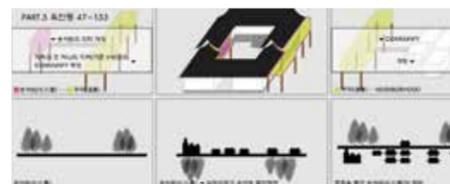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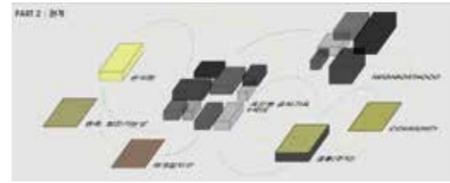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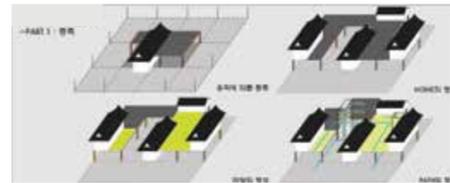
증축 및 개축의 시도는 시대착오에 따라 건축공간의 변형으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화 되어버린 공간을 재 구성하며 구성에 따른 출입 공간에 따른 개별 마당의 형성으로 한옥의 장점을 살리고, 송석원 터와 같은 공용공간(주막)을 증축하여 한옥의 버티컬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이 장소와 사람의 회복을 계획하여 본다.

증축의 방법은 도미노 구조에서 착안하여 모듈을 구성하여 규격화된 한옥의 구조를 지붕선의 끝에 새 기둥과 슬라브를 맞춤으로 공간을 형성함을 기본으로, 대지의 상황과 한옥의 형태의 맞게 모듈을 선택하여 적용함으로 한옥의 증축 가능성을 제기하여 본다.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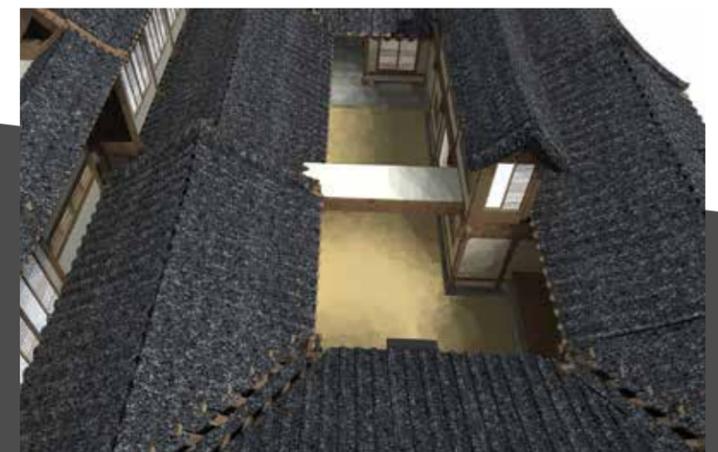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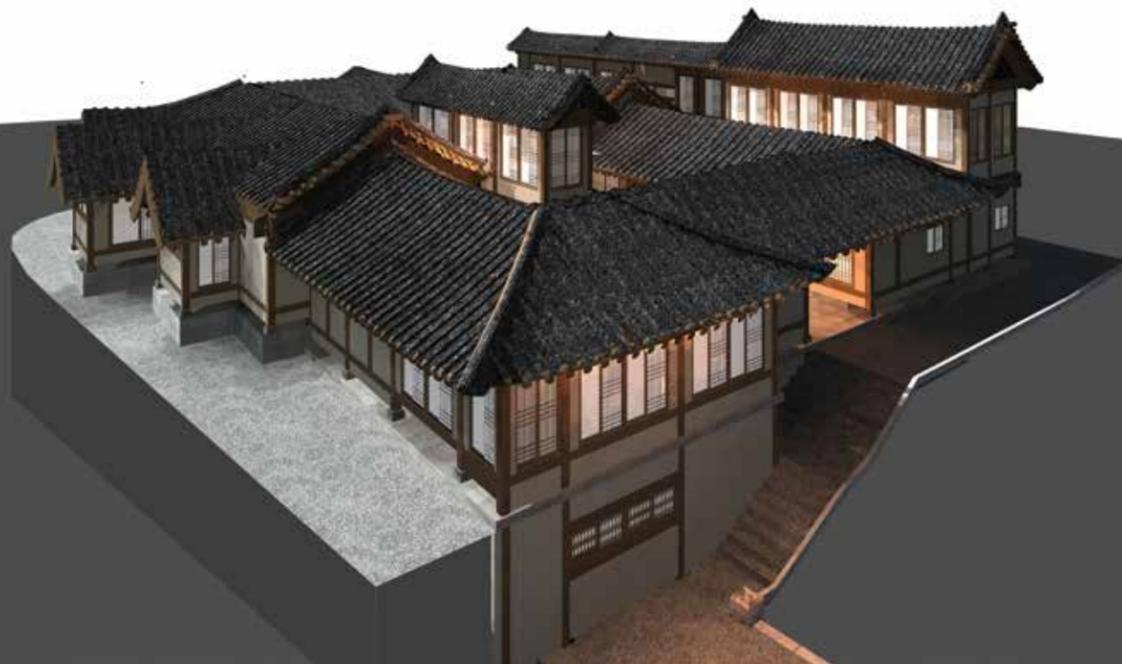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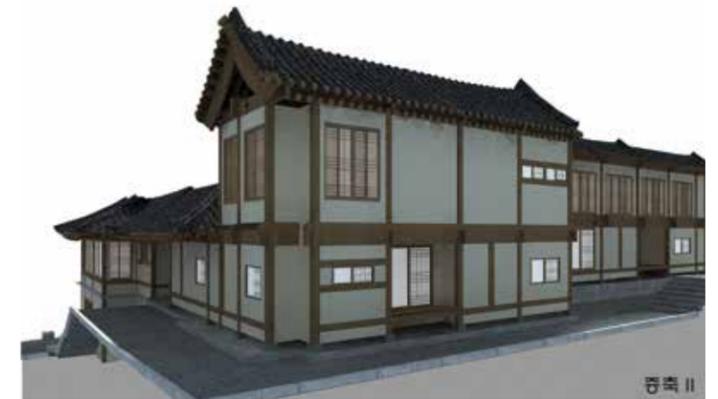
Concept



Floor Plan



Unit



석상우 / 박상준 / 이대원 / 최병목 / 현부일

Synopsis

사람은 항상 관계를 만들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반복을 일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는 도시라는 틀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단절 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의 주거는 수직 동선에 의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소멸 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서로를 단절 시키며 상호 수식을 배제시키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옥의 수평적인 요소, 공간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장점을 수용하고 사용자의 일상적인 행위를 중첩시킴으로서 시간적인 요소를 만들어 다양하면서도 이러한 시간들이 거주자의 일상이 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제안한다.



Site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61, 362번지 일대 부지
 대지면적 | 2,063m² 건축면적 | 1735m²
 기존세대 | 6세대 주택세대 | 11세대
 주차대수 | 16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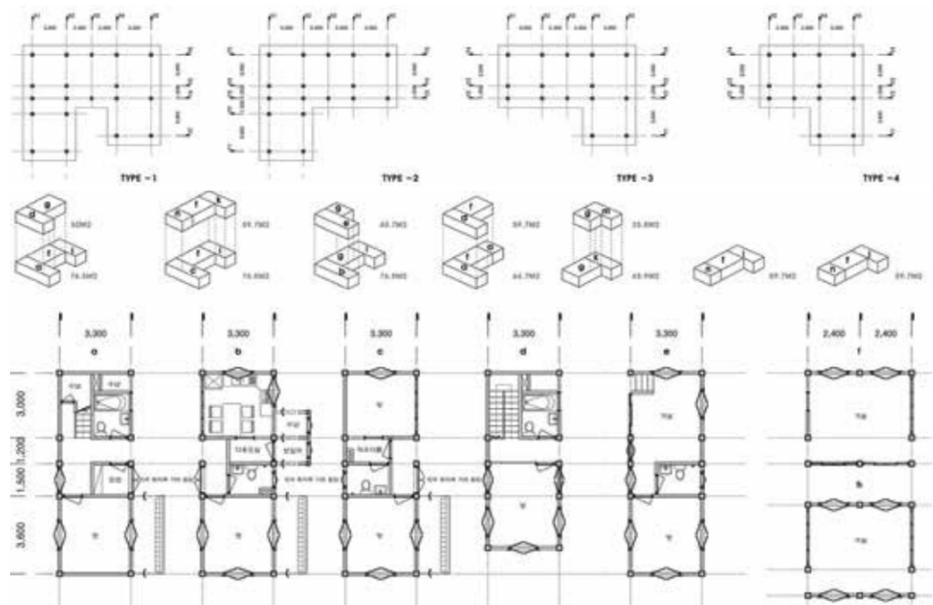
Concept

1. 계획된 공동주택 단지로 인해 사용자들은 의도된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단지 내 또 다른 사용자와 “길”(도서관, 주차장, 안마당, 계단, 공원, 서비스 공간 등...)에서 마주하게 된다. 주택현관을 나서면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거주자와 마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만남이 서로간의 공간에 시간을 생성하게 되고 거주자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2. 한옥의 평면 형태를 module로 구성함으로써 현대 공동주택의 장점을 수용하고 한옥의 요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공동계단, 공동주차, 공동이용 외부공간, 공동 설) 및 구조체(벽, 바닥, 지붕, 기둥)를 분류하고 수용 및 적용 하였다.



Plane _ module plan

다양한 평면을 제공 및 단층, 중층의 형태와 경사지에서 1층 부분의 접근과 2층 부분의 동선을 수용하며 다양한 평면을 제공하고자 한옥의 평면 형태를 module로 구성함으로써 계획을 함께 있어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단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대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Plan

대지의 경사를 활용하여 전체 단지 공간을 3개의 안마당으로 구성하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거평면을 계획 하였다. 평면 계획시 소가족, 대가족의 구성을 각각 분리 계획 하였으며 공동계단, 마당을 이용 각 주거를 연결시키며 벽, 바닥, 지붕, 설비를 공동 이용하도록 계획하여 현대주거가 가지는 이점을 적용 시켜 각각의 주거동을 제안하고 또한, 현대주거 보다 비교적 외부공간의 비율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시켜 더욱 풍부한 조망을 제공하고 동적 중정과 정적 중정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하여 두 중정에 연결성을 갖게 하며 경관에 순응 하도록 계획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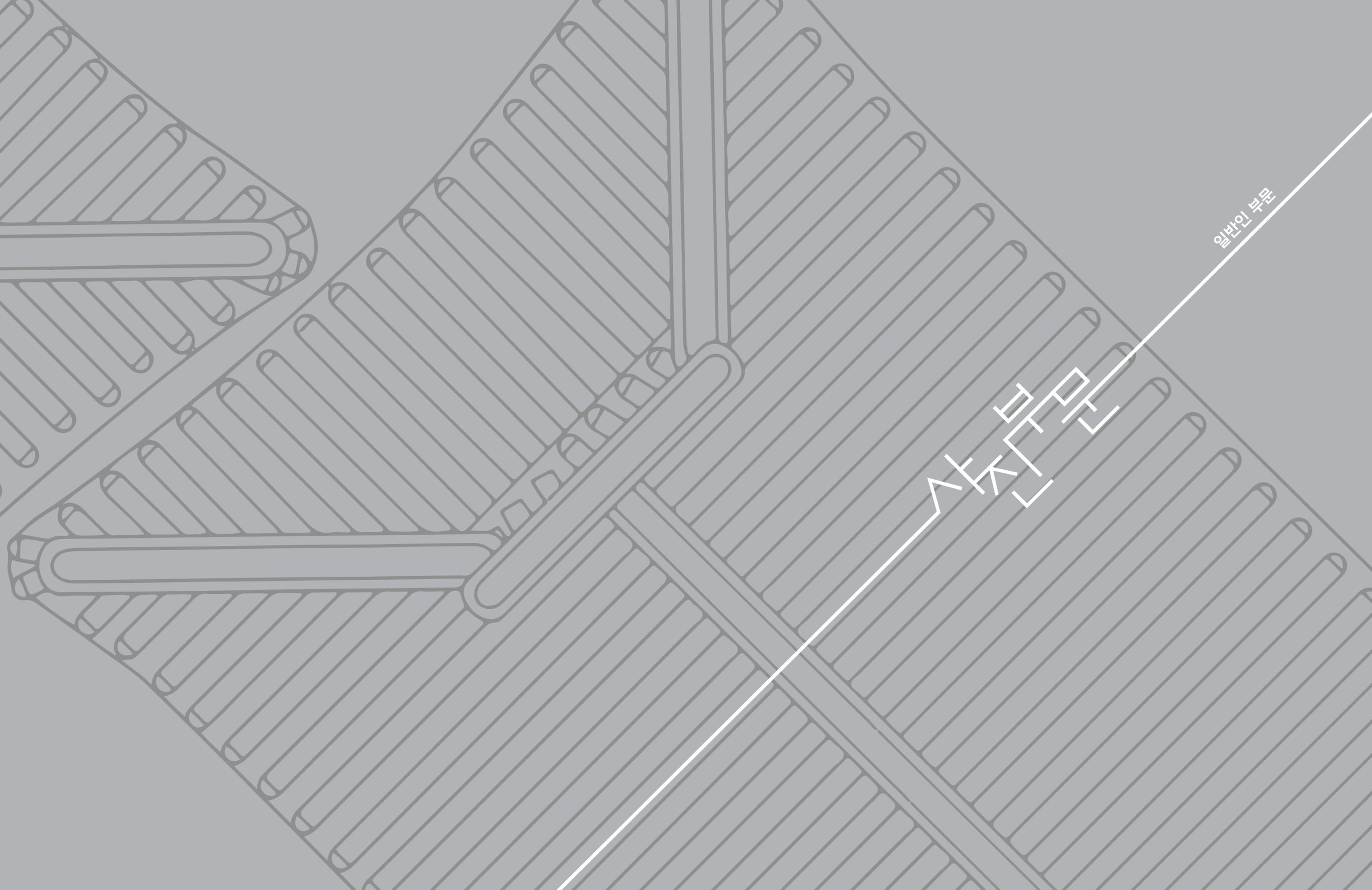
각 마당으로의 진입로, 각 마당을 연결하는 동선을 중심으로 각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거주자들로 하여금 소통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단지 중심부에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 도서관과 단지센터는 단지 외부공간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되고 또한 수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건물과 대지 경계선의 부분에는 각 서비스 공간이 계획되어 주거내의 다용도실의 기능을 나누어 분담하고 각 마당에 조성된 누마루는 외부순님을 대접하거나 주민과 소통하는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Parking

현재 대지는 경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지의 이점을 이용 단지사용자들의 주차공간을 지하로 공동적으로 사용 하도록 구성 하였고 수직적인 현대의 공동주택과 달리 수평적인 요소가 강한 한옥의 특성에 맞게 수직적인 동선으로 주택으로 접근하는 이점을 포기하고 안마당으로 사용자들의 동선을 계획함으로써 주차 공간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 행위의 사용자와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이와이 부부
무라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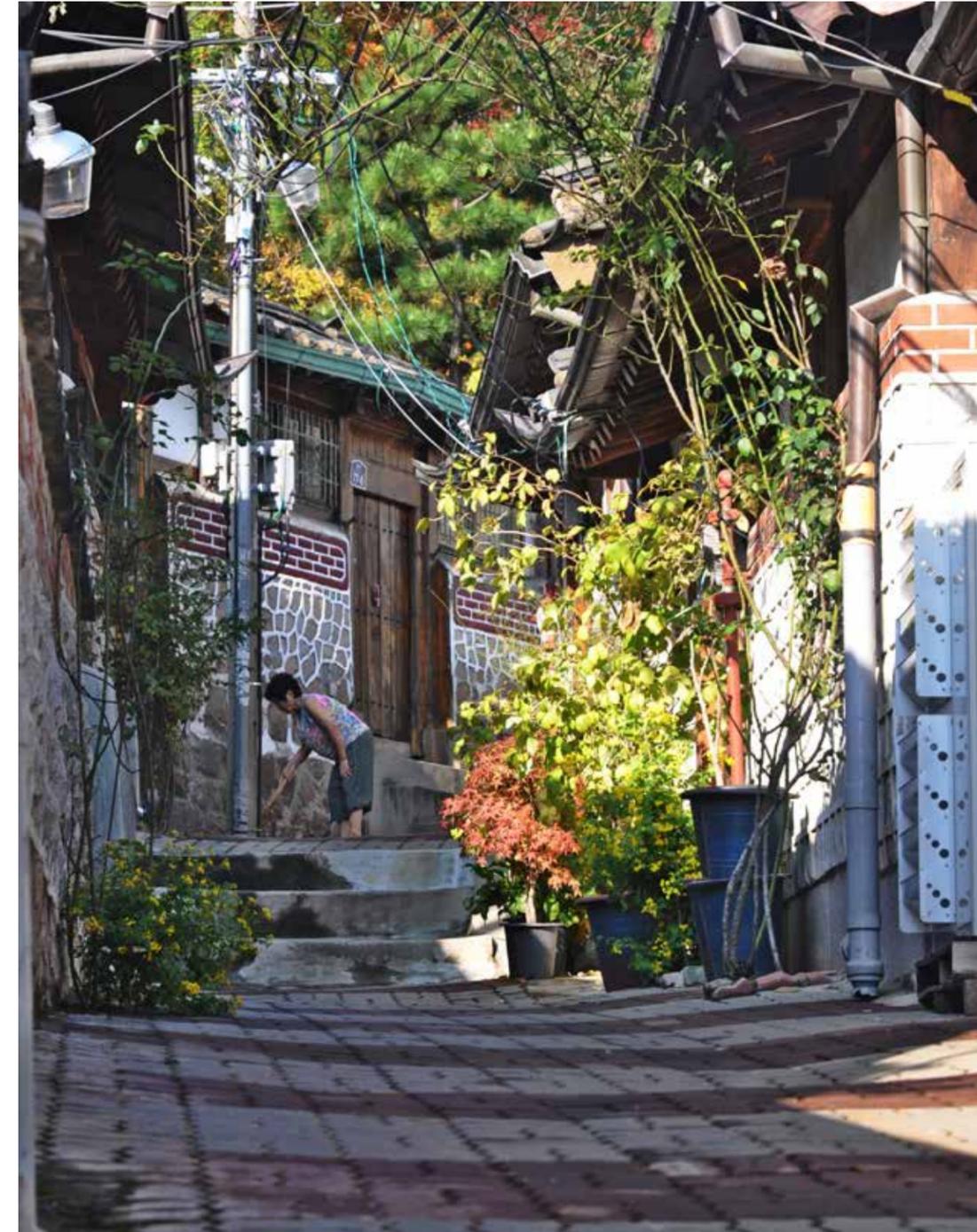
이와이 부부

박호광

사진은 더위가 절정이던 8월 전주한옥마을의 오후 풍경이다. 옥상 텃밭이 보이는 한옥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한옥 기와로 스며드는 오후의 따사로운 빛이 어울려 정겨운 한옥의 정을 느낄수 있다.



한 평생 한옥과 함께한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대청마루는 세월이 흘러도 결의 멋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상 한옥의 아침

조희표

북촌미술관옆(서울 종로)

한옥마을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사진에 담았다. 이곳에선 낙엽 쓰는 풍경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무심코 지나친 풍경과 한옥이 사진으로 멈추었을 때 집과 삶에 대한 소중함을 여유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은상 고추널기

이수산

강골마을(전남 보성)

한옥에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툇마루이다. 특히 나는 10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양에는 없는 툇마루가 더 특별하다.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한가지는 따가운 햇살이 비칠 때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빨간 고추를 말리시던 모습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한옥의 색은 햇빛이 비칠 때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낸다. 나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내 기억 속 한옥의 색,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재현해 보고 싶다. 이제 할머니가 된 나의 어머니와 나와 같은 추억을 간질할 나의 조카와 함께...



은상 천장지구(天長地久)

강상원

왕곡마을(강원 고성)

천장지구란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이다. 사진 속 마루와 뒤주등 조상께서 사용하시며, 내려온 전통들을 유지하며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 천장지구하다고 봤다.

동상 한옥과 양옥의 공존

정규환

YMCA김해(경남 김해)

한옥은 양옥과 대비되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한옥의 위치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한옥의 발전이 멈춘게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친숙했던 한옥들...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콘크리트 건물인 양옥들에게 우리의 한옥은 공존하고 우리에게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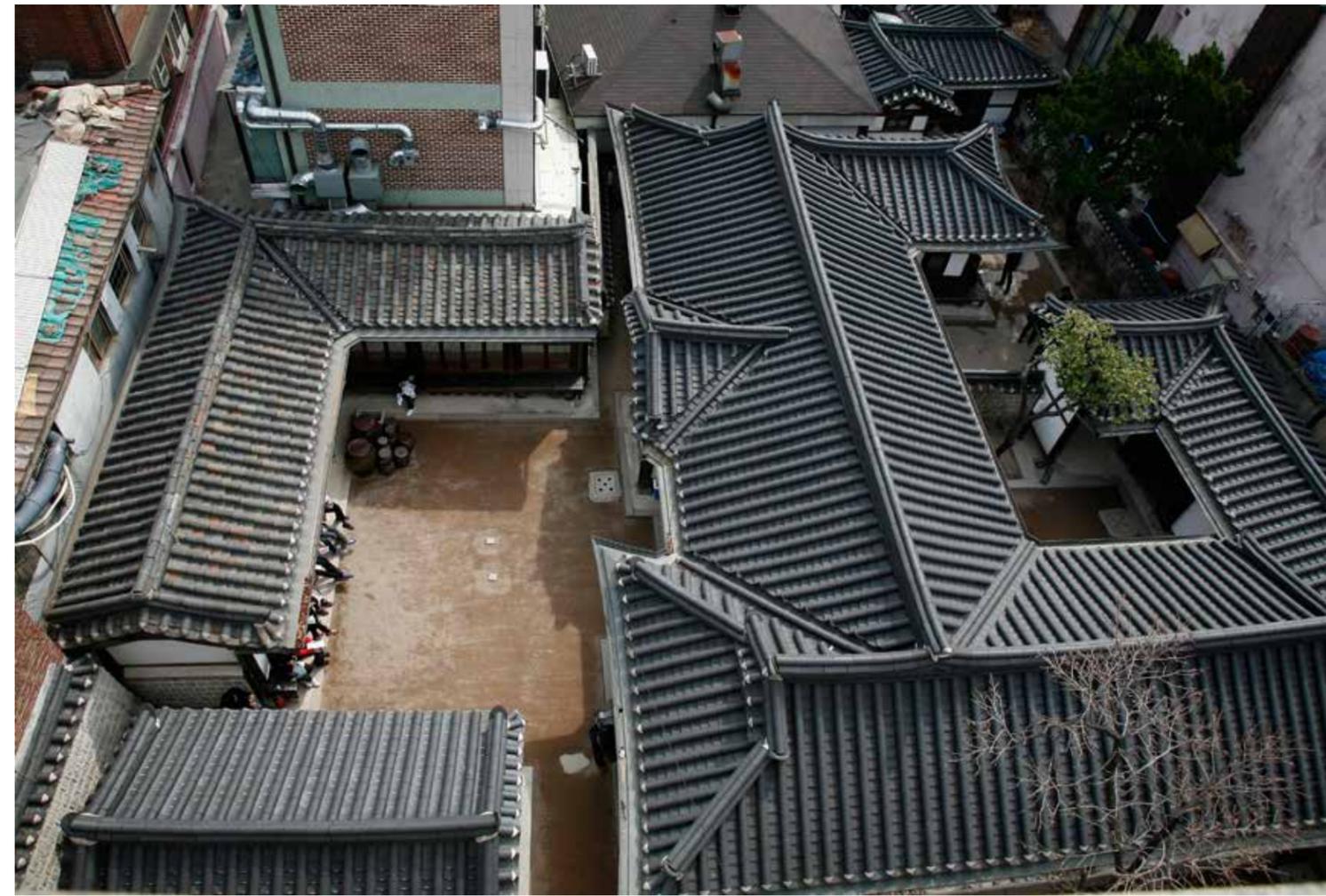


동상 기와와 다리

김민영

북촌문화센터(서울 종로)

북촌문화센터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휴식을 위해 마루에 앉았다. 그 상황을 위에서 보았는데 처마 밑으로 사람들의 다리만 보이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임지연

햇살 좋은 어느 날, 한옥속에서 사는 현대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입선 제주겨울초가 강성욱

성읍(제주 서귀포)

제주는 그리 많은 눈이 내리지 않는데 초가에 눈이 소복이 쌓여있다.

입선 궁궐야행(宮闕夜行) 유청오

경복궁(서울 종로)

궁궐은 다시 살고 있다. 매일같이 사람들 가득 들어서는 살아있는 집이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자취는 은은한 단청아래 일상의 속삭임이 된다.



입선 한옥마을
박호광

전주한옥마을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한옥마을과
현대사회의 운송수단, 그리고 현대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입선 품속
유병민

부석사(경북 영주)

부석사 안양루를 품은 무량수전의
모습과 계절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연의
켜, 그리고 그속에 안겨있는 부석사의
편안한 모습과 그곳을 바라보는
모녀를 담았다.



입선 우리
양만수

북촌한옥마을(서울 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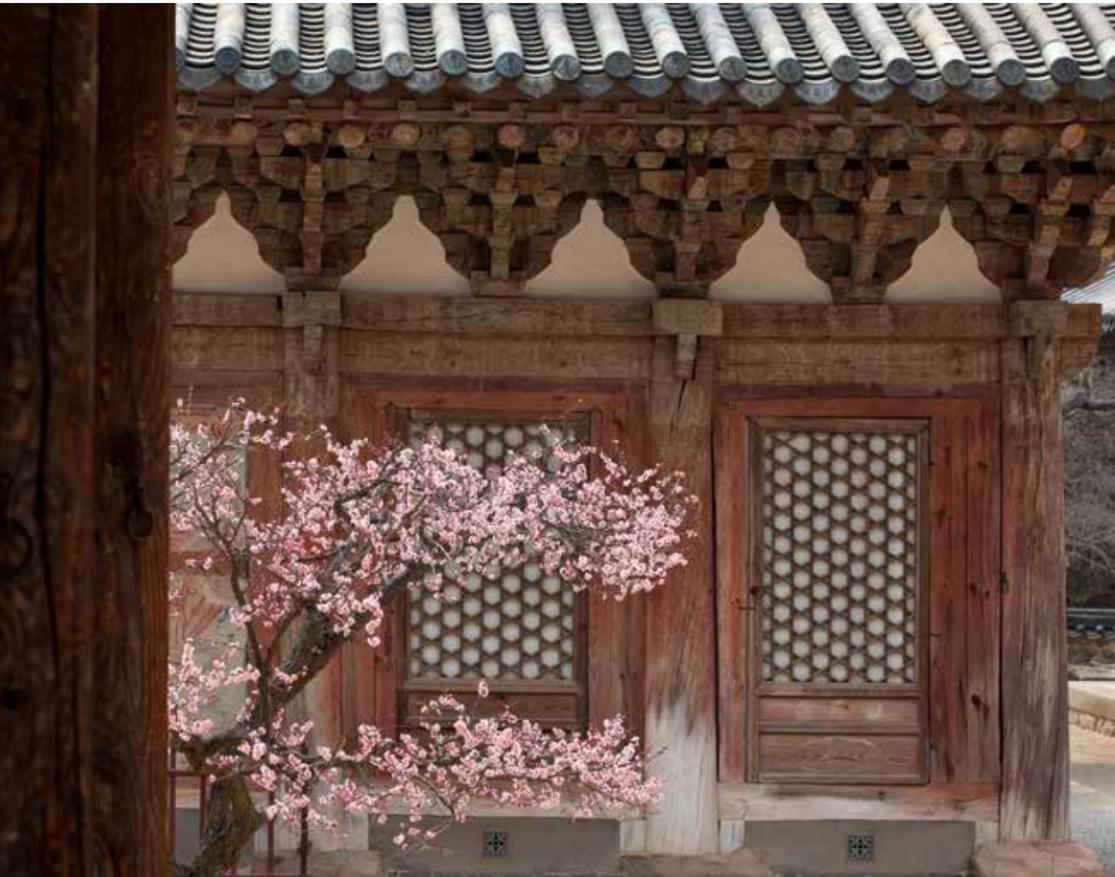
한옥과 커플들 그리고 커플을 가장 잘
표현 한 수 있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
밖에 없다. 실제 북촌마을을 방문 했을
때 커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들의
모습과 한옥들간의 모습도 남이 아닌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목을 짓게 되었다.



입선 축! 결혼!
민병권

남산골한옥마을(서울 중구)

한옥이 요즘의 집들과 다른 기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한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을 표현하였다.



입선 수줍은 앞마당 매화 안상현

통도사(경남 양산)

빛 바랜 한옥의 단청과 나무의 색상이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느낄 수 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앞마당에 피어있는 홍매화만이 피고 지며 항상 그 자리에서 지나 세월동안 있었던 일상을 다 알고 있는 듯하다.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 하며 쳐다보는 홍매화가 한옥과 참 잘 어울린다.



입선 담소 이금연

양동마을(경북 경주)

경주 양동마을은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전통 한옥마을이라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마을이다.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종씨들이 500여년의 전통을 이어 오는 반촌마을이라 지금도 주민들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사진은 마을내 어느 농가의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다.

입선 한옥앞 나무평상 김의자

양림동 들레길(광주 남구)

양림동은 약100여년전 광주 최초의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곳으로 한국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양림동에는 옛날의 골목길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 오래된 한옥 집 앞, 평상 위에 할머니들이 모이자 수다 한 판이 벌어졌다. 막걸리와 맛있는 음식 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한옥은 평상을 놓을 수 있어 휴식하는 공간,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에 좋다.



입선 유씨 종가댁삼 최동혁

류씨 종가댁(충북 청원군)

전통 된장을 제조 판매하는 종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고즈넉한 평범한 한옥이었다.



입선 과거에걸터앉아
권혜정

전주한옥마을

한옥마을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다. 한옥을 보고, 사진을 찍고, 원래 한국을 느끼기 위해 찾아온다. 바쁘게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그 속에서 한옥에 걸터 앉아 정취를 느끼는 것 또한 좋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과 앉아 쉬는 사람, 과거의 한옥 그리고 현대의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름답고 우리가 보는 한옥의 일상이다.



입선 황토벽을 닦은 가을 석양빛과 장작불빛
조기련

송참봉조선동네(전북 정읍)

늦가을 오후 석양무렵, 쌀쌀한 날씨에 온돌방을 데우려 활활타오르는 장작불빛이 석양의 붉은 햇빛과 닮았고 우리네 황토 흙벽의 색과도 닮아보였다. 그래서 인지 황토 흙집이 더욱 따뜻하게 다가왔다.



입선 초가지붕 이엉 작업
유재면

낙안마을(전남 순천)

가을이 오면 파란 가을하늘 아래 초가지붕 이엉작업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낙안민속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두고두고 정겨운 기억이다.



입선 매화마을
고수경

매화마을(울산 남구)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고 피어난 매화가 만발하며, 그 사이사이로 짙으로 엮을 지붕을 갖춘 옛집의 모습, 그리고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고자 남녀가 길을 걸으며 동네를 둘러보고 있다.



입선 운조루의 봄
유지훈

운조루(전남 구례)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는 총 55칸의 목조한옥으로 중요민속문화재로 한옥의 아름다움의 최상을 보여준다.



입선 한옥찻집
조동철

하루찻집(전북 임실)

여행중 우연히 마주친 한옥 찻집이다. 한옥을 아담하고 정겹게 개조하여 찻집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내집에 온것처럼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다. 역시 우리것이 좋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입선 한적한 마을
최석현

왕곡마을(강원 고성)

초가집과 기와집이 어우러져 있는 조그만 한옥마을의 여유로운 모습에서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조용히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든든함이 느껴졌다.



입선 오미마을의 아침
이승기

오미마을(전남 구례)

오미마을의 아침. 떠오르는 햇살이 가가 호호 밟짓는 연기를 비추고 있다.



입선 멀어지는 과거
한동희

북촌한옥마을(서울 종로)

현대에 있어 한옥집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보존을 위해 우리는 험난한 길을 올라가고 있다. 조상들이 지켜온 한옥 집은 현대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 먼 과거를 우리는 보존해야 한다.



입선 그곳에 살고 싶다
정문교

필동2가 84-1(서울 중구)

2012년 한옥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와 잠시 떨어져 가을바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 한옥 그곳에 살고 싶다.

청소년 부문

사진부문

금상 변하지 않은 담소방

강상욱

북촌문화센터(서울 종로)

시간이 지나도 어느 시절이나 담소는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지난 같은 곳에서도 장소만 변형될 뿐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한옥마을에서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한 가정이 살았을 집이었을 테지만 변형되어 현대 사람들이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특별상 온새미로 고즈넉

도혜린

선비촌(경북 영주)

초가집 문 앞에 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콧속에서 마음 깊은 곳까지 마셔버린 따스함, 고요함 그리고 외로움은 우리의 감성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 순간, 발을 내딛는 이 순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금은 새롭고 신선함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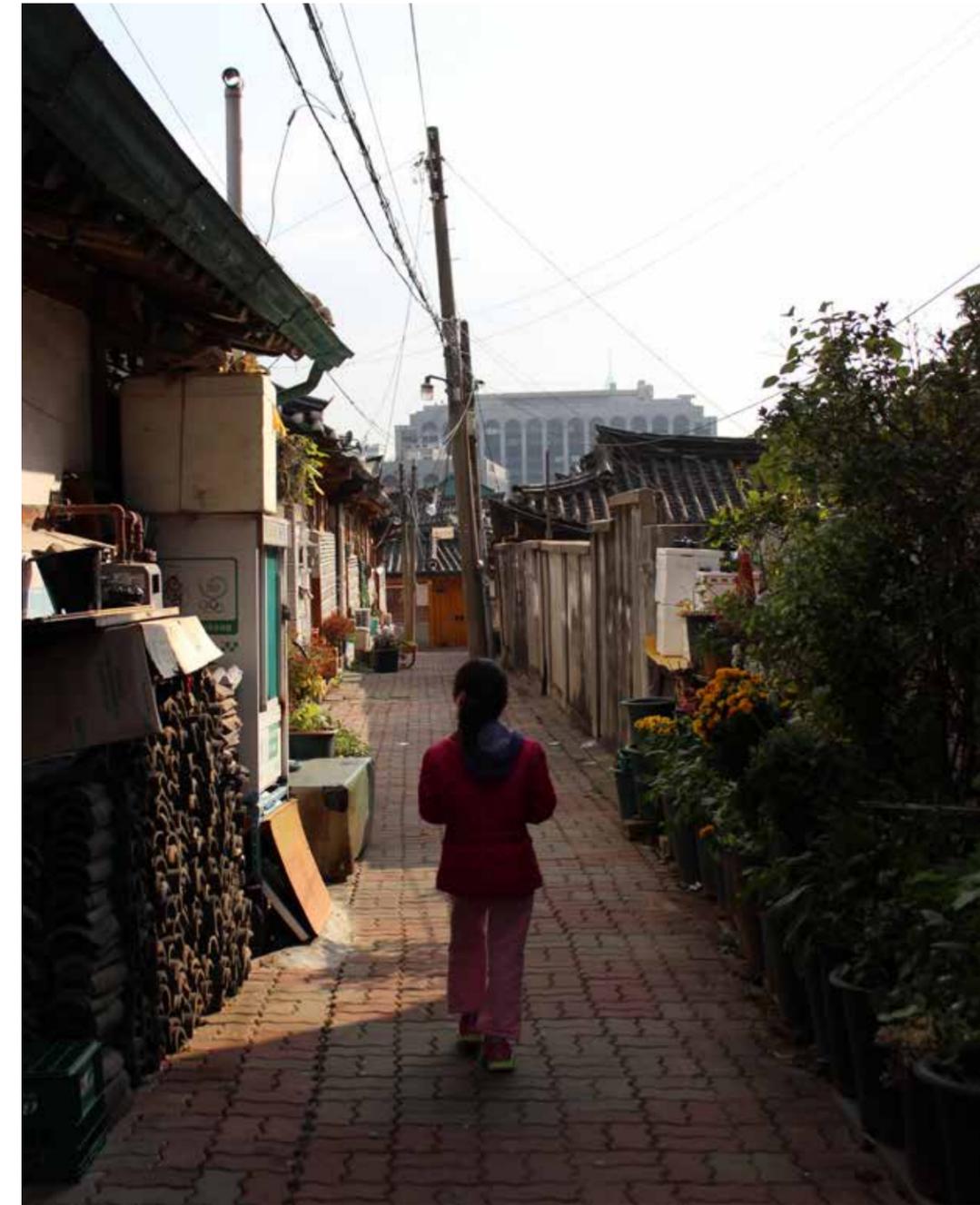
은상 작은 길
이수연

북촌문화센터(서울 종로)

한옥마을은 관광객들로 조금 붐볐다. 어느 곳도 사람이 드문 곳은 없었으며 주민들이 지내는 골목길에서 크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 사이에, 한적한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두 여성을 보았고,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은상 홀로 걷는 골목길
김호서



북촌문화센터(서울 종로)

친구가 없어 홀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과 오랜 친구였던 사람들이 떠난 한옥이 쓸쓸히 서 있는 모습이 많이 담았음을 표현한 사진이다.



동상 연경당

강민지

와룡동 2-71(서울 종로)

창덕궁에는 후원이라는 은밀한 장소가 있다. 이곳은 자연 지형을 살려 만든 왕실의 휴식처로서 부용지와 주합루, 애련지와 의두함, 연경당, 존덕정, 옥류천, 신 선원전이있다. 그 중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한 연경당을 촬영하였다. 연경당은 사대부 살림집을 본떠 왕의 사람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진은 연경당 안에서 건너편을 본 것이다.

동상 가을의 추억

방희영

북촌문화센터(서울 종로)

한 부녀가 한옥에 와 추억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고 따스했다. 한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을에 그곳에서 추억을 만드는 모습은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동상 마루
이혜미

북촌미술관옆(서울 종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가는 대청마루에서 나는 한옥의 일상을 봤다. 독대와 같은 농익어가는 하루는 평화롭다.



입선 명절
김유라

안동하회마을

집 앞에서 명절의 향기를 느꼈다. 명절, 할머니 댁에서 자고 이부자리 정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 댁에서 처마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곳곳들과 그 옆을 지키는 강아지의 모습을 모고 할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하며 나오실것 같다.

입선 어느 가을 오후
김효서

김영구가옥(경기 여주)

어느 가을 오후에 평화로이 밭일을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한옥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입선 지금의 저재
강상욱**

북촌문화센터(서울 종로)

한옥마을을 다니다 보니 한옥가정집을 없애고 액세서리, 카페 등의 상점, 문화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한 점 때문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옥 안을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주인, 구경꾼들의 모습이 눈에 재미있게 들어왔다.



**입선 휴식
장현규**

남산골한옥마을(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한옥을 배경으로 한 연못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향수가 가득한 한옥마을에서 가족, 부부, 연인 등 휴식을 취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했다.

**입선 공존
손희정**

북촌문화센터(서울 종로)

우리는 발전해가는 시대속에서 진화해 간다. 한옥도 우리와 공존을 하기위해 진화한다.



**입선 화엄사의 봄
이설빈**

화엄사(전남 구례)

사찰에 홍매화가 봄을 알려주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입선 게스트하우스
남기현

북촌한옥마을(서울 종로)

북촌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대문이다. 여행은 관광객중 호텔보다 한국의 생활을 느끼고 싶어 많이들 찾는다. 옛 모습의 대문과 함께 계단에 있는 도자기 작품과 어울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끌고 옛날과 현대 시대가 어울어져 있다.



입선 자연의 집
이소영

북촌한옥마을(서울 종로)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간다. 한옥 또한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간다. 우리 모두, 자연 그리고 한옥은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



입선 한옥에 관심을 갖자
강민지

필동2가 84-1

가로등은 어두울 때 밝혀주는 작은 빛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진 속 가로등을 '한옥'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옥이라는 우리의 것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옥에 관심을 갖자'라는 뜻에서 촬영하게되었다.

201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 국토해양부

인쇄 | 2013년 2월 14일

발행 | 2013년 2월 21일

편집 | 이강민, 이진민, 김지민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국가 한옥 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501-1호

전화 | 031.478.9600

팩스 | 031.478.9614

이메일 | hanok@auri.re.kr

홈페이지 | <http://hanokdb.kr>

© 국토해양부, 2013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해양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